

해외 aT소재국의

농산물 해외시장동향

2008년 5월

목 차

I. 심층조사

- 1. 미국 FDA의 한국식품통관 역류현황과 유의사항 .. 4
- 2. 일본의 표고버섯 시장동향 14
- 3. 대만의 포도 시장동향 30

II. 해외시장 동향

- 1. 일본 45
- 2. 중국 59
- 3. 미국 91
- 4. 동남아 138
- 5. 유럽 160

심증조사

미국 FDA의 한국식품통관 억류현황과 유의사항

(로스앤젤레스 dT센터)

1. 한국식품 억류관련 개요

가. 일반현황

- 수입관리·통제제도의 하나로서 미 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식·의약·화장품 등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을 통제
- 외국식품의 대미수출 시에는 FDA에 반드시 통관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통과치 못하는 경우 억류처리
- FDA 억류(Notice of FDA Action)시 명시된 기간 내 개선·보완 또는 이상 없음을 증명하면 억류해제 가능

나. 연도별 현황

- 한국산 농수산물식품의 경우 2001년까지는 매년 억류건수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중국산 식품의 위생문제가 이슈화되며 FDA의 건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2007년에는 전년대비 약 19.5% 증가한 135건 기록
- ('97)212건 → ('99)331 → ('01)663 → ('02)408 → ('03)357 → ('04)400 → ('05)213 → ('06)113 → ('07)135

○ 2007년도 식품별·월별 억류상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품목/총식품건수
면										1		1	2	1%
스낵					1			3					4	3%
수산물	4	7	17	3	2	4		3	8	5	2		55	41%
과실				1				3	1				5	4%
채소연관식품				2	2	1	1				1		7	5%
음료	2	1		2	6	2	4	6	2	3	1		29	21%
캔디	1	1	1			1		6	3		6	4	23	17%
소스				3							2		5	4%
스프												2	2	1%
한방재료(인삼등)	3												3	2%
식품억류건수	10	9	18	11	11	8	5	21	14	9	12	7	135	100%
총억류건수	22	18	30	36	44	21	15	27	32	24	32	23	324	
식품류/총억류수	45%	50%	60%	31%	25%	38%	33%	78%	44%	38%	38%	30%	42%	

다. 전월 (4월) 현황 : 총 61 중 식품 37 억류

- 억류제품 : 음료류 (44%, 16건, 3업체), 수산물 (32%, 12건, 3업체), 베이커리류 (16%, 6건, 4업체), 캔디류 (5%, 2건, 2업체), 과실류(3%, 1건, 1업체)
- 억류사유 : 잘못된 라벨 (24%, 영양분석표, 첨가물 라벨, 영어 표기 포함), 미등록 약산성 식품 (20.5%), 공정과정자료 없음 (20.5%), HACCP 의무 불이행 (11%), 유해색소포함 (8%), 제조업자 정보 없음 (8%), 기타 (8%, 살충제, 트랜스팻, 살모넬라등)

라. 억류감소를 위한 대처방안

- FDA 의 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 (CFSAN) 은 미국내 유통 되는 모든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수산물,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 실시
- 대 미국 수출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위해서는 수출 농수산물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부터 미국통관까지의 매 과정에 필요한 FDA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저산성식품(LACF: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 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 - pH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은 미국선 적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 필요
 - 밀봉포장식품 제조시설 등록(FCE Number :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 를 FDA Form 2541 을 통하여 등록을 하여 FCE Number 취득
 - 공정과정등록(SID Number: Submission Identifier Number)를 FDA Form 2541a (Aseptic packaging 일 경우 FDA Form 2541c) 을 통하여 Process Filing 을 하면 FDA 검토후 SID Number 부여
- 필수 표기 사항
 - 거의 모든 식품에 라벨은 의무사항이며 제품명, 영양 표시, 제조유통업체, 성분표시, 중량, 유통기간 등이 표시되어야 함
 - 육류, 과일, 채소는 자발적으로 라벨링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장
- 식품포장에는 의약품처럼 일정한 건강효과나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의 선전문구는 허위, 과대광고로 간주되므로 주의 하여야 함
- 미국 수출용은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물과 다른 영어표기나, 내용물을 알수 없는 표기는 서류통관이 될 상품도 정밀검사로 갈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함

- 통관시 라벨문제로 보류되었을 경우 라벨을 교정하여 재작업 할 수는 있으나, 재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보관비 등 추가비용 발생가능
-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색소 및 첨가물은 FDA 의 승인 및 등록 되어 있어야하며, 색소는 FDA 가 인증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최근 자주 발생하는 식품에 대한 위반사항 >

- ✓ FCE No. 부재
- ✓ 저산성식품의 공정과정 (SID No.) 미등록
- ✓ 무허가 색소
- ✓ 불결한 제조
- ✓ 승인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 ✓ 영양표 부적합
- ✓ 불법 라벨링 등

마. FDA 수산물 관련 안전 프로그램

- 미국은 고기, 가금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의 안전 프로그램은 FDA가 책임지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FDA에서 의무적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 수산물 관련 법규를 계속 업데이트에서 발행하는데 이러한 법규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수산물 관련 법규의 토대로 사용되고 있음.
- 해외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경우, 미국 FDA가 정해놓은 안전관리기준인 HACCP이나 이와 동일한 안전시스템을 설치해야만 수입이 가능함.

2. 한국식품 FDA 억류 세부현황

○ 총 억류건수 61 식품 37건 (61%)

일 자	업 체 명	제 품 명	억류사유
4/2	Chunji Farmers Association	wild ginseng drink(3) codonopsis laceolata drink(7) acanthopanax drink(3)	미등록 약산성 식품(13) 공정과정자료없음(13)
4/3	Daegok Agricultural Cooperative	Fresh strawberries	살충제 포함
4/8	Life Industry Co. Ltd	pine needle drink	제조업자정보없음 영어라벨없음 트랜스팻 영양분석표없음 미등록약산성식품 공정과정자료없음
4/8	Bing Grae Company	Korean cracker(3)	유해색소 첨가(3) 색소첨가물 라벨없음(3)
4/10	Mammos Confectionary Corp	brown rice cracker	유해색소 첨가
4/21	Samjin Globalnet co., Ltd.	File fish	살모넬라
4/22	Lotte Confectionery	Herb candy	유해색소 첨가 색소첨가물 라벨없음
4/23	Okchun Agricultural cooperative Food Processing	soft drink plum flavor	사용된 재료 라벨없음 제조업자 정보없음 잘못된 라벨 영어라벨없음 미등록 약산성 식품
4/23	Okchun Agricultural cooperative Food Processing	Grape flavor soft drink	오염/변질됨 공정과정자료 미제출
4/23	Changhee Confectionery Co., Ltd	Cookies	안전치못한 색소포함 색소첨가물 라벨없음

일 자	업 체 명	제 품 명	억류사유
4/23	Orion Confectionery Co., Ltd	Korean jelly bean	사용된재료라벨 없음 제조업자 정보없음 잘못된 라벨 영어라벨 없음
4/23	Okchun Agricultural cooperative Food Processing	soft drink plum flavor	사용된 재료 라벨없음 제조업자 정보없음 잘못된 라벨 영어라벨없음 미등록 약산성 식품
4/23	Okchun Agricultural cooperative Food Processing	Grape flavor soft drink	오염/변질됨 공정과정자료 미제출
4/23	Changhee Confectionery Co., Ltd	Cookies	안전치못한 색소포함 색소첨가물 라벨없음
4/23	Orion Confectionery Co., Ltd	Korean jelly bean	사용된재료라벨 없음 제조업자 정보없음 잘못된 라벨 영어라벨 없음
4/25	Jieun Plus Co., Ltd	Salted large-eyed herrings	사용된재료 라벨없음 제조업자 정보없음 오염/변질됨
4/25	Jieun Plus Col, Ltd	Salted shellfish	사용된재료 라벨없음 제조업자 정보없음 미등록 약산성 식품 공정과정자료 없음
4/28	Jeong Hwa Foods Co., Ltd.	spicy roasted squid bulk (5) smoked squid leg spicy roasted squid electrically roasted squid soft roasted squid	HACCP 의무 불이행(9)
4/29	Crown Confectionery Co.	cake	사용된재료라벨없음 제조업자정보없음 잘못된라벨 엘러지라벨없음 트렌스팻 영양분석표없음

3. 주요 타국가 식품억류건수

국가	식품/총억류	주요제품	주요 억류사유
중국	57/122 (48%)	수산물, 소스류	부패/오염, 공정과정자료 미제출 미등록 약산성 식품
일본	45/62 (73%)	수산물, 스낵류	영어라벨없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
대만	114/124 (92%)	간장	공정과정자료 미제출 미등록 약산성 식품
멕시코	92/117 (79%)	캔디류 스낵류 치즈	잘못된라벨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 부패/오염 유해색소첨가

4. 최근 FDA 통관시 유의사항

- 중국산 식품 및 생필품의 안전성 및 식품위생문제와 함께 FDA는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표기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수출농식품 안전성관리를 강화가 시급함
 -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질병에 대한 치료, 처방 등과 같은 허위 과장 표기는 할 수 없음
 - 최근 주류마켓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알로에 음료의 경우 당분표시와 관련하여 “No Sugar Added” “Sugar Free”를 표기한 제품 중 당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당분의 성분을 줄여 표기하는 경우 통관보류 또는 소비자로부터 공익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현지 규정 준수 요망

<최근에 자주 통관보류가 되는 주요 사례>

- 저산성식품(LACF)임에도 SID Number 없이 수출하여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경우
- 통관 편이를 위해 식품을 사료용 등으로 허위기재하여 통관 보류 사례(예: 식용 번데기 통조림을 사료용으로 허위 표기)
- 식품의 명칭을 조사관이 알수 없게 표기하여 서류통관 될 것을 정밀검사를 거치는 사례(예: 강냉이를 Pop Corn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Korean Cookie나 Korean Snack으로 표기하여 정밀 검사)
-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Supplement Facts를 표기하여야 하나 식품과 같이 Nutrition Facts 표기한 경우
- 대기업 제품의 경우에도 국내용 한글 포장으로 수출하거나, 색소를 사용하고도 표기하지 않는 경우(옥수수 수염차, 알로에 음료)

< 대 책 >

- 수출업계의 의식 개선 : 중국산과 차별화하여 수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이나, 실패 할 경우 중국산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외면 불가피
- FDA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 업계 및 관계자 교육 실시
 - LA aT에서는 FDA와 합동으로 하반기 중 세미나 개최 예정
 - 정부 초청시 FDA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임
- 한국 식품 표준 용어 및 표기 집 발간
- 미국 수출업계 대상 식품통관 사례조사 및 사례 발간

5. FDA 관련 뉴스

○ '플라스틱 용기 인체 유해'

미국 국립보건원이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국립보건원(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플라스틱 음식 용기나 음료수병에 있는 화학물질이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국립보건원의 국제 독물학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연방 상원이 화학 비스페놀 A성분이 아기와 아이들에게 안전한 지에 대한 조사를 연방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 의뢰해 이루어진 것이다. BPA라고 부르는 이 화학물질은 아기들이 먹는 음료수병이나 신생아 이유식 캔에 주로 사용되며 음식이나 음료수 포장, 심지어는 약품 포장에까지 사용된다.

이 보고서에는 "BPA성분이 태아의 신경과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신생아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립선과 유방, 그리고 청소년기의 여자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 화학산업 그룹은 비스페놀 A에 노출된 사람들이 극히 적고 재생산과 성장에 해를 끼친다는 직접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 시리얼서 '살모넬라균' 검출

아침식사용 시리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연방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FDA는 지난 12일 미국내 14개 주에서 최소 23명이 살모넬라균에 의한 병세를 진단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리콜된 '말트 오 밀(Malt-O-Meal)'사에서 만든 달지 않은 쌀 가공 제품 'Puffed Rice'와 밀 제품 'Puffed Wheat' 시리얼에서 나온 살모넬라균과 같은 계통의 균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살모넬라균 발견은 지난 5일 Malt-O-Meal사의 정기 검사에서 지난 달 24일 생산된 제품에서 발견됐으며, 리콜된 제품들은 전국적으로 'Malt-O-Meal' 브랜드 및 Acme, America's Choice, Food Club, Giant, Hannaford, Jewel, Laura Lynn, Pathmark, Shaw's, ShopRite, Tops and Weis Quality 등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업체는 해당 제품목록을 웹사이트(www.malt-o-meal.com/recallinfo)에 올려 놓고 지난 5일부터 자진 리콜하고 있으며,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하고 있다.

FDA는 각 식품업체에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중지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유통기한 2008년 4월 8일(APR0808)과 2009년 3월 18일(MAR1809)로 명시된 리콜 대상 제품(사진)을 구입한 경우 먹지 말고 버리도록 당부했다.

살모넬라균은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나 노인들 혹은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가끔씩은 치명적인 감염을 초래하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을 통한 살모넬라 감염의 증상은 구토와 고열,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이 나쁘거나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

○ 한인들 'AI 괴담' 말도안돼...한국 브랜드들 미국 닭 쓴다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미주에서 판매하는 닭고기는 한국산? 미국산?"

한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비상이 걸린 가운데 AI 닭고기 괴담(?)이 한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미주에 진출한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사용하는 닭이 한국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결론부터 내리자면 아니다.

교촌치킨 본촌치킨 BBQ TBBC 등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미국산 닭을 사용하고 있다. 양념 등 일부 재료만 한국에서 공수해오고 있는 것.

일단 한국에서의 가금류 수입은 금지돼 있다. 생닭은 물론 가공닭에 대해서도 연방 농무부(USDA)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수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닭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미주에서 양질의 닭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운임비 등 비용을 더 들어가며 한국에서 수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냉장닭은 항공편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고 냉동닭을 배편으로 수입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산 닭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영향은 없다"며 "100% 미국에서 사육 생산된 닭을 사용하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 풀무원 군만두 리콜...부추잡채 제품 속 알레르기 표기 누락

풀무원이 부추 잡채 군만두를 수거했다.

풀무원 와일드우드(법인장 강영철)와 연방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지난 10~11일 남가주 한인 대형마켓 등 미주 한인 시장에서 자사의 부추 잡채 군만두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거 사유는 군만두에 들어간 계란 흰자 속 알부민의 알레르기 표기 누락이다. 리콜된 제품은 25.4온스짜리 흰색 포장으로 UPC코드는 801114-306338이다. 수량은 1000상자 1만2000봉지. 유통기한은 2009년 2월2일 2월9일 3월6일까지로 한국에서 수입돼 한인 시장에서만 유통 판매되고 있다.

강영철 법인장은 "제품의 내용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들어간 계란 흰자 속 알부민 성분의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경고를 포장상에 표기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거한 제품은 폐기처분했으며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에 대해서는 알레르겐에 누락된 계란 알부민을 추가 수정해 스티커 및 레이블 작업을 다시 한 뒤 유통시키기로 FDA와 논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알부민은 계란 흰자 외에도 콩 등에 들어있으며 FDA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알레르겐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FDA는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감귤 시장동향

(오사카 aT센터)



1. 생산동향

가. 감귤의 개요

- 명 칭 : Citrus(학명) / Citrus(영명) / 칸킥(柑橘)(일명)
- HS코드 : 0805.20-000(만다린, 탄제린, 온주밀감 등)
- 관세율 : 수출입 자유화 품목으로 WTO 협정 17%임

나. 감귤의 구분

- 감귤은 광의적으로는 감귤속, 밀감속, 탕자속의 총칭으로서 식용의 감귤은 대부분이 감귤속으로 일부 금감(金柑)속도 이용되고 있음. 감귤속에서도 껍질을 벗기기 쉬운 그레이프를 밀감류의 만다린(Mandarin)으로 불리나 그 중에서 홍등(紅燈)색으로 착색되는 그레이프를 탄제린(Tangerine) 이라고 부름.
- 감귤류 중 밀감과 밀감속의 온주밀감(溫州蜜柑)은 에도시대(1603년) 초기에 당시 중국과 교역이 있었던 가고시마현의 나가시마(長島)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에도시대에 일본의 대표적인 감귤인 키슈(紀州)밀감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시대(1868년)에 들어서부터임. 각 지역에서 재배가 확대되는 사이에 가지변화에 의한 변이가 많은 품종으로 분화되어 9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폭 넓게 성숙기를 가진 일대 품종군을 형성하고 있음. 온주밀감은 중국과 스페인 등에 도입되어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했음.
- 밀감류의 세계 총생산량은 1,827만톤('00년)에 달하며, 이중 중국 759만톤, 스페인 178만톤, 일본 114만톤 등으로 이들 국가가 주요 생산국임. 인도의 아삼지역에 원생하는 야생종이 중국에 건너가 대발전하여 일본에도 전해졌음. 지중해에 건너온 것이 지중해 만다린과 클레멘타인 만다린으로 분화 되었음.

다. 감귤의 종류

- 감귤은 감귤속, 밀감속, 탕자속으로 구별되나 여기에서는 밀감속의 밀감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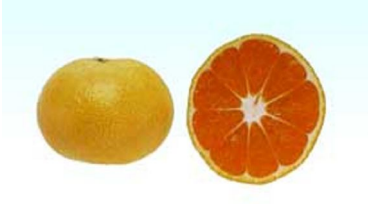
구분	형상	특징
온주밀감 (溫州蜜柑) Satsuma mandarin		상록저목의 감귤류 과실로 원산지는 가고시마현 나가시마임. 일본을 대표하는 감귤류
풍강 (椪柑) Ponkan mandarin		상록소고목의 감귤류 과실로 만다린의 대표적인 품종이며 인도북부가 원산임
이요강 (伊予柑) Iyo tangor		상록저목의 감귤류 과실로 원산지는 야마구치현으로 일본에서는 온주밀감 다음으로 생산이 많은 감귤류
데코풍 (不知火) しらぬひ		상록소고목의 감귤류 과실로 한라봉(데코풍)으로 잘 알려져 있음. 키요미에 풍강을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
세미놀 Seminole		상록소고목의 감귤류 과실로서 탄제로라고 불리는 재배품종군의 한 종류로 단칸그레이프후르츠와 단시탄제린의 교잡종
키슈밀감 (紀州蜜柑) Kishu-mikan, Kinokuni		밀감으로서 일본에 최초 확대된 품종으로 약 800년전에 중국원산의 작은 밀감이 키슈아리타에 이식되어 일대산업으로 발전시켜 키슈(紀州)라는 이름이 붙음

네이블오렌지 Navel orange, Bahia Navel		상록저목의 감귤류 과실로 과 실정상에 배꼽이 있음. 세계에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생식 외에 주스 등에 이용됨
마코트 Murcott, Murcott Honey		밀감에 오렌지를 교배한 것을 단콜이라고 말함. 그 중에서 가장 최고걸작이 마코트임. 과 즙이 매우 많고 단맛과 산미 의 조화가 좋아 맛이 좋음
키요미 (清見) きよみ		상록소고목의 감귤류의 과실로 온주밀감「宮川早生」에 토로비 타오렌지를 교배한 품종임. 과피와 과육에 오렌지 향이 있 으며, 과육은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
앙코르 Encore		과실중량은 90~190g으로 씨 앗이 많으며, 당도가 높고 맛 이 짙음. 에히메현에서 시설재 배로 도입되었음
탄칸 (桶柑) Tankan, tankan mandarin		상록소고목의 감귤류 과실로 중국광둥성이 원산으로 과육 이 부드럽고 과즙이 많아 단 맛이 강함. 씨앗은 거의 없으 며, 주로 가고시마, 오키나와 에서 재배되고 있음
조향 (早香) はやか		온주밀감과 풍강을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풍강의 향기 가 있는 것이 특징임.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음. 온주밀감보다 약간 크며, 씨앗은 있으나 단 맛과 향이 높은 품종
바렌시오렌지 Valencia, Valencia Late, Hart Late		상록소고목의 감귤류 과실로 만생품종임. 오렌지류에서도 가장 생산량이 많으며, 일본에 서는 온도부족으로 거의 재배 되지 않고 미국산이 대부분 수입되고 있음

라. 밀감의 종류

- 밀감류의 대표적인 품종인 온주밀감(溫州蜜柑)은 학명(Citrus unshiu), 영명 (Satsuma mandarins)로 사츠마오렌지(Satsuma Orange)라고도 불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감귤류임. 그 대표적인 품종은 극조생종, 조생종, 중생종, 보통종, 만생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극조생종 >

구분	형상	특징
우에노와세 (上野早生)		과실의 크기는 중간정도이며, 과형은 편원형, 과피가 얇으며, 껍질이 벗기기 쉬움. 저장성이 좋으며, 수확시기는 10월 중순에서 하순.
미야모토와세 (宮本早生)		결실성이 양호하며, 과형은 편평함. 과피가 얇고 껍질이 벗기기 쉬움. 수확시기는 9월중순부터 하순에 걸쳐 출하됨.
니치난1호 (日南1号)		과실은 9월중순부터 수확할 수 있으며, 당도도 높음. 과형은 편원형이며, 과실의 크기는 중간정도임. 과즙이 많고 산미가 적음.
이와사키와세 (岩崎早生)		과형은 편평형이며, 당도는 10월중순에 10~11% 정도임. 품질이 양호하며, 10월 후반이 되면 껍질이 뜨는 것이 많은 결점이 있음.

< 조생종 >

미야가와와세 (宮川早生)		보통온주(후쿠오카현)의 변이로 개량된 품종으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조생종의 대표적인 품종임.
오키츠와세 (興津早生)		결실성이 좋아 수확량이 풍부하며, 과즙 중에 당도와 산미는 「宮川早生」보다 높음. 완숙재배가 가능한 품종임.
하라구치와세 (原口早生)		조생밀감 중에서 인기가 높은 품종으로 당도와 산미의 밸런스도 좋고, 껍질이 얇고 매끄러우며, 오렌지색이 진함. 당도(11도~13도)가 높고, 향기로운 맛을 지닌 품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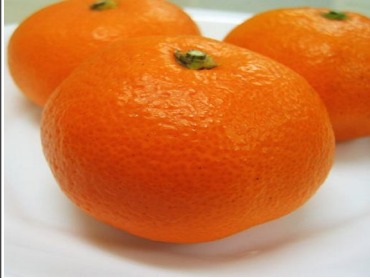
< 중생종 >

난칸20호 (南柑20号)		과실은 편평형이며, 평균과중은 120g으로 대과임. 350g정도의 과실도 있으며, 산미가 적고 당도가 높아 맛이 좋음. 조생온주와 보통온주의 중간형으로 11월 상순부터 중순에 걸쳐 수확됨.
무카이야마온주 (向山温州)		수세는 약간 왕성하며, 과실은 대과로 껍질이 두껍고 과일색 짙은 농홍색. 착색이 빨라 10월 말까지 70%가 착색됨.

< 보통종 >

하야시온주 (林温州)		수세는 강하고 왕성하며, 잎의 크기는 중간정도임, 과실은 M 사이즈 주류이며, 과형은 약간 편평형임. 수확시기는 12월 상순으로 다음해 1~3월까지 출하됨.
(오츠4호) 大津4号		보통온주 중에서도 조숙계로 과실의 크기는 L~2L사이즈가 중심임, 과형은 편평형으로 과피가 약간 두꺼움. 당도가 높으며, 저장성은 약간 떨어짐. 11월중순부터 12월상순에 착색되며, 이 시기가 수확의 적기임.

< 만생종 >

아오시마온주 (青島温州)		과중은 130 g 이상으로 대과품종임. 과형은 편평형이며, 성숙기는 12월 중하순. 당도는 재래종은 보통온주보다는 1도 이상 높고 맛은 매우 좋은 편임.
쥬만온주 (十万温州)		보통온주에 비해 재배가 어렵고, 생산량이 적은 품종임. 그러나, 그 만큼 당도가 높고, 단맛이 매우 강한 품종임.
쥬타로우온주 (寿太郎温州)		당도가 12도 이상으로 높으며,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매우 좋으며, 소과로 M~S사이즈가 중심이나 보통밀감과는 맛이 다름.

마. 밀감의 생산동향

- 밀감의 결과수면적은 매년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확량 및 출하량도 모두 감소추세임. '06년은 생산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력부족 등으로 인한 폐원과 기타 감귤류로의 전환 등으로 '04년(해결이의 해)에 비해 2,000ha 감소한 50,300ha를 나타냈음. 수입비율은 1.4%로 약간의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밀감의 연도별 생산동향 >

연도별	결과수면적 (천 ha)	수확량 (천톤)	출하량 (천톤)	수입량 (천톤)	수입비율 (%)
'97	62.0	1,555	1,376	6.5	0.5
'98	60.6	1,194	1,064	8.6	0.8
'99	59.7	1,447	1,287	7.9	0.6
'00	58.4	1,143	1,019	10.6	1.0
'01	56.3	1,282	1,134	12.1	1.1
'02	55.0	1,131	997	9.9	1.0
'03	53.7	1,146	1,014	9.7	0.9
'04	52.3	1,060	937	11.7	1.2
'05	51.5	1,132	1,005	10.8	1.1
'06	50.3	842	743	10.6	1.4

자료)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과수생산출하통계」 / 재무성 무역통계
주의) 수입비율은 출하량 및 수입량의 합계에 대한 수입량의 비율

- '06년 밀감의 주산지별 수확량 비율을 보면, 와카야마현이 18%, 에히메현이 15%, 시즈오카현이 14%로 이 3개 현에서 전국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06년 밀감의 품종별 생산동향(전국) >

품목 및 품종	결과수 면적 (ha)	수확량 (톤)		출하량 (톤)	'04년산 대비(%)		
			점유율 (%)		결과수면적	수확량	출하량
밀감 합계	50,300	841,900	100	743,200	96	79	79
조생온주	28,600	487,600	58	440,200	96	78	78
이중 극조생	9,060	138,200	16	125,100	97	75	75
하우스	960	44,100	5	41,900	83	81	81
보통온주	21,700	354,300	42	303,000	96	81	81

자료) 농림수산성

< 밀감의 품종별 주산지별 생산동향 >

< 밀감 >

전국 및 주산지	결과수면적 (ha)	수확량 (톤)	출하량 (톤)	'04년산 대비(%)		
				결과수면적	수확량	출하량
전 국	50,300	841,900	743,200	96	79	79
에히메	7,680	125,300	113,800	95	74	74
와카야마	7,640	153,200	139,700	101	85	85
시즈오카	5,860	118,100	99,900	98	83	81
구마모토	4,690	75,300	68,500	99	80	80

자료) 농림수산성

< 조생온주 >

전국 및 주산지	결과수면적 (ha)	수확량 (톤)	출하량 (톤)	'04년산 대비(%)		
				결과수면적	수확량	출하량
전 국	28,600	487,600	440,200	96	78	78
와카야마	4,470	90,400	82,700	101	84	84
에히메	7,390	72,900	67,000	96	72	72
구마모토	3,130	55,700	51,000	100	80	80
사 가	2,250	38,100	35,700	91	69	69

자료) 농림수산성

< 조생온주 중 극조생밀감 >

전국 및 주산지	결과수면적 (ha)	수확량 (톤)	출하량 (톤)	'04년산 대비(%)		
				결과수면적	수확량	출하량
전 국	9,060	138,200	125,100	97	75	75
사 가	1,460	20,100	18,800	91	64	64
에히메	1,400	19,900	18,200	97	68	68
구마모토	1,170	20,900	19,300	103	85	85
와카야마	1,050	21,000	19,200	103	83	83

자료) 농림수산성

< 조생온주 중 하우스밀감 >

전국 및 주산지	결과수면적 (ha)	수확량 (톤)	출하량 (톤)	'04년산 대비(%)		
				결과수면적	수확량	출하량
전 국	960	44,100	41,900	83	81	81
사 가	220	10,700	10,300	91	90	90
아이치	140	6,780	6,420	81	84	85
오이타	86	3,880	3,610	76	76	78
에히메	81	3,130	3,000	72	59	58

자료) 농림수산성

< 보통온주 >

전국 및 주산지	결과수면적 (ha)	수확량 (톤)	출하량 (톤)	'04년산 대비(%)		
				결과수면적	수확량	출하량
전 국	21,700	354,300	303,000	96	81	81
시즈오카	4,150	83,800	69,700	98	85	82
에히메	3,290	52,500	46,800	95	76	76
와카야마	3,160	62,800	57,000	100	86	86
나가사키	1,590	23,400	20,700	98	77	78

자료) 농림수산성

2. 유통 및 소비동향

가. 유통동향

- 감귤은 산지에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크게 도매시장 경유와 산지직거래인 시장 외 유통으로 구분됨.
- '07년 밀감의 출하처 비율을 보면, 동경도중앙도매시장 36%, 오사카중앙도매시장 7%, 기타 출하처 56%로 나타남.
- 대개 감귤 재배농가들은 판매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는 산지의 출하 단체에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집업자에게도 공급하고 있음. 최근의 전체적인 농

산물 유통의 흐름과 같이 도매시장의 상장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양판점 등 대규모 산지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감귤 유통단계별 가격구성비 ('07) >

생산자가격	경매가격	도소매가격	소매가격	소매가격/10kg
21.3	27.6	31.9	100.0	45.2

자료)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청과물유통단계별 가격형성 추적보고

◦ 감귤류의 크기기준은 아래와 같음.

단위 : mm

구분	과일의 직경			
	온주밀감	키요미, 네이블	이요캉	아마나츠
3L	80이상 88미만	88이상 95미만	95이상 102미만	109이상 116미만
2L	73이상 80미만	80이상 88미만	88이상 95미만	102이상 109미만
L	67이상 73미만	73이상 80미만	80이상 88미만	95이상 102미만
M	61이상 67미만	67이상 73미만	73이상 80미만	88이상 95미만
S	55이상 61미만	61이상 67미만	67이상 73미만	80이상 88미만

◦ 무게기준

– 포장단위의 무게는 10kg로 함 . 단, 온주밀감에 대해서는 5kg도 가능함.

◦ 하우스밀감은 하우스재배에 의해 노지재배품이 유통되지 않는 시기에 생산하는 온주밀감으로 별도 전용품종이 아닌 온주밀감의 극조생종, 조생종이 사용됨. 극조생가온(11월상순~12월중순 가온, 4월중순~6월하순 출하), 조생가온(12월중순~12월하순 가온, 6월하순~7월하순 출하), 보통가온(12월하순~1월중순 가온, 7월하순~9월하순 출하)으로 구분되어 유통됨.

나. 소비동향

◦ 과실소비는 단품대량소비에서 소량다품목소비로 전환되고 있어 온주밀감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 양보다는 질을 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어 각 산지에서는 고당도계통의 품종도입으로 보다 높은 품질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고당도 품종이라 함은 당도 12도 이상, 산미 0.9% 이하의 품질을 말하며, 고당도 계통 품종으로서는 아오시마(青島)온주, 쥬타로우(寿太郎)온주, 키포우(金峰), 쥬만(十萬), 오츠(大津)4호, 난캉(南柑)20호 등
- 고당도 품종은 재배하기 어려운 품종으로 고도의 재배관리를 요하며, 또, 어디에서나 재배할 수 없어 적지의 생산이 요구되고 있음.
- 이중 하우스밀감의 소비는 정착되어 있으며, 과실이 편평형으로 과피가 얇고 부드러움. 당도가 12도 이상, 산미가 1.0% 이하로 외관 및 품질 모두 밀감조건을 갖추고 있어 소비호조의 요인으로 보고 있음.

< 연도별 1세대당 밀감의 구입 지출금액, 구입량, 평균가격 >

구 분	'01	'02	'03	'04	'05	'06
지출금액(엔)	6,306	5,790	5,201	5,409	4,778	4,959
구입량(g)	20,898	20,318	17,987	16,754	16,266	14,365
평균가격(엔/100g)	30.17	28.50	28.91	32.28	29.38	34.52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 밀감의 도매단가와 소비자구입단가의 비교(동경, 오사카) >

연도	동경 (엔/kg)		오사카 (엔/kg)	
	도매단가	소비자구입단가	도매단가	소비자구입단가
'97	220	368	463	356
'98	274	397	495	404
'99	216	364	465	389
'00	232	353	444	378
'01	208	364	443	338
'02	214	360	453	290
'03	203	346	451	281
'04	229	375	469	345
'05	204	299	466	307
'06	271	383	506	385

자료) 1. 동경청과물정보센터, 오사카유통정보협회 「청과물유통연보」
2. 총무성통계국 「가계조사연보」

- 주의) 1. 도매단가 중 동경은 동경도중앙시장, 오사카는 오사카부하 3개 중앙도매시장
 2. 소비자구입단가 중 동경은 동경도, 오사카는 오사카시
 3. 도매단가 중 동경은 밀감류(하우스, 조생, 극조생, 보통밀감의 합계)
 4. 도매단가 중 오사카는 밀감과 하우스밀감의 각 단가의 평균치임.

3. 중앙도매시장 가격동향

가. 오사카시중앙도매시장 가격동향

- 오사카시중앙도매시장의 감귤류의 도매수량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07년에는 전년 비 0.4%로 증가를 나타냈음. 연도별 kg당 단가는 매년 증가 되고 있으며, '07년에는 255엔으로 전년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오사카시중앙도매시장 감귤류 연도별, 월별 도매수량 및 단가 >

연도	도매수량(톤)		금액(백만엔)	단가(엔/kg)		
'05	65,254		13,638	209		
'06	57,672		14,072	244		
'07	57,893		14,763	255		

월 별	도매수량(톤)			단가(엔/kg)		
	'05	'06	'07	'05	'06	'07
1월	8,953	8,352	7,335	216	174	277
2월	8,744	8,513	7,303	206	182	260
3월	7,019	6,893	6,107	220	177	275
4월	4,538	4,573	3,534	240	196	286
5월	1,859	2,227	1,498	305	262	372
6월	809	1,017	840	524	488	588
7월	880	870	823	716	728	827
8월	839	836	849	630	674	745
9월	2,321	1,717	1,893	326	403	413
10월	7,650	5,623	6,949	151	233	202
11월	8,887	6,957	8,764	142	265	165
12월	12,755	10,093	11,998	154	283	178

자료) 오사카유통정보협회 청과물유통연보

- 밀감의 유통량은 와카야마산이 가장 많으며, 전체물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우스밀감의 유통량은 사가산이 전체물량의 37.8%를 차지하고 있음.

< 오사카시중앙도매시장 밀감 연도별, 월별 도매수량 및 단가 >

연도	금액(백만엔)	도매수량(톤)	단가(엔/kg)
'05	6,484	40,526	160
'06	7,729	35,616	217
'07	7,211	36,419	198
주산지	와카야마	20,443	207
	구마모토	3,141	155
	에 히 메	3,082	197
	사 가	2,461	169
	히로시마	1,357	140
	도쿠시마	1,268	318

< 오사카시중앙도매시장 하우스밀감 연도별, 월별 도매수량 및 단가 >

연도	금액(백만엔)	도매수량(톤)	단가(엔/kg)
'05	1,757	2,279	771
'06	1,896	2,385	795
'07	2,139	2,372	902
주산지	사 가	896	910
	도쿠시마	505	918
	에 히 메	228	953
	고 치	158	898
	와카야마	152	1,022
	오 이 타	129	800

자료) 오사카유통정보협회 청과물유통연보

4. 수입동향

- 밀감류의 물량 및 금액 모두 매년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가는 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 '07년 수입량은 전년비 56.4% 감소한 4,605톤, 수입금액도 전년비 36.1% 감소한 902백만엔, 단가는 전년비 46.3% 증가한 196엔을 나타냈음.
- '07년 수입량 중 미국이 가장 많으며, 전체물량의 44.6%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은 호주로 전체물량의 2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2개국가가 전체물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산은 매년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07년에는 전년비 88.5%로 대폭 감소를 나타냈음. 한편, 단가는 550엔/kg로 전년비 128.2% 증가를 나타냈음.
 - 한국산 단가 : ('05) 270엔 → ('06) 241엔 → ('07) 550엔
 - 미국산 단가 : ('05) 140엔 → ('06) 122엔 → ('07) 193엔

< 연도별 밀감류의 수입동향 >

(단위 : 톤, 백만엔, 엔/kg, %)

구 분	'05			'06			'07			전년비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한 국	87	23	270	26	6	241	3	2	550	△88.5	△66.7	128.2
대 만	75	22	300	91	25	272	82	19	228	△9.9	△24.0	△16.2
미 국	7,977	1,114	140	8,606	1,051	122	2,055	396	193	△76.1	△62.3	58.2
칠 레	1,429	190	133	444	71	159	894	162	170	101.4	128.2	6.9
호 주	612	80	131	1,028	141	137	1,075	170	158	4.6	20.6	15.3
뉴질랜드	593	192	324	358	117	327	457	148	324	27.7	26.5	△0.9
합 계	10,827	1,629	150	10,554	1,411	134	4,605	902	196	△56.4	△36.1	46.3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5. 통관제도(과실)

□ 상품분류 및 관세

- HS코드 :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 관세율 : 밀감은 수출입 자유화 품목으로 WTO 협정 17%임.

□ 통관절차

-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의 수입에 관해서는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므로 수입통관에는 각각의 절차에 의해 합격증과 신청확인을 받은 『식품 등 수입신청서』를 취득하여 첨부해야만 함.

□ 수입절차

1) 관세분류

- 일본국내 관세의 분류에 있어서 감귤류의 과실(신선 및 건조한 것)은 0805항에 속함.

2) 식물방역법

- 모든 식물 및 식물생산물은 식물방역법에 의거 검사대상이 됨. 수입시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며, 또한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신청시에 제출함.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등 수입신청서』 2부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 수입식품감시담당에게 신청하면 심사 및 검사 후에 식품위생법상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필』 인이 발부됨.
- 또한,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서 '06년5월에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시행되어 특히 농약사용에 주의가 필요함.

3)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동법에 의거 판매시에는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해야만 함. 이중에서도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또,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의해 유기JAS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기, 오거닉 등의 표시는 금지되어 있음.

4) 수입통관

- 『輸入(納税)申告書』 3부에 상기 “신고확인필식품등수입신고서”, 상업송장, 물품명세서2부, B/L, 보험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며, 심사·검사 및 납세 후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7. 한국산 수출확대방안

- 밀감 중 보통온주 등은 일본산과의 가격경쟁력이 열악하므로 하우스밀감을 중심으로 일본시장을 겨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하우스밀감의 품질등급을 설정하여 철저하게 선별
 - 철저한 선별로 한국산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하우스밀감의 수출규격품 확보
 - 하우스밀감 수출품에 대한 규격 재조정, 선별작업, 포장박스의 내구력 강화, 재배 방법 개선 등 재고 필요.
- 하우스밀감의 수출시기의 정확한 판단
 - 하우스감귤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있는 4월말에서 6월초까지 집중 수출로 수출가격 제고.
- 하우스밀감의 착색 및 산함량이 적당하고 상품성이 높은 것을 수확하여 수출
- 바이어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출이 필요하며 바이어 요구사항 및 클레임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대만의 포도 시장동향

(타이베이 aT센터)

1. 포도의 생산 동향

□ 대만 포도의 기원

- 청나라 康熙시대(1684년) 약 320년 전 중국에서 유럽계 품종이 전파되었으며, 光緒시대(1895년) 일본 점령기에 미국계 품종 및 그 잡종 품종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기후적 제한을 받아 광범위한 재배가 불가능하였다. 1955년 이후 포도주 양조를 위해 시험 재배한 이후 확대 재배 되었으며, 1960년 후반부터 거봉 등의 품종을 비롯하여 점차 소규모적인 상업적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 대만산 포도의 생산 현황

- 포도는 서늘 건조한 기후에 성장하고 적당한 저온 휴면 시간을 거쳐야 정상적으로 발아, 개화된다. 그러나 대만은 아열대, 열대 기후 조건으로 초기 재배 시 많은 실패를 하였지만, 재배 기술 연구 개발을 부단히 하여 최근 1년 2회~3회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재배 품종은 거봉(Kyoho), 이탈리아(Italia),金香(Golden Muscat), 蜜紅 無子(Himrod seedless) 등이 있으며, 그 중 거봉이 대만 수확량의 90%를 차지한다.
- 주요 산지로는 대만 彰化縣의 大村、埔心、溪湖、南投縣의 信義、台中縣의 新社、苗栗縣까지 대략 3000ha이상 된다. 대부분 대만 중부 지역에 70%가 집중되어 있으며 겨울 봄 시기에는 온실 재배를 주로 위주로 출하한다.
- 포도 생산 시기
 - 거봉을 비롯한 직접 생식하는 포도는 1년 4계절 수확이 가능하며 연중 여름에 가장 많이 출하된다.
 - 봄 포도(온실 재배): 5월 상순~6월 상순
 - 여름 포도(최고 성수기): 6월 중순~8월 상순
 - 가을 포도: 9월 하순~11월 하순
 - 겨울 포도(온실 재배): 12월 상순~2월 상순
 - 1년 1회 수확(여름~가을), 1년 2회 수확 (여름, 겨울), 1년 3회 수확(여름, 겨울, 봄)

◦ 대만 주요 품종 설명

구분	품종 명칭	송이당 무게(g)	포도알무게(g)	색깔	육질	주석산농도(%)
생식 품종	거 봉	350~450	10~16	흑자색	부드러움 과즙다량함유	0.4~0.7
	Italia	400~600	8~10	녹색~황녹	아삭함 과즙 소량함유	0.4~0.7
	Himrod Seedless(無子)	250~400	3~4	녹색~황녹	부드러움 과즙다량함유	0.4~0.7
	蜜紅(밀홍)	300~350	10~12	선홍색	부드러움 과즙다량함유	0.4~0.7
와인 양조 품종	Golden Muscat	200~400	3~5	황녹색	부드러움 과즙다량함유	0.4~0.8
	Black Queen	350~600	3~4	흑자색	부드러움 과즙다량함유	0.5~1.0

<보충 설명-사진 참고>

- 1) 거봉: 유럽 잡교종의 4배체 품종, 대만 최다 재배 품종, 과피가 두껍고 당도가 높다.
- 2) Italia: 황녹색 유럽 품종, 포도송이가 크고 포도알은 타원형이다. 저장성이 강하고 운송이 용이하지만 병충해 및 열과 확률이 높아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다. 거봉 생산시기보다 2~3주 늦다
- 3) Himrod Seedless: 유럽 미국산 잡교종(Vitis vinifera L x Vitis labrusca L.) (無籽 喜樂) 뉴욕농업시험센타가 개발 육성한 조생 무씨 포도. 포도송이가 비교적 크고, 포도알은 타원형이며, 완숙기 색깔은 황녹색을 띤다. 당도는 16~18 Brix이고, 거봉 생산시기 보다 2~3주 느림
- 4) 蜜紅(밀홍): Golden Muscat 품종과 타 품종의 잡교종, 4배체 염색체의 홍색 품종, 과실이 크고 풍성하며 생산기가 거봉보다 1~2주 빠르다. 향이 좋으며 당도가 20Brix에 가까움. 중국인이 선호하는 홍색이라 수요량이 많은 반면 과피가 얇아 쉽게 열과(裂果)하여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봉 가격대보다 훨씬 높다.
- 5) 金香(Golden Muscat): 유럽 미국산 잡교종, 황녹색, 육질이 부드럽고 향이 좋음, 재배하기 쉬우나 성숙기에 비를 맞으면 낙실 및 열과률이 높다. 직접 신선한 상

태로 먹기도 하지만 포도주 양조용으로 주로 쓰인다. 과피 보존도가 약하여 시장에서 보기 드물다.

- 6) 黒后(Black Queen): 유럽 미국산 잡교종, 만생종, 흑자색이고 맛이 시고 써서 직접 식용되지는 않으며 포도주 양조 및 주스 과즙용으로만 사용. 과실이 작고 원형이다. 포도송이의 과실 밀집도가 높고 증류 이후에는 화이트 포도주가 된다.

<대만 주요 포도 품종 사진>

거 봉



蜜紅(밀홍)



Italia



金香(Golden Muscat)



Himrod Seedless



黒后(Black Queen)



<대만 포도의 생산 면적 및 수확량>

구 분	재배면적(ha)	1ha당 수확량(kg)	생산량(m.t)
1997	2,635	31,574	81,030
1998	3,110	25,304	73,427
2002	3,206	3,030	84,972
2003	3,228	29,941	92,122
2004	3,249	31,246	97,884
2005	3,326	22,002	71,015
2006	3,438	30,969	102,291

자료원) 농업위원회 농량서 자료

<주요 생산지별 재배 면적 및 수확량>

구 분	2005년			2006년			생산 증감률
	재배면적 (ha)	1ha당 생산량(kg)	생산량 (m.t)	재배면적 (ha)	1ha당 생산량(kg)	생산량 (m.t)	
苗栗縣	478	19,426	9,267	500	32,679	16,334	△78%
彰化縣	1,463	17,977	25,724	1,454	28,763	41,565	△61%
南投縣	531	24,352	12,041	628	32,296	16,964	△40%
台中縣	842	29,086	23,093	841	33,032	27,155	△17%
기 타	11	-	165	13	-	272	

자료원) 농업위원회 농량서 자료

- 2006년 생산 면적 통계로 보면 전국 재배 면적이 3,438ha, 생산량이 102,291톤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3%、44%가 증가되었다. 면적 증가율에 비해 생산량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2005년 기후 영향으로 인한 작황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10년간 통계로 볼 때, 2006년 생산 면적은 1997년에 비해 30.4% 증가, 생산량은 26.2% 각각 증가하였다. 포도의 기술 및 품종 개발에 따라 온실 재배 및 봄 가을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포도 재배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 대만 포도 생산의 99% 차지하는 타이중 일대 중, 彰化縣의 생산량이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전국 생산 농가는 약 8,500가구 정도 된다.

3. 수출입 동향

가. 수입동향

□ 연도별 수입동향

단위: 수입량(톤), 수입액(USD1,000)

구분	신선, 냉장		탈수 및 건조		과즙		합 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2003	17,537.14	17,598.30	5,302.04	5,832.40	3,196.55	3,504.30	26,035.73	26,935
2004	21,586.75	23,144.10	5,514.44	7,517.40	4,113.18	4,838.80	31,214.38	35,500.30
2005	33,134.97	37,584.20	5,457.56	8,728.40	4,981.10	6,060.50	43,573.63	52,373.10
2006	22,375.89	29,439.20	5,560.24	8,651.30	5,872.57	7,287.20	33,808.70	45,377.70
2007	21,734.56	31,101.90	5,641.11	8,572.70	7,792.89	10,823.40	35,168.56	50,498
2008 1~4월	7,552.87	9,376.87	2,223.86	3,559.90	2,698.82	3,772	12,475.55	16,708

자료원) 대만 관세총국 자료23.439

- WTO에 가입한 2002년과 그 5년 이후인 2007년을 비교해 본 결과, 5년간 포도 수입량이 20.6% 수입액이 66.9% 증가하였음. (2002년 수입량 29144.14톤, 수입액 US\$30,238.50 천불).
- 대만 포도 시장 총 물량은 2006년도 기준 약 136.089톤이고, 그 중 수입산은 포도 시장 전체의 24.3%를 차지한다.
- 2005년 대만 국내산 작황이 좋지 않으면서 신선 포도 수입량이 전년도 대비 수입량 수입액이 각각 53.4%、62.4%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수입량이 32.4%、수입액이 27.6% 감소하였다. 또 200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수입량은 2.8% 감소하고, 수입액은 5.6%증가하였다.
- 탈수 및 건조된 포도는 수입량은 2007년까지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3년도 대비 수입량이 6.3%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47%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건포도 수입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수입량(톤), 수입액(USD1,000)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미 국	13413.79	14620.50	17555.88	20874.90	26685.86	33816	15761.27	24011.90	17268.50	27061.50
칠 레	7953.52	7788.90	7240.40	7335.20	8763.16	9435.60	8096.52	9532	6646.50	8797.80
스페인	1206.51	1182.10	1447.94	1569.50	1663.58	1894.10	2466.16	2856.40	2993.70	3842
남아프리카	956.74	1077.60	1357.34	1805.10	1991.22	2102.90	1222.77	1256	2850.54	3002.80
이탈리아	791.46	645.90	1121	1078.70	1355.75	1350.40	1543.09	1601.70	1900.71	2304.20
오스트리아	223.54	189.40	712.42	657.80	1355.75	1350.40	1085.80	1094.50	658.69	713.90
아르헨티나	542.47	535.60	4334.44	518.60	641.20	866.90	735.40	996.70	935.44	1311.40
중 국	167.16	102.10	214.36	169	207.54	171.20	320.53	263	371.09	371.20
페 루	-	-	-	-	-	-	1678.89	1766.40	605	641.30
일 본	52.97	208.20	75.20	442.90	104.13	607.90	227.86	1203.80	240.78	1584.40
한 국	6.18	4.20	0.10	0.10	19.63	16.50	6.76	5	68.90	69.20

자료원) 대만 관세총국 자료

- 대만의 포도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07년도 기준 전체 수입량의 50.8%、전체 수입액의 46.4%를 차지한다. 주로 신선 냉장 형태로 수입되는데 신선 포도 전체 수입량의 58.1%、수입액이 62.1% 차지한다. 건포도도 미국산이 총 건포도 수입량의 48.9% 수입액의 70.9%를 차지하는 등 미국산 포도는 대만 포도 시장 내 약 1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산 포도는 과즙 형태로도 수입이 많이 된다.
- 미국산 이외에도 칠레산, 스페인산, 남아프리카산, 아르헨티나산, 이탈리아산 등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포도 강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특히 칠레산은 전체 수입량의 18.9% 수입액의 17.4%를 차지한다. 대부분 신선 포도 형태 및 과즙 형태로 수입되어진다. 남아프리카산도 신선 포도 형태로 수입되어지고 스페인산 및 이탈리아산은 주로 과즙(주스)형태로, 아르헨티나산은 건포도 형태로 주로 수입된다.
- 일본산은 수입량이 현재 전체 시장의 0.68%에 불과하나 거의가 신선 형태로 수입되며 고가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한국산 포도는 신선 형태로 통계상 소량 수입되거나 시장 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산 포도는 대만 전체 포도 시장의 0.2%이다.

- 중국산 신선 포도 및 천연 과즙은 수입 금지되어 있어 대부분 건포도 형태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수입량이 2.2배나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3.6배나 증가하였음.
- 칠레산 포도는 연간 600톤 수입 쿼터량, 관세율 42.5%로 수입되다가 2002년 WTO 가입 이후 자유화 되었고, 칠레산뿐만 아니라 칠레 남미 및 아프리카 유럽 등 타국가산이 대거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 페루산 포도는 2006년도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량이 신선 냉장 형태로 수입된다.

□ 월별 수입동향

단위: 수입량(톤), 수입액(USD1,000)

구 분	2006		2007	
	수입량	수입액	수입산	수입액
1월	2637.33	3547.30	2134.33	3284.60
2월	2180.26	2653.10	1784.95	2211.90
3월	2523.43	3025.90	3670.14	5478.00
4월	4536.55	5084.60	5107.94	6090.70
5월	3815.86	4046.30	1921.67	2719.90
6월	1943.72	3139.60	1246.69	2022.00
7월	892.30	2366.50	1486.37	2346.80
8월	2342.96	3799.90	2597.45	3801.20
9월	4327.23	5971.10	4976.65	7279.20
10월	5664.99	7542.00	5089.03	6887.60
11월	1710.36	2364.80	3298.43	4822.10
12월	1233.70	1836.60	1854.92	3554.00
합 계	33808.70	45377.70	35168.56	50498.00

자료원) 대만 관세총국 자료

- 대만 포도 성수기인 6~8월(여름포도), 11~12월(겨울 포도)은 수입량이 비교적 적으며, 봄(3~5월) 가을 (9~10월) 대만 국내 생산은 되나 상대적으로 물량 적은 시기에 수입량이 증가하였음

나. 수출동향

단위: 수입량(톤), 수입액(USD1,000)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4)	합 계
수출량	542.41	507.11	811.92	1088.19	1352.37	389.90	4691.88
수출액	1222.80	1044.80	1870.90	2186.40	2911.50	910.70	10147.10

자료원) 대만 관세총국 자료

- 2003에서 2007년까지 수출량이 250% 수출액 238%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태국 싱가포르, 한국, 홍콩 등지로 수출이 된다.
- 일본, 싱가포르, 홍콩으로는 신선 포도가 전체 수출량의 5% 정도 수출되고 일본 수출 단가는 타 국가에 비해 30% 이상 높다. 태국 한국 일본 홍콩으로는 대부분 과즙형태로 수출된다. 주요 신선 포도 품종은 거봉이다.

4. 유통 및 소비동향

가. 유통 동향

<주요 도매시장 포도 종류별 평균 도매가격 및 교역량>

2007년	연간 평균 도매가격(1kg당 NT가격)				연간 교역량(톤)			
	포도기타	거봉	Italia	수입산	포도기타	거봉	Italia	수입산
台北市(一)	12.8	49.2	33.9	83.6	18.1	2471.5	0.2	1135.1
台北市(二)	7.6	42	26.9	76.5	0.1	1195.7	0.9	663
三重市	10.2	33.8	42.7	33.1	18.9	3232.8	3.2	1674.5
台中市	6.4	45.9	42.3	121.1	0.2	3096.4	9.8	532.5
東勢鎮	-	35.5	51.6	-	-	16.3	6.5	-
嘉義市	-	50.1	-	84	-	166.2	-	124.5
高雄市	-	40.6	24.1	89.9	-	748.9	0.1	298.9
鳳山市	-	38.8	-	-	-	523.8	-	-
台東市	-	70.60	-	-	-	48	-	-

<포도 종류별 전국 평균 도매가격 및 교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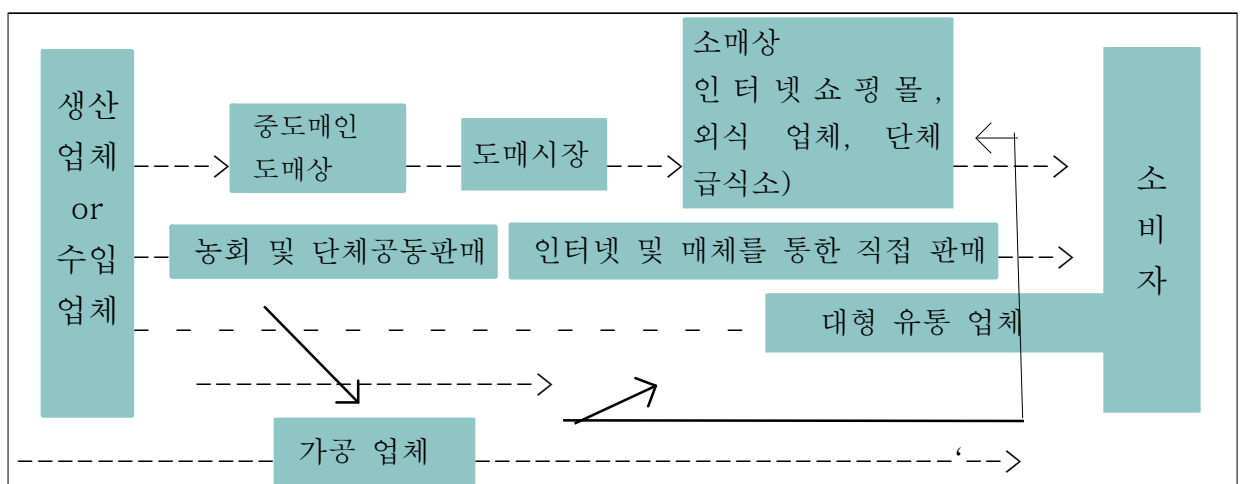
구 분	연도별 평균 도매가격(1kg당 NT가격)				연도별 교역량(톤)			
	2005	2006	2007	2008(1~4)	2005	2006	2007	2008(1~4)
포도 기타	12.2	10.5	11.5	24.7	65.8	51.1	37.3	0.2
거 봉	40.2	42.6	42.3	58.3	12136.3	10574.4	11499.5	1924.5
Italia	38.9	41.8	43.8	45.3	57.9	40.5	22.1	1.0
無子	83.10	54.5	42.1	50	2.2	1.5	1.5	0.2
無子(수입)	-	66.7	3.0	91.7	-	-	-	0.1
蜜紅	32.50	79.7	68.4	-	0.8	0.8	0.4	-
수입산	53	57.2	49.4	66.3	6374.2	4831.5	4428.4	1658.6
합계	44.50	47	49.4	62.0	18637.3	15499.8	15989.3	3584.5

자료원: <http://amis.afa.gov.tw/default.asp> 農產品交易行情사이트>

- 각 도매시장 거래량으로 보면 三重市、台中市가 가장 많고, 거봉이 전체 시장 거래량의 70%이상, 수입산은 31%을 차지한다.
- 전국 평균 도매가격으로 보면 수입산 가격대가 대만산 거봉에 비해 20~30% 높다.
- 대만산 포도는 상품 품질 유지、운송 중 상품 손상을 줄이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등급별 포장을 하고 있으며, 그 등급은 당도、과실 외관 및 착색、주석산 농도、과립 견실도 등에 의해 3개 등급으로 분리된다.(특급품, 우수품, 양질품)
- 판매 경로별 포장
 - 중도매인으로 판매될 경우는 생산농가는 등급별 포장을 하지 않고 중도매인 및 도매상에 10kg 단위로 비닐 바구니에 싸서 인계한 뒤 중도매인은 각 농가 물건을 수집 후 등급별 포장을 함
 - 도매상 및 소매상: 10kg 단위의 비닐 바구니 및 스티로폼 상자
 - 단체 공동 판매: 5kg단위의 박스 등급별 포장
 - 대형 유통 마켓 및 슈퍼마켓: 1kg 고급 선물 세트 포장、3kg 박스 포장、각 송이마다 종이로 싸야 하며 통풍 삼각 비닐 캡을 씌운다. 또 박스 바닥에는 상품 보호용 시트를 깔아야 된다.

- 유통 구조: 중도매인 및 도매상을 통한 판매가 약 70%를 차지하고, 농회 및 단체 별 공동 판매가 17%、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직접 유통 판매가 13%、슈퍼마켓 및 대형 유통 매장 직접 유통이 2.7%정도、중도매인이나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도매시장에 직접 판매가 2.5% 정도 된다.
-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유통 경로 외에도 생산농가의 판매 유통 경로가 다양해졌으며, 매체와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와 직거래 형태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대만 시장 포도의 유통 경로>



나. 소비 동향.

- 생식, 건포도 이외에 과일 주스, 잼 포도씨 식용유, 포도 식초, 포도주, 포도맛 아이스크림 과자 케익 등 가공 식품에 원료로 사용됨
- 최근 대형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저가대 포도주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대만은 작년(2007년) 총 1,800만리터를 수입하였고, 전년도 대비 12.1%성장률을 나타내었다.
- 일본산 포도는 고가대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음 2kg포장에 NT\$3,000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 대만산 과일은 설, 청명절, 단오절, 중원절, 추석 5대 명절에 소비가 가장 많이 되며, 특히 포도는 여름에 출하가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단오절과 중원절 소비율이 가장 높다. 단오절을 겨냥한 과일선물세트가 출시되고 중원절에는 제수용품으로 판매가 많이 됨

- 한국 주요 생산 품종인 캠벨얼리(Cambell early)는 대만 시장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대만 최대 출하 시기인 6~8월 보다 1~2개월 출하시기를 당긴다면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입산 포도는 씨 없는 형태의 포도가 인기이고 미국 칠레 남아프리카산 등 각국에서 수입된다.

<수입산 포도 포장형태 및 주요 유통 품종>

구 분	포장 형상			유통 품종
대만산(거봉)				거봉
일본산				Pione Champagne Muscat 無籽거봉
미국산				Red globe Crimsons Champagne Autumn royal Castle rock black Perlette
칠레산				Red globe Larry ann
남아프리카산				Crimsons Perlette

<대형 유통 매장 경관>



5. 통 관 제 도

가. 포도의 관세율 및 수입

H S CODE	품 명	관세율	수입 규정
080610000-4	신선 포도	20%	B01,F01,MW0
080620100-0	건포도(벌크)	NT\$2/kg	F01
080620200-8	건포도(박스포장)	NT\$2/kg	F01
200961100-1	미발효 및 무알코올 천연 포도즙, 당도 30이상	25%	F01,MW0,T*
200961210-8	미발효 및 무알코올 농축 포도즙, 당도 30이상, 매 포장별 중량 18kg 이상	20%	F01,T*
200961220-7	미발효 및 무알콜 농축 포도즙 당도 30 이상, 매 포장별 중량 18kg 이하	20%	F01,T*
200969100-3	기타 미발효 및 무알코올 천연 포도즙	25%	F01, MW0,T*
200969210-0	기타 미발효 및 무알코올 농축 포도즙 매 포장별 중량 18kg 이상	20%	F01,T*
200969220-9	기타 미발효 및 무알코올 농축 포도즙 매 포장별 중량 18kg 이하	20%	F01,T*

<각 세 번에 해당하는 수입 규정 설명>

B01	수입 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등 식물 검역국이 정한 「동 식물 검역 대상 목록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F01	수입상품은 행정원 위생서가 발부한 「수입식품검사방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부 표준 검역국에 수입 검사를 신청한다.
MW0	중국 상품은 수입 불가
T*	수입 시 일부는 물품세 징수

- 중국산 신선 포도와 천연 포도즙은 수입 금지 항목이므로 중국산은 건포도 또는 농축 과즙 형태로만 수입되어진다.

나. 수입 통관 절차 및 관련 제도

- 신선 포도 및 건포도 포도즙 등에 관련된 상품은 「수입식품검사방법」 규정에 따라 수입되어진다.
- 통관서류 제출 → 서면심사 → 견본발체 검사 → 수입허가증발급 → 통관완료
- 수입 검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
 - 신청서, 수입식품 기본자료 신청서, 수입신고서 복사본, 관련 기관이 위생 안전에 필요한 자료.
- 신선 농산품 혹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일 경우 수입검사기간이 5일 이상을 초과하여 상품 품질에 지장을 줄 경우, 통관 시 미리 선통관 후검사 통지서를 통관용을 제시하고 통관 작업을 한 후 지정된 창고에서 배치함. 수입 검사 결과가 나오고 수입 허가가 확정되면 바로 출고할 수 있음.
- 수입 검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견본발체검사(샘플 검사)로 이루어지며, 샘플 발체 확률별로 5% , 25% , 전수검사 대상 품목으로 나뉘어 진다.
- 신선 농산물 또는 부패되기 쉬운 식품일 경우 미리 통관을 하고
- 수입 검사 받을 시 필요한 서류: 검사 신청서, 수입신고서 복사본, 수입 식품에 관한 기본 자료 신청표,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증빙 서류

- 수입 검사 내용은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란에 기록을 하여 해당 수입품목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삼는다.
- 대만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은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 견본 발체 검사는 수입량의 5%이내의 비율로 무작위 착출 검사하며, 검사 시 불합격자는 차기 수입 검사 시 25%의 발체 확률 혹은 전수 검사로 변경된다. 전수 검사를 면하기 위해서는 같은 품목, 같은 수입상이 5차례 연속 전수 검사에서 모두 합격 처리 되어야만 그 아래 단계인 25% 발체 확률 검사 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 견본 발체 검사 시, 불합격된 제품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분별하여 처리한다.
 - A급 불합격 처리: 행정원 위생서에 개선 관련 신청 후 재 합격 여부 확인
 - B급 불합격 처리: 각 관할 위생국에 개선 및 선 반입 허가를 신청⇒ 수정 및 개조 ⇒관할 위생국의 심사 및 감시로 재 합격 여부 확인
 - C급 불합격 처리: 반송 및 폐기 처리
- 한국산 포도에 대한 규제
 - 토양이 첨부된 상태는 수입 제한 대상임
 - 한국 정부식물검역기관이 발부한 식물 검역 증명서를 첨부 제출해야하며, 그 (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에 미감염 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수출 전 에도 증기 가열 처리를 하였음을 증명해야함. 상품 수입 시 만약 한국 정부기관 식물 검역기관이 발부한 검역증을 미 첨부 시 수입 제한 및 반송 처리된다.

해외시장 월간동향

일 보

농산물 해외시장동향(도쿄)

1. 경제동향

가. 경기동향

- 경기회복은 최근 답보 상태임
 - 기업수익은 다소 줄어들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세임
 - 고용정세는 어려움이 남아있는 가운데 개선은 답보상태임
 - 개인소비는 대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이 보합 수준임
 - 수출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생산은 보합세임
-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개정 건축기본법 실시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이 증가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는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서브프라임 주택론 문제로 인한 미국의 경기후퇴 우려 및 주식·외환시장의 변동, 원유가격의 동향 등으로 경기 부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에 유의 필요

나. 정책동향

- 일본정부는 “일본경제의 진로와 전략”과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을 일체화시킨 개혁을 추진
- 정부는 금번 성장력 강화에의 시책을 조기에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나 고용의 개선, 지역 활성화에 연결되는 시책을 중심으로 "성장력 강화에의 조기 실시책"을 정리하여 이 시책을 착실히 수행할 예정
- 민간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것과 양립하는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은 상기 기본방침에 나와 있는 거시경제에 관한 기본적 시점을 공유하여 정책 운영실시

다. 소비·투자 등 수요동향

- 개인소비는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마인드가 악화되고 있고 소득은 보합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요측 통계(가계조사 등)와 공급측 통계(광공업출하지표 등)을 종합한 소비종합지수를 보면 3월은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전체 기조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3월의 개별지표 움직임을 보면, 「가계조사」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이 전월부터 감소했으며, 판매측 통계를 보면 소매업 판매액은 전월에 비해 증가했음
- 신차판매대수는 3월은 감소한 후 4월은 증가했음. 여행은 국내 및 해외 여행 모두 전년용 하회했음. 외식은 전년수준을 상회
-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고용정세의 개선이 경제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이 전체적으로 보험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보험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라. 물가 및 금융정세

- 국내기업물가는 소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음
- 4월의 국내 기업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수입물가(엔화기준) 도 상승
- 소비자 물가의 기초는 "신선식품, 석유제품 및 그 외 특수요인을 제외한 종합"으로 보면 약간 상승하고 있으며, 해외경제나 원유가격의 동향 등 향후 물가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 할 필요가 있음
- 주가는 13,600엔에서 14,200엔대까지 상승한 후, 14,100엔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환율은 대 미국달러로102엔대에서 105엔대까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단기금리는 무담보 콜레이트는 0.5% 부근으로 이동하고 있음. 장기금리는 미국 장기금리의 동향 등을 배경으로 1.4%대 중반에서 1.7%대 후반까지 상승한 후 1.6%대 전반추이를 보이고 있음.

마. 해외경제

- 세계 경기는 감속 움직임을 확대해 보이나, 회복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은 약해지고 있으며 후퇴국면에 진입할 우려가 있음.
- 2008년 1-3월에는 국내 수요는 감소했으나, 재고투자의 증가 등으로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6% 증가
- 아시아에서는 중국 등에서 경기확대가 지속 되고 있음
- 중국에서는 경기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는 신장율이 지속됨
-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는 경기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 감속을 보이고 있음. 태국의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음

- 유로권 및 영국에서의 경기회복은 완만한 추세. 유로권 및 독일은 경기회복이 완만히 진행 중이며, 프랑스의 경기는 회복하고 있음
- 국제금융정세를 보면 세계의 주요 주가가 상승했으며,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상승함. 원유가는 과거 최고수준인 120달러 후반까지 상승함

2. 농산물 시장동향

가. 채소류

□ 도매수량

-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의 '08년 4월 채소류 입하량은 비교적 기후조건이 좋았으며, 시장개장 일수도 1일 늘어나, 전년대비 6.8% 증가한 13만 4,636톤 입하
- 주요 품목별로는 입하가 감소한 시금치, 양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을 상회하는 입하를 보였으며, 이중 양상치류, 무 등이 전년대비 20% 증가 하였으며, 양배추, 가지가 각각 전년대비 10% 증가한 입하실적을 보였음
- 수입야채의 경우는 총 6,321톤(총 입하량의 4.7%)으로서 전년 동월대비 2.4%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를 보임
 - 품목별로는 지속적인 입하감소를 보이는 파가 전년대비 80% 감소한 53톤이 입하되었으며, 토란 및 생표고가 각각 60% 감소한 68톤이 입하 되었으며, 아스파라거스가 20% 감소한 184톤이 입하되었음.
 - 한편, 파프리카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368톤이 입하

□ 도매단가

-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의 '08년 4월 채소류 전체 평균단가는 전년에 대비 하여 4.7% 상승한 kg당 229엔을 기록
- 주요 품목별로는 근채류의 당근이 전년대비 70% 상승하였으며, 엽경채류의 파가 전년대비 70%상승, 배추가 50%상승, 시금치가 20% 상승. 과채류에서는 피망이 30% 상승했으며, 전년 가격이 저조했던 양파가 전년대비 10% 상승했음
 - 파프리카의 경우는 입하물량이 전년대비 51.8% 증가하여 전체 평균단가가 474 엔으로 전년대비 25.3% 하락했으며, 그 중 수입산의 경우는 449엔으로 전년대비 30% 하락했음

<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채소류 거래현황('08. 4월) >

품 목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전년대비(%)	
	수량(t)	단가(엔/kg)	수량	단가
채소 합계	134,636	229	106.8	104.7
- 수입야채 계	6,321	201	97.6	92.3
무	10,661	83	115.8	90.6
당근	7,844	211	107.0	171.1
배추	5,718	89	100.9	151.4
양배추류	18,140	91	112.9	95.1
파	4,142	366	106.4	169.0
- 수입산	53	243	23.3	241.7
양상치류	7,421	160	117.9	66.3
오이	6,673	263	105.6	103.5
가지	2,996	311	110.6	93.2
토마토	6,794	378	106.7	96.7
피망	2,215	451	99.6	126.4
토란	574	264	96.1	111.9
양파	14,174	81	93.1	114.7
- 수입산	300	69	151.1	82.9
아스파라가스	664	1,203	117.0	101.4
- 수입산	184	743	80.4	107.9
브로콜리	1,746	350	160.1	82.0
- 수입산	401	252	98.0	75.7
호박	3,524	147	103.5	91.3
- 수입산	3,274	121	108.9	93.1
미니토마토	1,115	602	91.8	106.8
파프리카	477	474	151.8	74.7
- 수입산	368	449	156.2	70.0
마늘	379	871	90.1	190.0
생강	501	639	106.4	135.3
생표고버섯	597	950	102.7	104.8
- 수입산	68	269	44.2	70.3
팽이버섯	822	218	110.6	89.5
새송이버섯	230	548	99.1	121.6
야채가공품	2,950	222	105.8	105.0
- 수입산	205	207	93.0	96.9

자료 : 동경 청과물유통정보센터

나. 과실류

□ 도매수량

- '08년 4월의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의 국산과일의 입하량은 보통밀감, 사과류, 딸기류에 메론류, 수박류 등이 입하되었으며, 감귤류, 딸기류의 입하증가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26,327톤이 입하되었음
- 수입과실의 경우 그레이프 후루츠는 입하가 감소했으나, 바나나를 비롯한 오렌지·파인애플 등 주력품목의 대폭적인 입하증가로 전년대비 9% 상승한 6370톤 입하

□ 도매단가

- '08년 4월 과실류는 감귤류, 사과류를 중심으로 한 과실전체가 저가추이를 보여 전체로는 kg당 402엔으로 고가였던 전년에 비해 11% 하락하여 6개월 연속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산 과실의 경우는 보통밀감류의 입하량이 대폭 증가하여 kg당 214엔으로 48.2% 정도의 가격하락을 보였으며, 사과는 입하량의 감소를 보인 죠나골드는 전년대비 4.6% 상승한 kg 294엔을 기록했으며, 입하량이 급증한 왕림의 경우 전년대비 34.7% 하락한 kg 226엔을 기록. 메론의 경우 입하량이 12.9% 감소하여 kg당 647엔을 기록했으며, 딸기의 경우 입하량 17.3% 증가하여 kg당 780엔으로 전년대비 2.2% 하락
- 수입과실의 경우는 오렌지, 파인애플, 멜론의 입하량이 급증하여 전체로는 전년대비 9.4% 증가하여 전체가격은 전년대비 7.5% 하락하여 kg당 180엔을 기록
 - 품목별로 보면 입하량이 크게 급증한 오렌지의 경우 전년대비 39.2% 가격이 하락하여 kg 168엔을 기록했으며, 파인애플의 경우도 입하량이 44.8% 증가하여 kg당 168엔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5.4% 가격하락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과실류 거래현황('08. 4월)>

품 목	동경양도매시장		전년대비(%)	
	수량(t)	단가(엔/kg)	수량	단가
과실 총계	32,698	359	114.5	90.0
국산 과실계	26,327	402	115.8	89.2
밀감	661	299	903.6	23.7
- 하우스밀감	52	1,277	141.2	60.7
- 조생 밀감	6	403	-	-
- 보통 밀감	604	214	1685.7	51.8
감귤류	9,750	218	132.7	73.2
감류	7	417	-	-
사과	5,519	275	99.8	93.5
- 후 지	4,332	282	97.3	97.6
- 왕 림	712	226	149.9	65.3
- 죠나골드	305	294	66.0	104.6
일본배	1	249	-	-
서양배	-	-	-	-
- 풍수	-	-	-	-
- 신고	-	-	-	-
- 라후란스	-	-	-	-
포도	21	2,830	105.1	90.6
- 델라웨어	15	2,707	114.5	91.0
- 거 봉	3	3,662	71.9	101.8
멜론	1,554	647	87.1	104.8
- 아루스멜론	386	1,042	87.2	119.0
- 안데스멜론	334	524	80.9	98.2
수박류	2,245	278	98.3	98.6
딸기	5,487	780	117.3	97.8
- 토치오토메	2,607	697	117.8	95.9
- 아마오우	1,053	942	120.7	103.1
키위	571	363	116.2	84.6
과실가공품	368	308	105.9	88.6
수입과실계	6,370	180	109.4	92.5
바나나	3,599	148	109.0	94.6
그레이프후르츠	1,061	153	86.0	91.5
오렌지	415	168	159.7	60.8
레몬	284	328	100.5	94.2
파인애플	443	168	144.8	94.6
멜론	105	159	128.3	93.3
키위	120	383	102.6	86.8
과실가공품	70	332	265.3	75.5

자료 : 동경청과물유통정보센터

다. 화훼류

□ 도매수량

- '08년 3월 주요 화훼도매시장의 입하량은 절화류가 553백만본으로 전년대비1%가 증가했으며, 분화류는 24.6백만본으로 전년대비 5% 감소, 초화류는 35.3백만본으로 전년대비 3% 감소
- 절화류는 수입산 스프레이국, 백합은 물량이 증가했으나, 장미를 비롯한 타품목의 물량이 감소하여 전체로는 전년동기 대비 1%증가
- 분화류는 시클라멘, 프리물러 등의 일부품목의 입하량은 증가했으나, 물량비중이 높은 관엽식물 등의 입하량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감소

□ 도매단가

- '08년 3월 절화류 도매단가는 출하물량이 소폭증가하여 전체 도매 단가는 전년대비 8% 하락한 송이당 56엔을 기록
- 국화 : 전체평균단가는 송이당 54엔으로 전년대비 5% 하락. 한국산 주력 수출 품목인 스프레이국의 경우는 송이당 51엔으로 전년대비 14% 하락
- 장미 : 전체 평균단가는 송이당 102엔으로 전년대비 5% 상승하였으며 그 중 수입산 장미는 송이당 55엔으로 전년대비 4% 상승.
- 백합 : 전체 평균단가는 송이당 169엔으로 전년대비 11% 하락 하였으며 그 중 수입산은 송이당 133엔으로 전년대비 22% 하락
- 분화류는 베고니아의 경우 소폭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선인장, 양란류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가격이 하락하여 전체로는 전년대비 6% 하락한 분당 310엔을 기록
- 양란의 경우는 덴파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가격이 하락 하였으며, 양란류 전체의 가격은 전년대비 9% 하락한 분당 1,793엔을 기록

<'08. 3월 주요 화훼류 도매가격 현황>

수량 : 절화초화(천본), 분화(분, 누계치는 천본) 단가 : 엔/1본(분)당

구 분	도매 수량	도매 단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누계(3월)	
			수량	단가	수량	단가	도매수량	단가
□절화류 계	553,092	56	101	92	150	92	1,222,966	57
◦국 화	186,507	54	99	95	171	98	389,922	54
- 윤 국	83,487	68	96	100	149	99	191,663	67
·수입산	6,317	42	111	95	237	88	10,954	42
- 스프레이국	39,773	51	106	86	158	102	85,484	49
·수입산	11,649	56	114	88	184	104	23,736	53
- 소 국	63,247	38	98	93	228	112	112,775	35
·수입산	42	29	20	81	221	76	84	32
◦카네이션	47,422	44	118	83	168	92	97,562	45
-수입산	14,471	37	114	90	230	95	25,428	37
◦장미	27,951	102	90	105	127	105	68,515	96
-수입산	8,067	55	94	104	125	104	18,214	54
◦백합	13,761	169	115	89	147	88	31,785	177
-수입산	290	133	302	78	132	90	635	140
-철포백합	2,795	108	109	84	159	95	6,053	109
◦양란류	12,241	90	86	99	101	102	35,569	88
◦기타절화류	70,697	44	104	86	130	100	164,074	43
◦절엽	27,918	33	90	100	122	110	70,083	31
◦절지	20,526	76	100	96	96	101	54,549	74
□분화류 계	24,578,995	310	95	94	165	98	52,321	320
◦시클라멘	14,594	72	109	75	18	63	598	188
◦프리울러	815,579	111	121	83	55	99	4,357	122
◦베고니아	444,047	324	85	101	192	108	887	319
◦선인장,다육식물	1,443,050	156	100	84	147	91	3,369	167
◦양란류	1,219,382	1,793	101	91	136	108	2,982	1,745
-심비디움	100,933	1,898	101	96	67	105	532	1,825
-덴트로비움	457,930	823	104	90	159	96	933	839
-덴파레	19,285	1,122	69	106	144	155	48	843
-호접란	363,652	3,774	101	89	179	99	727	3,889
◦관엽식물	3,150,290	392	89	101	198	105	6,190	386
-포토스	173,715	402	85	106	211	115	331	384
-드라세나	174,062	1,072	85	98	188	109	356	1,061
◦화목류	3,706,041	321	99	91	202	105	6,927	313
-포인세티아	135	296	138	290	-	-	-	-
□초화류 계	35,325	57	97	98	232	112	66,889	54
◦팬지	4,075	30	135	94	125	111	12,591	30
◦페추니아	2,812	55	77	115	1635	134	3,052	54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 화훼유통통계월보

3.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가. 농림수산물 수입개요

- '08년 3월 농림수산물 수입액 : 1조 9965억엔 (전년 동기대비 9.7% 감소)
 - 국가 전체 수입액(19조 783억엔)의 약 10.5% 점유
 - 비중별 : 농산물(1조 581억엔, 53.0%), 수산물(3,583억엔, 17.9%), 축산물(3,213억엔 16.1%), 임산물(2,588억엔, 13.0%) 순
 - 신선채소류 : (07.3월) : 185천톤 → (08.3월) : 159 (물량기준 14.0%↓)
 - * 일본의 06. 5월 pl스 도입영향 및 최근 연이어 발생된 중국산 만두 문제로 수입산 감소 영향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백만엔, %)

구 분	2007년 3월	2008년 3월		증감률
			점유비	
국가 전체	17,315,846	19,078,319	-	10.2%
농림수산물	2,056,507	1,996,546	100	-2.9%
농 산 물	973,100	1,058,120	53.0%	8.7%
축 산 물	321,275	321,328	16.1%	0.0%
임 산 물	375,500	258,762	13.0%	-31.1%
수 산 물	386,632	358,336	17.9%	-7.3%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무역통계

나. 부류별 동향 (금액기준)

- 농산물 :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
 - 증가품목 : 곡물(29.6%), 소맥 (69.9%), 옥수수 (22.8%)
 - 감소품목 : 신선채소류(△23.2%), 신선·건조과실(△13.6%)
- 축산물 : 전년수준
 - 증가품목 : 낙농품(20.0%), 계육 (44.1%), 치즈 (13.4%)
 - 감소품목 : 우육(△17.8%), 돈육(△9.1%), 햄·베이컨(△5.5%)
- 임산물 : 전년 동기대비 31.1% 감소
 - 제재가공재(△36.2%), 합판·단판(△46.6%)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크게 감소
- 수산물 : 전년대비 7.3% 감소
 - 증가품목 : 참치류 (7.8%), 고등어 (92.4%)
 - 감소품목 : 연어·송어(△30.4%), 오징어(△24.3%), 수산조제품 (△20.1%)

다. 품목별 수입동향

◦ 일본의 농축산물 주요수입품목

- 주 수입품목 : 곡물 및 곡분조제품(2,773억엔) > 가금육류조제품(2,267억엔) > 옥수수(1,265억엔) > 돈육(972억엔) > 야채·조제품(828) > 과실·조제품(813)
- 곡물류, 육류, 과실류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위주로 수입

<일본의 농림수산물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엔, %)

구분	순위	품목	수입금액			주 수입국가 상위 3개국 수입금액					
			2007.3월	2008.3월	전년대비						
농축산물	1	곡물 및 곡분조제품	217,546	277,307	27.5	미국	199,766	캐나다	25,345	호주	21,285
	2	가금육류조제품	237,701	226,681	△4.6	미국	54,266	호주	44,620	캐나다	22,869
	3	옥수수	103,013	126,467	22.8	미국	125,214	프랑스	435	아르헨티나	295
	4	돈육	100,617	97,200	△3.4	미국	39,469	캐나다	20,845	덴마크	16,727
	5	야채조제품	98,390	82,827	△15.8	중국	37,295	미국	16,497	뉴질랜드	5,435
	6	과실조제품	92,433	81,285	△12.1	미국	24,865	필리핀	14,642	중국	14,017
	7	담배	89,012	80,719	△9.3	미국	38,671	독일	27,809	화란	3,339
	8	소맥	46,665	79,283	69.9	미국	50,371	캐나다	15,638	호주	12,888
	9	대두	44,519	57,507	29.2	미국	47,890	캐나다	5,553	중국	4,063
	10	쇠고기	56,201	47,472	△15.5	호주	38,180	미국	4,732	뉴질랜드	3,154
수산물	1	참치류	70,527	76,042	8.2	말타	14,115	대만	8,867	스페인	6,414
	2	수산물조제품	68,715	54,906	△20.1	중국	30,109	태국	11,739	베트남	3,641
	3	새우	42,992	38,518	△10.4	인도네시아	8,191	베트남	6,456	인도	4,237
	4	연어, 송어	50,713	35,285	△30.4	칠레	24,998	노르웨이	5,228	미국	1,994
	5	염장, 건조 수산물	11,666	9,959	△14.6	중국	2,979	한국	1,672	칠레	1,474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무역통계 *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라. 신선채소류 수입동향

- 일본의 2008년 3월 신선 채소류는 수입동향은 지난해 06년 5월부터 도입된 수입 식품에 대한 포지티브시스템 시행 등의 영향 및 일본내 식품안전 문제 발생, 중국산 냉동만두 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 품목의 물량이 감소 하여 전년 동기대비 14.0% 감소

◦ 주요 품목별의 수입물량을 보면

- 수입이 크게 감소한 품목으로는 완두콩이 전년대비 77.1% 감소한 것을 비롯해 표고버섯이 55.9%, 파 30.8%, 마늘 17.5%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
- 한국산의 비중이 높은 파프리카가 1.9% 증가했으며, 수입량의 대부분을 한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오이경우 전년대비 각 74.4%감소했으며, 가지의 경우 6.7% 증가

<일본의 신선채소류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톤, 백만엔, %)

구분	2007. 3월		2008. 3월		전년대비		주요 수입국 상위 3개국 (수입금액순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채소계	184,577	21,944	158,665	16,858	△14.0	△23.2	중국	4,619	뉴질랜드	4,180	미국	1,880
토마토	1,298	437	409	144	△68.5	△67.0	미국	61	한국	48	멕시코	21
양파	58,349	3,566	48,150	1,697	△17.5	△52.4	중국	1,222	미국	331	태국	87
사탕	127	24	97	26	△23.8	9.6	미국	18	호란	5	태국	3
마늘	5,693	824	4,698	475	△17.5	△42.3	중국	442	한국	29	미국	5
라미 및 파속	12,746	1,304	8,747	1,125	△31.4	△13.7	중국	1,059	벨기에	47	대만	7
파	11,251	978	7,785	931	△30.8	△4.8	중국	931	-	-	-	-
브로콜리	8,097	1,287	7,131	1,165	△11.9	△9.5	미국	1,098	중국	67	필리핀	0
결구양상치	1,401	202	1,129	132	△19.4	△34.7	대만	115	미국	16	-	-
당근 및 순무	7,698	346	8,001	566	3.9	63.7	대만	292	중국	169	호주	55
우엉	11,537	662	11,329	609	△1.8	△7.9	중국	586	대만	23	-	-
오이 및 기린	62	16	16	4	△74.4	△75.5	한국	4	-	-	-	-
완두콩	1,370	355	313	62	△77.1	△82.6	중국	47	태국	8	베트남	7
강낭콩	911	432	614	258	△32.7	△40.3	요만	258	-	-	-	-
기타콩	410	117	104	31	△74.7	△73.7	대만	31	-	-	-	-
인티초크	3	2	4	3	27.6	44.5	이탈리	2	스페인	1	미국	0
아스파라거스	4,176	2,488	4,029	2,241	△3.5	△9.9	멕시코	1,233	태국	538	페루	198
가지	101	27	107	29	6.7	7.3	한국	29	-	-	-	-
송이버섯	1	5	0	0	...	...	-	-	-	-	-	-
표고버섯	4,689	1,221	2,069	493	△55.9	△59.6	중국	483	-	-	-	-
고추속	4,547	2,374	4,638	2,139	2.0	△9.9	한국	1,361	뉴질랜드	771	호란	8
파프리카	4,448	2,297	4,531	2,051	1.9	△10.7	한국	1,273	뉴질랜드	771	호란	8
호박	51,247	3,898	50,594	3,908	△1.3	0.3	뉴질랜드	3,344	멕시코	560	미국	4
기타채	4,375	1,543	2,623	1,023	△40.0	△33.7	중국	472	필리핀	364	태국	130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무역통계

4. 일본 김치수입 및 시장동향

가. 일본의 절임 야채류 수입실적

- 일본의 절임 야채류의 '08년 3월 수입은 25,487톤이 수입되어 전년대비 23.2% 감소
 - 이 중 대부분 김치로 추정되는 한국산은 5,280톤으로 전년대비 6.4% 감소
 - 자사이, 락교가 주류인 중국산의 경우는 19,057톤으로 전년대비 26.8% 감소

<연도별 절임야채류 수입실적>

(단위 : 톤, 백만엔)

국가명	'05		'06		'07		3월					
							'07		'08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45,333	26,410	140,721	26,175	140,648	26,211	33,166	6,436	25,487	5,068	-23.2%	-21.2%
한국산	31,153	9,817	22,703	7,488	22,626	7,468	5,639	1,892	5,280	1,848	-6.4%	-2.3%
중국산	108,254	14,705	111,583	16,479	111,585	16,533	26,025	4,030	19,057	2,802	-26.8%	-30.5%
기 타	5,926	1,888	6,434	2,208	6,437	2,209	1,502	515	1,150	418	-23.4%	-18.8%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주) 07년부터 HSJ 변경 2005.99.919 (조제 기타야채, 10kg이하), 2005.99.999(조제 기타야채, 기타)

나. 일본의 김치 소비 동향

- 일본의 김치 소비는 03년까지 일본 외식업계 (야키니쿠점)의 수요 회복 및 매스컴의 홍보 등으로 매년 지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05년말 김치 기생충문제 발생에 따라 김치소비가 위축으로 인해 2008년 3월 현재 일본의 김치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3% 감소함.
- '08년 3월말 기준, 한국산 직수입 김치물량은 전년대비 2.3% 감소했으며, 일본산 김치 생산량은 전년대비 1.3% 감소해 김치 시장전체는 전년대비 1.8% 감소함

< 일본의 김치 시장규모 >

(단위 : 톤, %)

구 분	2005		2006		2007		3월			
							2007		2008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합 계	330,526	100.0%	274,749	100.0%	274,749	100.0%	66,107	100.0%	64,937	100.0%
일본산	299,373	90.6%	252,123	91.7%	252,123	91.7%	60,468	91.5%	59,657	91.9%
한국산	31,153	9.4%	22,626	8.3%	22,626	8.3%	5,639	8.5%	5,280	8.1%

자료)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재무성 무역통계.

주) 한국산은 일본의 조제 기타야채(2005.99.919, 999) 수입실적 집계임.

다. 일본의 김치생산 동향

- 일본의 (사)식품수급연구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04년부터 절임류 소비량 감소 영향 등으로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08년 3월 일본의 절임류 전체생산량은 전년대비 0.3%증가 했으며, 일본산 김치 생산량은 전년대비 1.3% 감소
- 일본의 절임류 시장은 김치의 생산·소비에 따라 절임류 시장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2005년말 김치 기생충 문제발생 이후 전체적인 절임류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음
- 일본내 김치 생산량
 - ('04) 313천톤 → ('05) 299 → ('07) 243 / ('07.3) 60 →('08.3)60(전년대비 △1.3%)
- '08년 3월말 기준, 김치와 장류절임류 등이 감소하였으나 , 타 절임류의 생산 증가로 인해 절임류 전체의 경우 225천톤으로 전년대비 0.3%로 증가했음

< 일본 절임류 품목별 생산현황 >

(단위: 톤, %)

품 목	2004	2005	2006	2007	3월		
					'07	'08	증감
절임류 전체	1,032,873	991,072	974,809	957,646	225,035	225,634	0.3%
塩漬類	149,450	132,973	146,828	135,871	27,934	29,658	6.2%
酢漬類	105,372	94,334	102,450	99,548	22,196	22,935	3.3%
浅漬類	148,031	149,082	149,082	158,010	36,450	36,968	1.4%
糠漬類	74,440	73,536	80,235	81,094	21,234	21,443	1.0%
醬油漬	496,491	480,491	433,302	425,309	105379	103016	-2.2%
(김 치)	(313,410)	(299,373)	(252,123)	(243,028)	(60,468)	(59,657)	-1.3%
粕漬類	35,669	37,665	34,982	34,508	7,338	7,254	-1.1%
味噌漬類	9,047	8,044	7,975	8,008	1,679	1,738	3.5%
기타 절임류	14,377	14,945	14,567	14,486	2,824	2,623	-7.1%

자료)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참고) 塩漬類(염장절임 : 우메보시, 매실절임 등), 酢漬類(초절임 : 락교절임, 생강절임 등), 浅漬類(겉절이), 糠漬類(쌀겨절임), 醬油漬(간장절임 : 후쿠진(福神)절임, 김치 등), 粕漬類(술지게미절임 : 나라(奈良)절임, 와사비절임 등), 味噌漬類(된장절임)

중 5

농산물 해외시장동향(베이징)

1. 농수산물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동향 개요

- 2008년 3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30.2억달러로 전월 대비 4.2억달러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3.8억달러가 증가하여 14.3% 증가했다. 2008. 1~3월 농산품 수출액은 92.6억달러로 동기대비 9.6% 증가했다.
- 2008년 3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46.3억달러로 전월 대비 8.3억달러가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12.8억달러가 증가하여 38.1% 증가했다. 2008.1~3월 농산품 수입액은 129.8억달러로 동기대비 61.15%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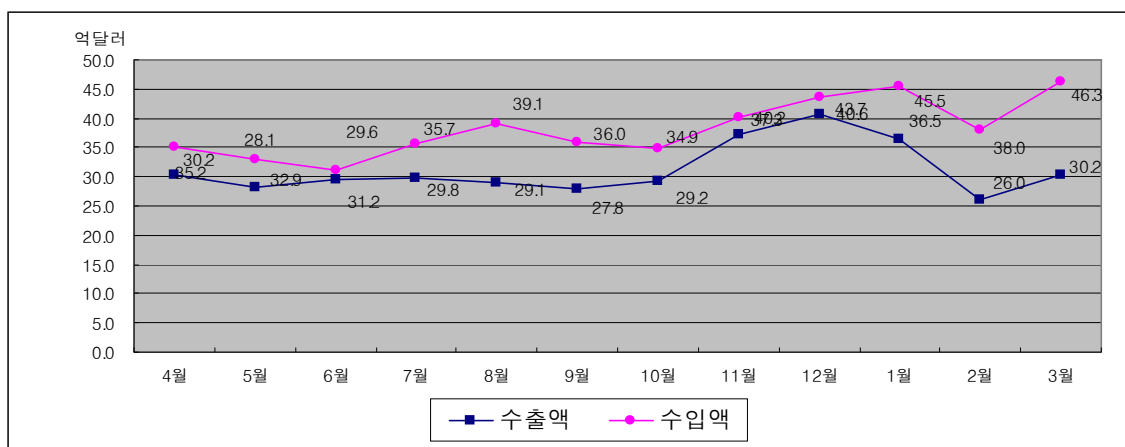
< 2008. 3월 중국 농산물 수출입현황 >

(단위 : 억달러)

구 분	3월 당월		3월 누계	
	금 액	전년동기대비(%)	금 액	전년동기대비(%)
◦ 수 출 액	30.2	14.3	92.6	9.6
◦ 수 입 액	46.3	38.1	129.8	61.1
□ 무역수지	-16.1	-	-37.2	-

자료원) 中華人民共和國海關통계

< 중국의 월별 농산물 수출입 추이 >



나. 농산물 부류별 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품목부류	1 ~ 3월			품목부류	1 ~ 3월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산동물	2,156.1	2,032.4	-5.7	동식물유지 등	139,672.7	63,940.9	89.0
축산육류 및 잡육	7,816.3	27,345.9	249.9	육류제품	241.3	189.0	-21.7
가금육 및 잡육	17,381.6	23,099.7	32.9	수산물제품	1,141.7	563.1	-50.7
수, 해산품	75,625.8	82,537.8	9.1	설탕, 설탕제품	7,647.0	6,525.9	-14.7
유제품, 난류, 꿀 등	15,839.4	26,531.5	67.5	코코아, 그제품	4,107.6	5,637.7	37.3
기타 동물산품	4,898.1	5,555.0	13.4	곡물, 전분제품 등	10,733.9	13,627.5	27.0
산식물 및 화훼	1,264.9	1,531.8	21.1	채소, 과일, 견과제품	6,239.4	6,990.0	12.0
식용채소	30,954.4	16,742.7	-45.9	기타식품	8,432.7	9,795.6	16.2
식용과실 및 견과	23,114.9	32,749.3	41.7	음료, 술 및 식초	18,464.8	23,850.0	29.2
커피, 차, 조미향료	1,502.4	2,369.1	57.7	식품공업 잔류물	29,541.3	36,459.3	23.4
곡 물	16,303.5	24,841.7	52.4	연초 및 그제품	7,953.5	9,963.8	25.3
제분공업제품	5,899.9	5,538.8	-6.1	기타농산품	165,631.7	192,183.0	16.0
유료, 볏짚, 사료 등	99,121.2	472,408.3	137.2	가금류제품	19,757.4	25,568.8	29.4
식물액, 즙	1,982.8	2,312.9	16.6	축산제품	109,017.7	153,829.0	41.1
편직용 식물재료	2,197.0	3,050.9	38.9	-			

다. 농산물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국가별	1 ~ 3월			국가별	1 ~ 3월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 아시아	236,713.4	334,523.0	41.3	◦ 남 미	99,484.1	233,584.4	134.8
– 인도네시아	38,812.2	82,911.7	113.6	– 아르헨	47,418.4	161,339.4	240.2
– 일 본	9,312.0	9,594.1	3.0	– 브라질	19,172.8	31,620.3	64.9
– 말레이시아	51,443.6	90,499.1	75.9	◦ 대양주	74,125.7	97,280.5	31.2
– 한 국	4,611.8	6,684.3	44.9	– 호 주	54,374.7	70,922.8	30.4
– 태 국	41,222.3	35,650.0	-13.5	– 뉴질랜드	18,526.6	25,656.4	38.5
◦ 북 미	276,128.1	487,731.1	76.6	◦ 유 럽	100,189.0	124,200.6	24.0
– 캐나다	30,700.5	39,700.3	29.3	– 프랑스	21,068.3	33,723.1	60.1
– 미 국	244,392.7	447,492.0	83.1	– 네덜란드	5,488.4	9,371.8	70.8

라. 주요 농산물의 국가별 수출입현황

□ 수출동향

(단위 : 만불)

구 분	2007. 1 ~ 3월	2008. 1 ~ 3월	증감(%)
◦ 차 잎	13,464.1	15,438.2	14.7
– 모 로 코	2,554.8	2,585.8	1.2
– 일 본	1,246.5	1,177.5	-5.5
– 홍콩	1,147.1	1,428.1	24.5
◦ 쌀	16,516.8	24,338.5	47.4
– 한 국	5,747.7	7,512.0	30.7
– 일 본	2,216.1	4,197.0	89.4
– 코트디부아르	643.6	2,636.0	309.6
◦ 마 늘	26,980.0	22,639.1	-16.1
– 인도네시아	4,124.5	4,948.2	20.0
– 미 국	5,176.3	2,513.5	-51.4
– 브 라 질	1,718.1	1,528.0	-11.1
◦ 감귤속 과실	11,935.9	16,935.2	41.9
– 말레이시아	3,643.3	4,766.5	30.8
– 인도네시아	2,398.9	3,158.8	31.7
– 베 트 남	633.8	3,021.9	376.8

(단위 : 만불)

구 분	2007. 1 ~ 3월	2008. 1 ~ 3월	증감(%)
◦ 계육제품	14,652.1	14,091.8	-3.8
- 일 본	12,764.4	11,403.1	-10.7
- 한 국	821.8	1,501.0	82.6
- 홍콩	703.0	1,050.9	49.5
◦ 사 과	12,689.5	16,956.6	33.6
- 러시아연방	2,523.7	3,965.5	57.1
- 인도네시아	1,191.4	1,555.5	30.6
- 카자흐스탄	766.5	1,365.7	78.2
◦ 중 약 재	8,097.2	10,580.9	30.7
- 홍콩	2,317.8	2,269.3	-2.1
- 베트남	287.4	1,590.6	453.4
- 일 본	2,317.8	2,269.3	-2.1

□ 수입동향

(단위 : 만불)

구 분	2007. 1 ~ 3월	2008. 1 ~ 3월	증감(%)
◦ 과실 및 견과	20,258.0	30,294.6	49.5
- 태 국	3,814.6	4,867.6	27.6
- 미 국	2,423.4	3,920.7	61.8
- 베트남	3,328.7	5,680.0	70.6
◦ 설탕	5,163.8	4,403.6	-14.7
- 인 도	0	2,038.4	0
- 한 국	1,137.5	1,081.2	-4.9
- 쿠 바	0	1,094.6	0
◦ 대 두	180,889.7	435,553.1	140.8
- 미 국	158,607.3	329,307.8	107.6
- 브라질	6,483.2	10,539.1	62.6
- 아르헨티나	15,714.2	95,191.8	505.8
◦ 면 화	67,467.0	84,070.0	24.6
- 미 국	13,347.6	22,238.1	66.6
- 인 도	33,091.7	45,826.2	38.5
- 우즈베키스탄	11,906.9	2,469.1	-79.3
◦ 올리브유	55,240.2	113,681.9	105.8
- 말레이시아	39,527.1	72,391.4	83.1
- 인도네시아	14,608.4	40,683.4	178.5
- 파푸아뉴기니아	1,043.1	596.9	-42.8

마. 한국산 수입동향

1)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품목	중국 총수입액		한국산 수입액		기타국별 수입액('08.03누계)		
	'07.03누계	'08.03누계	'07.03누계	'08.03누계			
자당	12,900	23,977	11,651	10,286	인도 (11,565)	베트남 (180)	태국 (1,367)
채소종자	7,210	13,371	368	290	미국 (3,231)	일본 (3,118)	태국 (1,815)
기타베이 커리제품	2,563	4,428	2,324	1,819	홍콩 (1,107)	대만 (840)	말레이시아 (328)
라면	1,291	1,505	5,141	7,580	홍콩 (484)	일본 (253)	대만 (178)
맥주	7,362	8,652	278	791	멕시코 (3,503)	독일 (2,563)	말레이시아 (518)
유아용 조제분유	63,261	70,129	212	566	싱가폴 (36,266)	덴마크 (14,653)	아일랜드 (9,322)
소주	3,122	4,657	1,317	2,165	대만 (1,256)	일본 (1,241)	호주 (276)
간장	5,148	2,458	399	376	일본 (1,852)	대만 (389)	싱가폴 (46)
양란 (산식물)	5,783	5,408	14,994	11,668	태국 (3,816)	대만 (50)	일본 (43)

※ 라면, 양란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해관에 타 H.S코드 신고하여 한국수출실적보다 적음

2)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품목별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자 당 : (2007.03)11,651천불 → (2008.03) 10,286천불 (11.7%감소)
 - 2008년 3월까지 중국의 자당 수입액은 23,977천불이며, 이중 한국산 수입액이 42.9%인 10,286천불로 중국의 주요 공급국가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인도가 중국의 새로운 공급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 지난해부터 중국내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음. 올해 3월까지 한국산 수입액은 10,286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11.7%가 감소하였음.
- 채소종자 : (2007.03)368천불 → (2008.03)290천불 (21.2%감소)
 - 한국산 채소종자는 주로 무, 배추 및 고추종자 등으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중국 동부 연안의 대부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급 품종의 한국산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3월까지 수입액은 290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21.2% 감소하였음.
- 기타 베이커리제품 : (2007.03) 2,324천불 → (2008.03)1,819천불 (21.7%감소)
 - 한국산 비스킷 등 기타 베이커리제품의 수입액은 2008년 3월까지 1,819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21.7%가 감소하였음. 한국산 과자류는 과거 한국유학생, 교민 대상으로 소규모 한국식품 전문점에서 판매되었으나 최근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인들의 소비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수입증가가 기대됨.
- 라 면 : (2007.03)5,141천불 → (2008.03) 7,580천불 (47.4%증가)
 - 2008년 3월까지 한국산 라면 수입액은 7,580천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7.4% 대폭 증가하였음.
 -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라면은 한국 고유의 맛으로 생산되는 추세가 강하여 현지인들은 가격이 싼 현지산을 선호하고 있으나, 한국 식품 전문점을 상대로 판매되는 한국산은 한국인의 유입 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되고 있음.
- 맥 주 : (2007.03)278천불 → (2008.03)791천불 (185%증가)
 - 한국산 맥주는 중국산 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세이나 최근 일부 대형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주 소비자는 한국 교민이며 현지인은 입맛 차이와 고가 등으로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임.

- 유아용조제분유 : (2007.03) 212천불 → (2008.03) 566천불 (167% 증가)
 - 한국산은 현지산 및 경쟁국 제품 대비 가격이 매우 고가인 탓에 아직은 한국 식품점 위주로 소비되고 있음.
 - 지난해와 올해 출생률의 상승과 함께, 자국산 분유 안전에 불신을 갖고 있는 수입산을 선호하는 고소득층의 소비로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소 주 : (2007.03) 1,317천불 → (2008.03) 2,165천불 (64.4% 증가)
 - 한국산 소주는 한국산 주류의 대표주로서 한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저도수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현지 대형매장에서 판촉활동 강화로 한국산 소주가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어 소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간 장 : (2007.03) 399천불 → (2008.03) 376천불 (5.8% 감소)
 - 중국의 수입간장 시장은 95% 이상을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간장 제조업체들이 대형 유통매장 입점 등을 통한 활발한 마케팅을 하고 있으나 저가 중국산과 고가 일본산의 사이에서 영역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양 란: (2007.03) 14,994천불 → (2008.03) 11,668천불(22.2% 감소)
 - 한국산 양란은 대부분 춘절 선물용으로 12월말 ~ 1월까지 집중적으로 수출되며 최근 현지 생산증가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중국의 소비수준 향상으로 한국산 고급제품의 수요 증가, 작년 비 규격품 수출로 인한 신뢰 저하 등으로 올해는 수입 감소

3. 현지 시장동향

○ 1분기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2008년 1분기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은 각각 증가세를 보였고 수입 증가폭은 수출 증가폭에 비해 크며 농산물 무역은 전년 동기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분기 농산물 수출입 무역총액은 223.7억불로 동기대비 34.6%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출액은 93.5억불로 동기대비 9.6%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30.1억불로 동기대비 61% 증가하였다. 농산물 무역은 전년 동기의 4.6억불의 흑자에서 36.6억불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1분기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특징은 다음과 같다

1분기 중국의 곡물 수출량은 103.5만톤으로 동기대비 72.8% 하락하였고 수입량은

53.0만톤으로 동기대비 2.6% 하락하여 곡물 순 수출 50.5만톤으로 동기대비 84.5% 하락하였다.

그 중 쌀제품(쌀, 쌀가루, 벼, 종자용 벼 포함)의 수출량은 60.1만톤으로 동기대비 38.1%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17.9만톤으로 18.0% 증가하여 순 수출 42.2만톤으로 동기대비 48.8% 증가하였다. 쌀 제품 수출입 무역에서 쌀 수출이 99.5%를 차지하였고 수입이 94.9%를 차지하였다.

옥수수제품(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 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 포함)의 수출량은 8.2만톤으로 97.2% 하락하였고, 수입은 945.7톤, 순 수출 8.1만톤으로 동기대비 97.2% 하락하였다.

밀 제품(밀, 밀가루, 종자용 밀 포함)의 수출량은 19.6만톤으로 동기대비 45.9% 하락하였고 수입량은 2721.6톤으로 95.9% 하락하였으며, 순 수출 19.3만톤에 달해 동기대비 34.7% 하락하였다.

보리제품 수입량은 33.9만톤으로 동기대비 9.8% 증가하였다.

채소 수출량은 197.7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5.5억불로 3.8% 증가하였으며 수입량은 2.2만톤으로 2.0% 하락하였고, 수입액은 0.24억불로 12.8% 증가하였다.

과일 수출량은 131.1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1.0억불로 21.5% 증가하였으며 수입량은 46.7만톤으로 21.0% 증가, 수입액은 3.1억불로 20.1% 증가하였다.

축산물 수출액은 9.5억불로 동기대비 15.2%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8.4억불로 37.7% 증가하여 무역 적자는 8.8억불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74.4% 증가하였다.

수산물 수출액은 20.8억불로 동기대비 4.6% 하락하였고 수입액은 11.6억불로 동기대비 10.6% 증가, 무역 흑자는 9.2억불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18.6% 하락하였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中國農業信息網)

○ 1분기 농산물 가격 동기대비 25.5% 증가

국가 통계국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전국 주요 농산품 생산가격 증가폭은 25.5%로 지난해 동기의 7.3%에 비해 18.20%나 증가했다.

1분기 양곡생산 가격은 동기대비 11.4% 증가하였고 주민 소비가격 총 수준은 8.0% 상승하여 상승폭은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하였다. 그중 식품 가격은 21.0% 상승으로 6.8%의 가격 총 수준 상승을 초래하였다.

국가정보센터 경제분석사 장영군(張永軍)은 1분기 농산물 생산 가격 상승은 국제 양곡 가격의 상승추세로 인한 원인으로 지난해 1년사이 국제 양곡 가격은 42% 상승하였다고 한다.

과거 3년사이 국제시장 밀 가격은 181% 상승하였고 식품 가격은 전체적으로 83% 상승하였다고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부터 중국의 고기류, 난류, 채소류 및 양곡류 가격이 적당한 조절과 하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중국식품보)

○ 무한산 무 한국산에 경쟁 돌입

장기간 중국의 고급품질의 무 시장을 차지하던 한국산을 중국산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 이후 중국시장에 들어온 한국산 무는 외관이 보기 좋고 품질이 좋아 보급이 빨리되어 중국에서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규모화 무 재배면적은 2,000만무(1무≒200평)에 달하며 그 중 한국산은 200여만무에 달해 보급면적이 가장 큰 품종으로 나타났다.

30여년간 무 품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무한채소연구소 농예사 장설청(張雪淸)은 현재 이 연구소에서 육종한 춘설(春雪)무는 한국산에 비해 더욱 품질이 좋으나 반면 육종 원가는 한국산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호북성 이창(宜昌)에서 시험재배 되는 춘설무는 외국의 동일한 품종의 품질에 도달하였고 어떤 특성은 한국산을 넘어섰으며 여름에는 고산에서 재배가 적합하다고 한다.

현재 무한산 춘설무는 이미 무한에서 3,000여무 재배 되었으며 올해부터 전국에서 넓은 면적에 재배 될 것이라고 한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중국식품보)

농산물 해외시장동향(상하이)

1. 상하이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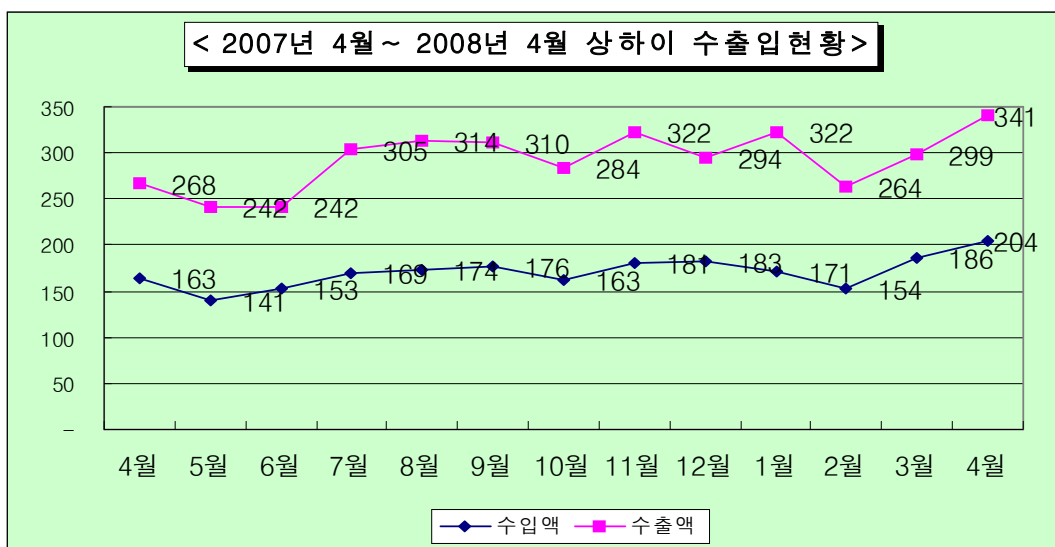
- 2008. 1~4월 상하이의 수출입총액은 1,939.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6% 증가하였음
- 이 중 수출액은 1,224.9억 달러로 동기대비 25.9%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714.8억 달러로 동기대비 22.4% 증가하여 510.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냈음

<2008년 4월 상하이 수출입현황>

(단위 : 억US\$)

구 분	'08. 4월		4월 누계	
	금 액	증감(%)	금 액	증감(%)
◦ 수출입총액	544.5	26.3	1,939.7	24.6
- 수출액	340.5	27.1	1,224.9	25.9
- 수입액	204.0	24.8	714.8	22.4
무역수지	136.5	-	510.1	-

자료원) 상하이 세관통계



2. 중국, 2008년 1/4분기 농산품수출입 상황

- 2008년 1/4분기 중국 농산품수출입은 모두 증가되었는데 수입증가폭은 수출증가폭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농산품무역은 작년 동기 적자로부터 흑자로 돌아선 후 흑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4분기 중국 농산품 수출입무역총액은 223.7억 달러로 동기대비 34.6% 증가되었는데 그중 수출액은 93.5억 달러로 동기대비 9.6% 증가, 수입액은 130.1억 달러로 동기대비 61.0% 증가되었다. 농산품무역은 작년 동기 4.6억 달러의 적자로부터 36.6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 곡물은 수출량 급속 감소 추세로

- 2008년 1/4분기 중국 곡물수출량은 103.5만 톤으로 동기대비 72.8% 감소, 수입량은 53.0만 톤으로 동기대비 2.6% 감소된 것으로 순 수출량이 50.5만 톤으로 동기대비 84.5% 감소되었다.

가. 벼 제품

- 2008년 1/4분기 벼제품수출량은 60.1만 톤으로 동기대비 38.1% 증가, 수입량은 17.9만 톤으로 동기대비 18.0% 증가된 것으로 순수출량이 42.2만 톤으로 동기대비 48.8% 증가되었다. 벼 제품의 수출입무역 중 쌀의 수출입이 절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수출은 99.5%, 수입은 9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 옥수수제품

- 2008년 1/4분기 옥수수 수입량은 945.7톤, 수출량은 8.2만 톤으로 수출량이 동기대비 97.2% 증가되었으며 순 수출량은 8.1만 톤으로 동기대비 97.2% 감소되었다.

다. 밀 제품

- 2008년 1/4분기 밀 제품수출량은 19.6만 톤, 수입량이 2,721.6톤으로 동기대비 각각 45.9%, 95.9% 감소된 것이며 순수출량이 19.3만 톤으로 동기대비 34.7% 감소되었다.

라. 보리제품

- 2008년 1/4분기 보리제품수입량은 33.9만 톤으로 동기대비 9.8% 증가되었다.

□ 대두 및 식용유 수입 큰 폭 증가

가. 식용유종자

- 2008년 1/4분기 식용유종자수출량은 42.3만 톤으로 동기대비 13.3% 증가, 수입량은 819.2만 톤으로 동기대비 36.8% 증가되었다. 그중 대두수출량은 19.0만 톤으로 동기대비 44.4% 증가, 수입량은 778.1만 톤으로 동기대비 36.1% 증가되었다.

나. 식용유

- 2008년 1/4분기 식용식물유수출량은 4.9만 톤으로 동기대비 3.7% 감소, 수입량은 201.3만 톤으로 동기대비 9.1% 증가되었다. 그중 콩기름수출량은 2.2만 톤으로 동기대비 43.9% 증가, 수입량은 72.0만 톤으로 동기대비 23.8% 증가되었다. 유채기름수출량은 1,769.5만 톤으로 동기대비 89.1% 감소, 수입량은 3.4만 톤으로 동기대비 59.2% 감소되었다. 종려유수입량은 124.8만 톤으로 동기대비 8.4% 증가되었다.

□ 목화수입 및 설탕수출입 모두 감소되었으며, 채소, 과일수출은 모두 증가

- 2008년 1/4분기 목화수출량은 3,005.0톤으로 동기대비 47.1% 감소, 수입량은 55.3만 톤으로 동기대비 0.5% 감소되었다.
- 2008년 1/4분기 설탕수출량은 1.57만 톤으로 동기대비 62.2% 감소, 수입량은 13.6만 톤으로 동기대비 19.6% 감소되었다.
- 2008년 1/4분기 채소수출량은 197.7만 톤으로 동기대비 5.4% 증가, 수출액은 15.5억 달러로 동기대비 3.8% 증가되었고 수입량은 2.2만 톤으로 동기대비 2.0% 감소, 수입액은 0.24억 달러로 동기대비 12.8% 증가되었다.
- 2008년 1/4분기 과일수출량은 131.1만 톤으로 동기대비 2.4% 증가, 수출액은 11.0억 달러로 동기대비 21.5% 증가되었으며 수입량은 46.7만 톤으로 동기대비 21.0% 증가, 수입액은 3.1억 달러로 동기대비 20.1% 증가되었다.

□ 산동성, 1/4분기 중국농산물수출 1위

- 산동성이 2008년 1/4분기 농산물수출에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수출액은 23.0억

달러로 동기대비 6.4% 증가되었다. 2위는 광둥성으로 수출액이 9.6억 달러, 동기대비 4.4% 증가되었으며 3위는 저장성으로 수출액은 7.7억 달러, 동기대비 13.9% 증가되었다.

- 장쑤성이 2008년 1/4분기 농산품수입 1위를 차지하였는데 수입액은 24.5억 달러로 동기대비 61.8% 증가되었다. 2위는 광둥성으로 수입액이 24.4억 달러로 동기대비 67.5% 증가되었고 3위는 산둥성으로 수입액이 23.0억 달러, 동기대비 55.3% 증가되었다.

□ 각 지역에 대한 수출입 모두 증가

- 아세아주는 중국농산품 수출 1위 시장으로 1/4분기 아세아주에 대한 농산품수출액은 53.4억 달러로 동기대비 2.8% 증가되었으며, 이는 중국 농산품수출 총액의 57.1%로 동기대비 3.8% 감소한 것이다.
- 아세아주는 중국농산품 수입 2위 시장으로 1/4분기 수입액이 33.6억 달러, 동기대비 41.3% 증가되었으며 중국농산품수입총액의 25.8%를 차지하여 3.6% 감소되었다.
- 유럽은 중국농산품 수출 2위 시장으로 1/4분기 유럽에 대한 농산품수출액은 19.5억 달러로 동기대비 23.0% 증가되었고 중국농산품수출시장의 20.9%를 차지하여 2.3% 증가시켰다.
- 또한 유럽은 중국농산품 수입 4위 시장으로 1/4분기 수입액이 12.4억 달러, 동기대비 24.0% 증가되었으며 중국농산품수입시장의 9.6%를 차지하여 2.9% 감소시켰다.
- 북미주는 중국농산품 수출 3위 시장으로 1/4분기 북미주에 대한 농산품수출액은 12.5억 달러로 동기대비 6.8% 증가되었으며 중국농산품수출시장의 13.4%를 차지하여 0.3% 감소시켰다.
- 반면, 북미주는 중국농산품 수입 1위 시장으로 수입액이 48.8억 달러, 동기대비 75.4% 증가되었으며 중국농산품수입시장의 37.5%를 차지하여 3.1% 증가시켰다.

□ 중국농산품무역은 일반무역방식 위주

가. 수출상황

- 1/4분기 일반무역방식의 수출액은 74.1억 달러로 동기대비 12.4% 증가되어 농산품수출총액의 79.2%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원료 가공방식의 수출액은 13.1억 달러로 동기대비 4.5% 감소되어 농산품수출총액의 14.0%를 차지하였다. 공급원료 가공방식의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동기대비 12.2% 감소되어 농산품수출총액의 3.2%를 차지하였으며 변경소액(边境小额)방식의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동기대비 49.1% 증가되어 농산품수출총액의 2.2%를 차지하였다.

나. 수입상황

- 1/4분기 일반무역방식의 수입액은 98.0억 달러로 동기대비 74.4% 증가되어 농산품수입총액의 75.3%를 차지하였으며 보세구창고 화물저장방식의 수입액은 14.2억 달러로 동기대비 68.7% 증가되어 농산품수입총액의 10.9%를 차지하였다. 수입원료 가공방식의 수입액은 10.0억 달러로 동기대비 1.3% 증가되어 농산품수입총액의 7.7%를 차지하였으며 보세구창고 수출입화물방식의 수입액은 3.3억 달러로 동기대비 32.3% 증가되어 농산품수입총액의 2.5%를 차지하였다.

3. 2008년 1/4분기 중국과일시장 분석

□ 생산과 가격변화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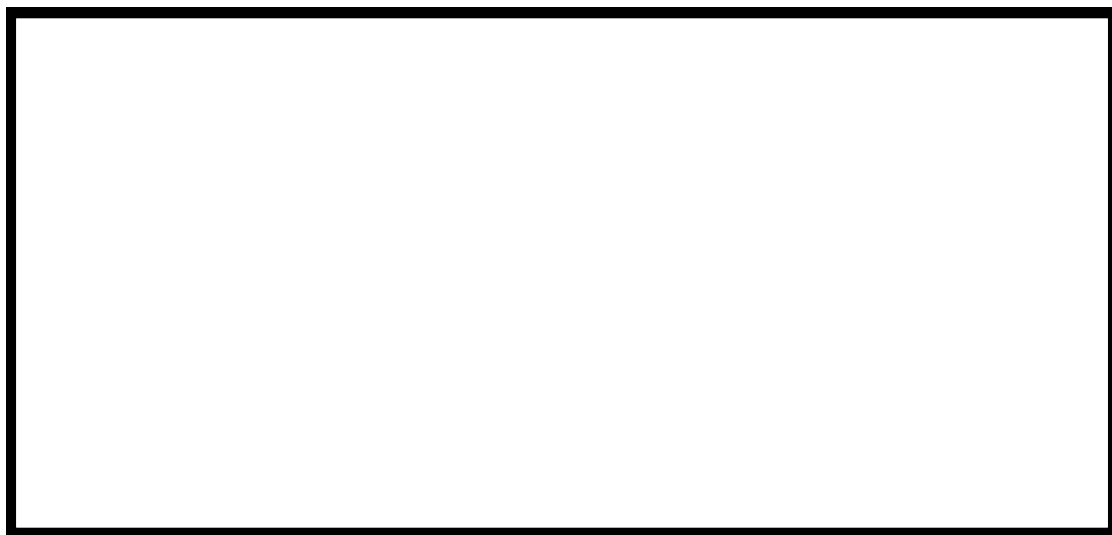
- 1/4분기, 중국 남방지역의 지속적인 저온 현상으로 호남, 호북, 귀주, 강서, 안휘, 강소, 광서, 광둥, 저장 등 지역의 재해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귤, 오렌지, 유자 등 과일이 모두 재해를 당했는데 그중 감귤의 재해정도가 가장 심하였으며, 저온현상의 지속은 화남지역의 많은 과수나무에 저온장해를 입혀 바나나, 파파야, 오렌지 등의 과일 품질에 영향을 끼쳤다.
- 1/4분기 과일시장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농산품도매시장정보망의 감시·측정에 따르면 1/4분기 중국 과일도매가격의 총체적수준은 작년 동기대비 20% 가깝게 제고되었다고 밝혔다. 1월, 남방재해의 영향을 받아 과일가격의 증가폭이 비교적 컸는데(동기대비 23% 증가) 그중 배류가격은 동기대비 어느 정도 감소되었고 기타 과일가격은 동기대비 모두 상승되었다.(그중 복숭아

류, 포도류와 열대과일가격이 동기대비 30%이상 상승) 2월, 과일가격이 동기대비 18% 상승되었지만 상승폭은 1월에 비해 5%정도 줄어들었다. 그중 복숭아류와 감귤류과일의 가격은 동기대비 감소되었고 기타 과일은 동기대비 상승되었다. 3월 달 과일가격은 동기대비 6% 상승되어 증가폭이 이와 달리 12% 축소되었다. 그중 감귤류와 열대과일가격은 동기대비 감소되었다.(열대과일이 30%이상 감소)

- 품종으로 볼 때 복숭아, 배, 포도, 사과와 열대과일의 가격이 작년 동기에 비해 모두 높았으며 감귤류 가격이 작년 동기대비 일정하게 감소되었다. 중국 감귤생산지가 대부분 남방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어 1월 달의 설해는 일부 주요생산지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 수출입무역상황

- 1~2월, 중국 과일수출입무역흑자는 5.53억 달러에 달하여 동기대비 25.25% 증가되었다. 2월말까지 중국에서 수출된 과일(신선·냉동 과일, 과일즙, 과일통조림과 기타 가공과일 등)은 도합 89.95만 톤으로 동기대비 3.06% 증가, 수출액은 7.63억 달러로 동기대비 23.43% 증가되었으며 수입량은 28.31만 톤으로 동기대비 20.94% 증가, 수입액은 2.10억 달러로 동기대비 18.91% 증가되었다.



- 수출구조로 볼 때 신선·냉동 과일은 안정하게 증가되고 가공과일제품이 일정하게 감소되었다. 1~2월, 신선·냉동 과일의 수출량은 55.71만 톤으로 동기대비 20.17% 증가되어 과일수출총량의 61.93%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가공과일수출량은 7.72만 톤으로 동기대비 14% 감소되어 과일수출총량의 8.59%를 차지하였다. 과일통조림

수출량은 10만 톤으로 동기대비 12.03% 감소되어 과일수출총량의 11.13%를 차지하였으며 과일집수출량은 16.51만 톤으로 동기대비 19.71% 감소되어 과일수출총량의 18.63%를 차지하였다.

- 수입구조로 볼 때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주요 과일제품으로 신선용안(6.14만 톤, 4,111만 달러), 신선 혹은 말린 바나나(5.34만 톤, 2,016만 달러), 냉동 오렌지주스(0.89만 톤, 1,621만 달러), 신선앵두(0.26만 톤, 1,775만 달러)와 신선포도(0.87만 톤, 1,621만 달러) 등으로 되어 있다. 그중 신선 혹은 냉동 바나나와 냉동 오렌지주스는 동기대비 감소되었고 신선용안, 신선앵두 그리고 신선포도는 동기대비 모두 증가되었다.
- 지역으로 볼 때 산둥, 섬서, 푸젠, 저장과 광둥이 중국 과일수출의 주요지역으로 1~2월, 이상 5개 지역의 과일수출액은 각각 2.19억 달러, 1.46억 달러, 0.88억 달러, 0.47억 달러, 0.37억 달러에 달하였다. 1~2월 과일수입액의 선두 5위는 광둥(1.01억 달러), 상하이(0.30억 달러), 베이징(0.16억 달러), 요령(0.14억 달러)과 산둥 성(0.13억 달러)순이다.



- 중국의 과일 주요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1~2월 이들 5개국으로 수출한 과일은 동기 과일수출총액의 56.25%를 차지하였다.

표 1 > 2008년 1~2월 중국과일수출국상황

(단위 : 억 달러, 만 톤)

국가	수출액	동기대비증감	수출량	동기대비증감
미국	1.8238	47.05%	12.54	-3.57%
러시아	0.6793	2.15%	10.95	-5.15%
네덜란드	0.6205	50.71%	4.70	0.34%
일본	0.6024	-11.92%	4.49	-25.23%
말레이시아	0.5677	26.02%	8.87	2.79%

- 중국의 주요 과일 수입국은 태국, 칠레, 미국, 베트남과 필리핀 등으로 1~2월, 중국이 이상 5개국으로부터의 과일수입액은 각각 동기 과일수입총액의 23.59%, 15.66%, 13.95%, 11.29%와 10.10%를 차지하였다.

표 2 > 2008년 1~2월 중국과일수입국상황

(단위 : 억 달러, 만 톤)

국가	수입액	동기대비증감	수입량	동기대비증감
태국	0.4961	29.06%	5.16	35.65%
칠레	0.3293	140.20%	1.41	45.63%
미국	0.2934	30.52%	2.32	3.52%
베트남	0.2375	52.29%	7.61	23.47%
필리핀	0.2124	4.95%	5.25	-14.31%

- 중국과 동남아 연맹간의 과일교역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1~2월 연맹으로부터 수입한 과일이 22.05만 톤으로 총수입량의 77.90%를 차지하여 동기대비 33.68% 증가되었으며 수입액은 1.03억 달러로 총수입액의 48.74%를 차지하여 동기대비 25.21% 증가되었다. 1~2월, 연맹으로 수출된 과일이 33.54만 톤으로 총수출량의 37.29%를 차지하여 동기대비 41.72% 증가되었으며 수출액은 1.82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23.79%를 차지하여 동기대비 54.22% 증가되었다.

4. 07년 중국 식량시장 상황 분석

□ 식량생산

- 최근, 국가통계국 및 관련기관 발표에 따르면 '07년 전국 식량총생산량은 5.0150억 톤으로 06년 대비 350만 톤이 증가되어 0.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 여름 식량은 1.1534억 톤으로 '06년 대비 145만 톤에 증가폭은 1.3%, 가을 식량은 3.5420억 톤으로 '06년 대비 0.6% 증가되었으며 밀생산량 1.0303억 톤, '03년 대비 137만 톤 증가 증가폭 1.6% 벼 생산량 1.8649억 톤 06년 대비 2.2%증가, 옥수수생산량 1.48억 톤 06년 대비 252만 톤 증가 증가폭 1.73% ,대두생산량 1,400만 톤 06년 대비 12.32% 감소되었다.
- 03~07년 중국식량 총생산량은 각각 4.3070억 톤 4.6947억 톤 4.8402억 톤 4.9750억 톤 5.0150억 톤으로 연속 4년 증산을 실현했다 , 누계 증산식량은 6,930만 톤으로 한층 더 안정된 식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중국이 이처럼 식량증산을 할 수 있었던 주요원인: 1.파종면적의 증가와('07년 전국식량 파종면적 1.0553억 hm2. 70만 hm2증가) 2.자연조건 맞아 떨어짐('07년 에 강우량이 비교적 많아 특별히 북방지역 식량생산에 유리 3.영농기술의 발달로 생산성 향상 4. 농업지지정책(支农惠农)의 충실 실행으로 볼 수 있다.

□ 식량공급과 소비

- '06년 중국식량 총생산량은 4.9745억 톤으로 총 소비량 5.0750억 톤보다 1,000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대두는 항상 일정량이 부족하다.

가. 식량증산에 따라 중국국민 일인당 평균 식량 점유량 증가.

- 일인당 평균 식량 점유량은 '00년 366.1kg, '05년 371.3kg, '06년 379.5kg '07년 384kg으로 일인당점유량의 증가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인당 동물성 식품일인당 점유량도 진일보 개선했다. '06년 전국 고기 총생산량은 8,100만 톤으로 일인당 62.3kg, 우유 25.31kg ,수산물 40.4kg 조류 계란류 22.6kg으로 나타났다.

나. 식량 거래 시장 활발

- '07년 1~11월말 식량경영기업 및 전환용량기업(转换用粮企业)의 누계 식량구입은 1.8990억 톤으로 그중 밀 6,490만 톤, 벼 4,390만 톤, 옥수수 6,845만 톤, 대두 925만 톤이다. 한편, 국영기업이 구입한 식량은 전 사회 식량구입량의 52.3%이다.

다. 주요곡물 소비 안정

- 밀, 옥수수, 쌀 등 주요 3종 곡물의 소비총량은 대략 4.22억 여 톤에 밀 소비량이 대략 1.02억 톤을 차지하여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 소비량은 1.4억 톤, 벼 소비량은 1.8억 여 톤으로 소비구조상 식용식량은 감소, 사료용 및 공업용량은 증가하는 추세다.

라. 식량예비수량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

- '06년 말 재고 비율은 대략 35%, '07년 말 대략 40%~45%로 국제공인 재고 비율 18%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 식량안전수준은 새로운 단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구입, 예비식량증가, 재고 압력 강화는 또 다른 형식의 식량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생산조절 등 제도를 개선하고 상업성 예비 식량 비축을 제고하는 등 불필요한 경제 손실을 제거해 가야한다.

□ 주요 식량의 생산 소비 및 수출입

- 최근 몇 년 국제 식량수급의 어려움 및 재고의 감소, 국제곡물 가격의 인상, 중국의 4년 연속 식량 풍작은 국내 식량공급수요와 식량예비 재고량에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 왔고 중국식량의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촉진했다.
- '07년 밀, 벼, 옥수수 등 3대주요 곡물의 평균 수출입 상황을 보면, 수입총량은 59만 톤으로 '06년 대비 82만 톤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58%이며, 수출 총량은 855만 톤으로 '06년 대비 309만 톤이 증가하여 증가폭은 57%를 나타내었으며 '07년 3종 주요 수입량은 감소한 반면 수출량은 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 '07년 중국대두 수입량은 '06년 대비 255만 톤이 증가한 3,082만 톤으로 증가폭은 9%에 수입량은 최근 11년래 최고 기록임.

가. 밀

1) 생산

- '07년 중국 여름식량 총생산량은 1.1534억 톤 ,동기대비 증가폭은 1.3% .밀 총생산량 1.0307억 톤, '06년 대비 1.6%증가. 밀 주요생산지 허난 성 생산량은 2,939만 톤

2) 수출입

- 해관총국자료에 따르면 '07년 중국 밀 누계 수입량은 8.35만 톤. '06년 동기대비 85.7%하강. 밀 누계수출총량 233.7만 톤. '06년 대비 1.1배 증가.

3) 소비

- '07년 밀 총 소비량은 대략 1.02억 톤으로 그중 밀가루 소비는 감소한 반면 사료용, 공업소비는 증가.

4) 식량비축

- '07년 밀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300만 톤이 많아 과거의 재고량에 의존하던 소비패턴을 바꿔 놓음과 동시에 시장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여유가 생겼고 재고 압력이 강화 되었다.

5) 국제 밀 시장

- 전 세계 밀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되었고 밀 재고량은 제일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미국 농업부 예측에 의하면 '07/'08년 전 세계 밀 총생산량은 6.0047억 톤으로 '07년 밀 무역량 1.148억 톤. '08년 예측량 1.055억 톤. '06,'07년 밀 주요생산국의 기후 영향으로 밀의 생산량은 계속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 '08년 예측

- '07년 겨울 밀 파종시 유리한 기후 영향으로 하남성, 산둥성 등 주요 산지의 파종면적이 4만 hm²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발표한 '08년 최저가격 구입정책 시행은 구입가격 수준을 다소 상승 시켰으며, 주요 식량 및 제분상품의 수출 환급금 정책의 취소는 밀수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다.

나. 옥수수

1) 생산

- 관련기관의 예측에 의하면 '07년 전국 옥수수파종면적은 2,805만 h㎡로 '06년 대비 108만 h㎡ 증가. 총생산량은 1.48억 톤으로 '06년 대비 252만 톤 증가.

2) 소비

- 최근 중국 식용옥수수 소비는 700만여 톤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사료용 소비는 시장 총량의 70%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반면 공업용 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음.

3) 수출

- '07년 중국 옥수수 수출량은 491.4만 톤으로 '06년 대비 60%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3.5만 톤으로 매우적다. 그중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46% 차지.

4) 국제 옥수수 시장

- 미국농업부 예측에 따르면 '07/'08년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7.6672억 톤으로 '06년 대비 7,095만 톤 증가. 무역량은 9,434만 톤으로 '06년 대비 600만 톤 감소.

다. 벼

1) 생산

- 관련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07년 전국 벼 생산량은 1.8650억 톤으로 '06년 대비 2.15%증가.

2) 수출입

- '07년 누계수출량은 130.5만 톤으로 '06년 대비 7%증가. 누계수입량은 47.1만 톤으로 '06년 대비 35% 감소.

3) 소비

- 중국 벼의 총수요 중 80%이상은 식용이다. 사료용, 공업용은 비교적 적다. '07/'08년 관련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소비총량 중에서 식용 1.4700억 톤, 사료용 14,000만 톤, 공업용 250만 톤, 수출 105만 톤으로 되어 있다.

4) 국제 벼 시장

- '07년 12월 미국 농업부 예측에 의하면 '07/'08년 전 세계 밀 생산량은 4.2억 톤으로 새로운 기록을 창출 했지만 아직도 소비량보다 340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는 7,220만 톤으로 06년 대비 340만 톤 감소

라. 대두

1) 생산.

- '06~'07년 대두 파종 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식량정보센터의 예측에 의하면 '07년 대두 파종면적은 870h㎡에 총생산량 1,400만 톤으로 '06년 대비 각각 6.26%와 12.32%가 감소되었다.

2) 소비

- 중국대두는 장기간 생산이 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부족량은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데, '07/'08년 대두 총생산량은 4,706.7만 톤으로 그중 식용 및 공업용 소비가 895만 톤이며, 기름용 소비는 3,680만 톤으로 각각 19%, 78.19% 차지했다.

3) 수출입

- 전 세계 제일 큰 대두 소비국과 수입국으로서의 중국은 '07년 10월~12월 대두수입관세 정책을 취소하여 대두수입을 지지했다. '07년 대두 수입량은 3,082만 톤으로 06년 대비 252만 톤이 증가하여 수입 기록을 경신 했다. 수입량은 소비량의 2/3을 차지

4) 대두국제시장

- 미국농업부 예측에 의하면 '07/'08년 전 세계 대두 총생산량은 2.21억 톤으로 이중 미국산 대두가 7,070만 톤, 중국산 1,460만 톤, 브라질산 6,200톤, 아르헨티나 산 4,700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대두 소요량은 2.333억 톤으로 '06년 대비 2.235억 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식량가격파동 및 조절

가. 07년 식량가격 18% 인상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 주요 식량 중 벼를 제외하고 모두 인상. 그중 옥수수, 대두 가격 증가폭은 각각 12.64%, 72.58% 으로 가장 크다.
- 식량구입가격 및 국가 최저구입가격대비 모두 증가폭이 비교적 크다.

나. 식량가격인상 주요원인

- 중국 식량가격의 빠른 인상은 4년 연속풍작과 식량 수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 하에 나타난 특수한 현상으로 보인다. 농업내부 생산원가와 경영원가의 상승영향과 인민폐 절상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 주식, 부동산 등의 과잉 및 전 세계 식량과 유가 인상 등 영향이다.

1) 식량 생산원가의 대폭상승

- 물자비용 및 노동비용지출의 2배 증가. 최근자료에 근거하면 석탄, 천연가스, 기름, 유향 등 기초원료 가격의 인상이 비교적 큼으로 비료가격의 계속된 인상을 추진했다 .

2) 수출증가

- '07년 3종 곡물수출량은 855.53만 톤. 증가폭은 57%. 수입량은 58.95만 톤 감소 폭은 58%. 수출의 증가는 국내 식량시장 공급수량을 감소하는 한편 국제식량시장가격의 대폭상승에 촉진작용을 했다.

3) 세계 식량가격의 상승은 국내 식량가격 상승 초래

- '07년 미국 및 라틴아메리카 10%, 브라질 1/4분기가 '06년 동기대비 3배, 아프리카 대부분지역 25%, 아시아 주요 식량 수입국인 일본이 30% 상승.

□ 국가식량가격의 빠른 상승 조절정책

- 식량가격의 상승은 일반물가 지수의 상승을 몰고 온다. '07년 중국의 소비자가격 지수의 상승은 2월 2%, 7월 5% , 8월 6%, 11월 6.9%이다. 1년간 소비자 가격지수의 상승은 4.8%이며, 그중 식품가격상승은 12.3%이다. 식품 중 식량 31.7%, 계란류 21.8%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식량가격의 빠른 상승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추 양식총회사는 '07년 1년간 제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밀

3,716만 톤, 수입 밀 30만 톤, 벼 1,825만 톤 중앙예비옥수수 60만 톤을 경매를 통해 시중에 방출함으로써 식량가격 안정을 도모했다.

가. 수출 환급금 감소부터 식량수출 잠정적 관세까지 연속 조절 조치

- '07년 10월 옥수수수출 환급금을 5%에서 3%로 줄이고 12월 20부터 밀, 옥수수, 벼, 대두 등 84종 식량의 수출 환급금을 취소하였으며, '08년 1월 1일부터 밀, 옥수수, 대두, 및 제분(制粉)상품 등에 5%~15%부의 일정한 잠정적 관세 징수.

나. 운송비용 안정조치, 식량경영 원가 감소

- 중국 식량 운송비는 일반적으로 식량 원가의 20%~30% 차지함으로 식량경영원가의 주요 부분이다. '07년 9월 정부에서는 동북으로부터 산하이 관에 이르는 철도 운송 요금을 18원/톤으로 통일했다. 이를 통해 헤이룽장 성-광둥의 식량운송 비용을 65% 절약 할 수 있다.

다. '07년 11월 정부발개(发改)위원회는 행정수단으로 식량가격 상승을 통제

- 밀가루, 밀국수, 식용유, 우유의 모든 생산자와 취급상은 4% 이상의 가격인상이 있을시 24시간 내 정부에 보고하는 조치를 취했다.

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생산 규모 제한

-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옥수수 과잉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4개의 국영식량기업 외에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 생산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 시장여건 및 현장 상황

○ 해관총부 돼지고기수입 건의

-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금년 1, 2월 중국 돼지고기수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시장 가격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돼지 사육농가들의 사육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국내 돼지 사육두수의 감소는 공급을 부족하게 하여 수출능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국내 돼지고기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중국해관은 돼지고기수입을 장려하여 국내 공급부족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 인민폐 절상으로 수입과일가격 영향

- 인민폐 절상의 영향으로 외국수입과일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의 키위는 115원/상자에서 80원 /상자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과일 취급상에 따르면 인민폐 환율, 생산지 기후, 과일의 신선도 및 공급과 수요현황 등의 영향에 의거 수입과일 가격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 中, 식품 안전법 초안마련

- 리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포함
- 중국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금과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식품 안전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 안전 문제로 피해를 본 경우 생산 업체에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사용이 금지됐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범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며 식품의 불량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생산 시설을 몰수하고 벌금을 피해액의 최고 20배까지 부과하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이 강화 된다.
- 초안에는 또 리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생산 유통업자가 식품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즉시 생산 및 유통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생산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또 리콜 된 식품은 즉각 폐기 처분해 문제의 식품이 다시 유통 되는 것을 차단해야한다.

○ 중국 농업부, 해외 농업투자 활성화 건의해...

- 4월 28일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 농업부측이 중국 내 기업들에게 해외 농장의 투자 및 매매활동을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자국 내에서 농산품을 구입하기가 예전보다 꽤 어려워졌다고 밝히면서 해외로 눈을 돌려 보는 게 어떨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며, 중국 내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건의에서 중·남미 등지의 농장이 거론되었다고 관영 언론들은 전했으며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것도 확실히 되는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 中 곡물가격 올라, 식량단속

- 중국 정부가 자국내 곡물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식량 재고량에도 불구하고 식량 단속에 나섰다고 중국신문망이 최근에 보도했다. 중국 국가 양식국(糧食局)의 정리잉 부국장은 올해 곡물 시장을 전망하는 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식량 재고량이 충분하고 수급도 원활한 상태지만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자국내 곡물 가격도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량 점검과 단속에 나서 곡물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중국의 식량 재고 소비율은 국제적인 안전선인 17~1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식품첨가제 새 기준 실시

- 중국 위생부와 국가표준화위원회는 6월1일부터 새로운<<식품첨가제사용위생기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본 기준은 기존의 <<식품첨가제사용위생기준>>을 수정한 것으로, 식품첨가제 22개 종류에 총 1,812가지로 구분하여 인체에 해를 주거나 식품부식 또는 변질을 감추어서는 안되며, 식품자체 혹은 가공과정에 품질 결함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정되지 않은 원료나 가짜를 넣거나 위조를 목적으로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또한 식품자체의 영양 가치를 감소시켜서는 안 되며, 예측효과를 초과하는 첨가제는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식품 중 잔유량 규정이 있는 제품외에 식품공업용첨가제는 완제품이 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 1/4분기 주요농산물가격 25.5%상승

- 중국 통계국은 금년 1/4분기 전국 주요 농산물생산가격 증가폭이 25.5%로 동기대비 18.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 통계에 의하면 1/4분기 식량생산가격은 동기대비 11.4%상승했지만 국민소비가격 총 수준은 8%상승하여 증가폭은 동기대비 5.3% 상승했다. 국제식량가격의 상승은 1/4분기 농산물 생산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국제식량가격은 42%상승했고 지난 3년 중 국제시장 밀 가격은 181%상승, 식품 가격은 83%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소비자, 유기식품 선호

-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식품은 이미 저 영양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의 52.2%가 유기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유기식품기업은 37억위안 규모로 매년 30% 정도의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소비자들은 재배, 양식 과정에서 화학농약과 비료의 남용은 소비자들의 건강안전에 위해를 가져다 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1년 이래 중국 유기 농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증 받은 유기식품기업은 2,300여개에 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식품영양 상표관리규범 실시

- 식품영양 상표관리규범이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거나 혹은 식품 영양특성 설명시 본 규범을 기준으로 정확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하문시 위생감독부문에 따르면 식품영양상표는 식품상표의 중요내용으로 식품의 영양특성과 유관 영양학정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응당 진실 객관적 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영양 상표를 통하여 포장식품의 영양성분과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 중국 식량가격 인상에 높은 관심 보여

- 중국외교부대변인 친강(秦剛)은 중국정부는 국제식량가격 인상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인상은 이미 여러 발전도상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기아 문제를 돕고 있는 유엔 산하의 WFP(세계식량계획기구)도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WFP 대변인은 세계 식량

위기를 소리 없는 태풍에 묘사하면서 그 영향력은 이미 국경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전 세계 33개 국가가 식품 및 에너지 원자재가격의 인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호박 일본수출 비준 받아

- '08년 5월 7일 일본농림수산업성(农林水产省)은 중국 료녕, 길림, 흑룡강, 내몽골 및 신강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호박의 검역제한을 해제하고 수입을 허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이 처음으로 实蝇발생국에서 생산한 신선한 야채의 수입을 허락 한 것으로 후진타오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여 거둔 성과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 한편, 일본은 농업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선한 호박을 포함한 实蝇宿主植物의 수입을 제한해왔는데, 04년 11월 중국 질량검측총국(国家质检总局)에서 일본에 신선한 호박의 수입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다.

○ 중국 식용유, 수입의존도 60%이상

- 석유, 식량에 대한 공급안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식용유 수급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국의 식용유 수입의존도는 60%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07년 하반기 국제 석유 및 식량가격의 계속된 인상과 중국남방의 폭설피해로 식용유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식용유 공급안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원자바오총리까지 나서서 제11기 인민대표대회에서 “식량, 식용유, 고기류 및 기본생활필수품과 기타 식품생산을 특별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식용유 공급은 오래 전부터 중요한 생활필수품이므로 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불합격 수입식품 판매 최하 5만원 벌금

- 국가질량총국은 5일<<수입식품검험검역감독관리법>>을 발표했다. 검험검역중 법적요구에 부합 되지 않는 수입상품을 판매할 경우 최하 5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취급상 대리인은 불량기록명단에 기록되어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질량총국관계자는 <<수입식품검험검역감독관리법>>의 발표목적은 수출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 식품의 질량을 높이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 중문 표식 없는 수입상품 압수

- 공상집행관계자는 한구(汉口) 푸징푸쓰(葡京葡式)마트의 일부 한국식품이 한글 외에 중문표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 수입식품들을 모두 압수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수입상품을 판매할 경우는 관련 법률에 의거 반드시 중문표시를 하여야 한다.

○ 중국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8.5%

- 4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CPI)상승률이 8.5%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여전히 식품가격이었다. 4월 식품 가격의 상승률은 22.1%였고, 비식품 가격이 1.8%, 소비제품가격이 10.6%, 서비스가격이 1.7%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도시의 상승률이 8.1%, 농촌의 상승률은 9.3%였다.
-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2월 물가 상승률이 8.7%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8.3%, 4월 8.5%로 8%가 넘는 높은 상승을 지속해 올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상승률 8.2%를 기록함으로써 당국의 당초 억제 목표치 4.8%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올 들어 국제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중국 내 식품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물가 상승 추세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며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 방지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4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 (PPI)상승률도 8.1%로 지난 04년 10월의 8.4%이래 3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7.2%를 기록하는 등 연속 9개월째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4월에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중 금융기관의 기준 율을 재차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의 기준 율은 16.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 중국 지진에 농산물값 급등 우려

- 쓰촨성에 발생한 대지진의 여파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초토화된 쓰촨성과 충칭의 경우 경작지가 중국 전체 농지의 8.2%를 차지하는데다가 곡물 생산량도 지난 06년 현재전국 생산량의 9.2%에 달하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쓰촨성의 쌀 생산량은 중국 내 생산량의 9%에 달하고 돼지 소 사육 규모도 중국 내 1위라서 이번 지진 이후 식료품 공급

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리만브라더스의 이코노미스트 쏜밍춘은 "이번 지진은 중국 인플레이션 위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특히 식품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번 지진은 쌀 공급부족 문제를 악화시켜 국제 쌀값을 더욱 상승 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 중국 농림부가 지난 13일 "지진으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 관리들에게 농산물 공급량 확보 및 곡물 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를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철도, 도로 등 운송 기반시설이 파괴돼 물류비용이 높아진 것도 식량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쓰촨성 지진이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중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 산업경제연구부장 펑페이이는 "강진이 중국 거시경제에 가할 타격은 연초 폭설 때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도 중국 정부가 도로 복구 및 구호품 전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진의 경제적 여파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JP모전 체이스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왕치앤도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자연재해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경제적 타격은 일시적"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중국, 호주산 와인수입국으로 부상

- 미국, 영국의 호주산 와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호주산 와인수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와인과 브랜디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중국으로의 수출은 150%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아시아의 중산층 증가와 중국소비자들의 와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와인소비량을 증가 시키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 홍콩 와인, 맥주 수입관세 취소

- 홍콩특별구행정국 국장 탕잉넨(唐英年)은 프랑스<<세계보>>의 인터뷰 시 홍콩은 와인과 맥주의 수입관세를 완전히 취소하였고 프랑스 와인수입을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와인은 아시아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홍콩시장은 700만 홍콩시민 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1천300만 고소득 중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 한국 매일분유 중국시장 진출

- 40여년 역사를 가진 한국의 매일우유가 중국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하였다. 매일우유는 세계적인 생산기술과 가공방식 및 연구능력과 실력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mo인증을 통과한 “maeil”은 세계유명브랜드이기도 하다.
- “찐뎐밍쥘(金典名作)”유아분유는 중국 국내에서 극히 적은 100%순수입브랜드중의 하나이며, 매일우유는 “한국어머니들이 제일 사랑하는 브랜드”로 평가를 받고 있다.
- 처음으로 중국 진출하는 “찐뎐밍쥘(金典名作)”는 여러가지 영양요소 조성 비율을 최대과학방법으로 설계한 고품질 분유로 유아의 소화흡수를 더욱 쉽게 한다.

미 국

농산물 해외시장동향(뉴욕)

1. 미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2008년 1~3월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천불)

구 분	2007년 1~3월	2008년 1~3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수 출 액	21,611,071	31,684,993	46.61
◦ 수 입 액	22,457,009	23,738,522	5.71
□ 무역수지	-845,938	7,946,471	--

자료원: FAS. USDA

□ 주요 국가별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불)

구 분		1	2	3	4	5
국가	미국 전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칠레	브라질
총수입액	23,738,522	6,111,567	3,176,479	1,546,480	1,087,556	865,187
전년 동기대비(%)	5.71	1.64	4.52	14.39	-0.80	-3.21

자료원: FAS. USDA

□ 미국 수출 동향 분석(2008. 3월말 기준)

- 2008. 3월까지 미국 농림축산물 총수출액은 약 31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6.61% 증가
 - 밀은 123.75% 상승, 옥수수는 66.91% 상승, 쌀은 28.71% 상승, 면화 30.96% 상승, 대두 99.34% 상승, 곡물 75.64% 상승, 담배 7.72% 감소
 - 신선 육류 수출량은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37.96% 상승, 가금류 35.50% 상승, 계란(계란제품) 6.57% 감소

- 신선과일은 17.28% 상승, 신선채소는 0.60% 상승, 주스류는 17.35% 상승, 스낵류는 21.00% 상승
- 수리미(Surimi) 17.12% 감소, 게 및 게살 66.78% 상승, 연어 통조림 2.71% 상승, 연어 133.37% 상승

□ 미국 수입 동향 분석(2008. 3월말 기준)

- 2008년 3월까지 미국 농림축산물 총수입액은 약 23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5.71% 증가
 - 사탕무 및 사탕수수, 고무, 쌀 등 벌크 농산물 전체 27.67% 상승
 - 당제, 산 동물, 열대오일 등 중간재 26.28% 상승
 - 신선야채, 로스트/인스턴트 커피 등 최종소비재 전체 4.66% 상승
 - 통나무, 재목 등 임산물 전체 19.73% 감소
- 주요 증가품목은 밀, 사료용 곡물, 식물성 기름, 쌀, 향신료, 카카오 열매 등
- 주요 감소품목은 통나무 및 토막, 재목, 담배, 감귤, 배, 인삼 등

□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천불)

2007년 1~3월		2008년 1~3월	
금액	전년 동기대비	금액	전년 동기대비
54,402	0.25	62,810	15.45

자료원: FAS. USDA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2008. 3월말 기준)

- 한국산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6,281만불로 전년 동기의 5,440만불 대비 15.45% 증가.
 - 벌크농산물은 전년도 136만불에서 177만불로 29.96% 증가
 - 중간재농산물은 전년도 418만불에서 682만불로 63.35% 증가
 - 소비재 농산물은 전년도 4,772만불에서 5,284만불로 10.75% 증가
 - 임산물(펄프, 종이 제외)은 전년도 115만불에서 138만불로 19.88% 증가
- 주요 증가품목은 가죽, 쌀, 커피(구운것.인스턴트), 원예작물/절화, 당류 등
- 주요 감소품목은 재목(soft treated), 기름(Essential), 고무제품, 낙농제품 등

<미국의 주요 부류별/ 주요 4대 국가별 수입동향('08년 1~3월 현재) >

(단위: 천불)

품목	국가	'06	'07	1~3월		
		금액(천불)	금액(천불)	'07	'08	%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캐나다	26,169,682	25,081,010	6,012,827	6,111,567	1.64
	멕시코	9,747,556	10,468,042	3,039,084	3,176,479	4.52
	중국	5,275,874	6,000,150	1,351,956	1,543,480	14.39
	칠레	2,815,395	2,607,628	1,096,369	1,087,556	-0.80
	계	88,373,175	90,637,833	22,457,009	23,738,522	5.71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캐나다	12,737,816	9,835,677	2,476,816	1,721,343	-30.50
	중국	3,011,088	3,081,849	652,149	679,515	4.20
	브라질	1,516,431	1,153,637	288,253	236,903	-17.81
	칠레	1,038,811	767,097	183,401	156,474	-14.68
	계	23,047,413	18,700,694	4,452,695	3,574,110	-19.73
○ 벌크농산물전체	인도네시아	1,673,776	1,647,245	344,922	407,475	18.14
	캐나다	1,027,495	1,589,410	333,473	687,691	106.22
	브라질	846,970	999,330	250,767	260,629	3.93
	태국	652,804	771,383	199,807	211,517	5.86
	계	9,139,171	10,256,354	2,525,274	3,224,034	27.67
- 사료용 곡물	캐나다	309,809	497,185	82,392	158,385	92.23
	멕시코	6,371	23,839	1,930	3,675	90.41
	핀란드	4,610	2,387	0	0	--
	페루	1,021	1,187	287	171	-40.42
	계	323,567	526,160	84,848	178,864	110.81
- 쌀	태국	187,192	222,486	57,369	76,980	34.18
	인도	55,985	75,900	12,995	19,574	50.59
	중국	36,469	44,076	10,981	23,091	110.28
	파키스탄	13,147	15,432	3,477	4,390	26.26
	계	326,735	395,517	96,123	131,895	37.21
- 담배	브라질	233,566	284,140	56,465	76,845	36.09
	터키	148,290	175,968	83,087	45,243	-45.55
	아르헨티나	68,458	56,426	16,274	954	-94.14
	말라위	49,528	39,694	17,417	5,231	-69.97
	계	743,041	839,722	267,001	187,600	-29.74
- 차(허브차포함)	중국	68,171	79,546	18,820	18,851	0.16
	캐나다	67,720	73,084	15,764	20,636	30.91
	독일	41,661	44,821	9,466	12,455	31.58
	인도	47,565	40,892	8,970	11,538	28.63
	계	430,519	455,595	104,674	119,876	14.52
○ 중대농산물 전체	캐나다	3,586,279	4,553,057	1,112,218	1,582,376	42.27
	아일랜드	2,014,273	1,977,297	467,545	528,310	13.00
	말레이시아	624,198	939,129	186,382	339,134	81.96
	멕시코	17,372	23,316	194,373	181,584	-6.58
	계	1,3041,101	14,318,997	3,423,056	4,322,550	26.28
- 식물성기름 (열대성유지제외)	캐나다	539,835	758,108	143,179	374,428	161.51
	이탈리아	651,837	607,515	131,248	141,934	8.14
	스페인	182,974	174,014	40,545	53,943	33.04
	아르헨티나	72,954	82,944	14,159	27,883	96.93
	계	1,943,901	2,113,375	453,957	747,175	64.59

(단위:천불)

품목	국가	'06	'07	1~3월		
		금액(천불)	금액(천불)	'07	'08	%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식물성기름 (열대성유지제외)	캐나다	539,835	758,108	143,179	374,428	161.51
	이탈리아	651,837	607,515	131,248	141,934	8.14
	스페인	182,974	174,014	40,545	53,943	33.04
	아르헨티나	72,954	82,944	14,159	27,883	96.93
	계	1,943,901	2,113,375	453,957	747,175	64.59
－ 종자류	캐나다	145,835	183,924	218,165	263,826	20.93
	칠레	130,413	152,543	42,691	62,426	46.23
	네덜란드	66,041	63,994	16,110	13,165	-18.28
	아르헨티나	48,357	57,074	34,165	62,705	83.54
	계	601,475	672,661	218,165	263,826	20.93
－ 당류	캐나다	273,029	290,840	66,701	81,525	22.22
	멕시코	418,662	148,545	35,712	49,470	38.52
	과테말라	57,268	53,675	24,546	16,469	-32.91
	브라질	53,688	28,273	2,784	2,276	-18.25
	계	988,296	687,310	167,384	187,979	12.30
－ 인삼(뿌리)	중국	10,918	13,443	3,897	3,457	-11.29
	대만	4,947	5,186	533	53	-90.06
	홍콩	3,149	4,209	1,699	473	-72.16
	캐나다	7,655	1,807	504	492	-2.38
	계	28,144	25,254	6,844	4,653	-32.01
○ 소비제농축산물 전체	캐나다	8,818,092	9,102,866	2,090,320	2,120,157	1.43
	멕시코	7,912,614	8,932,570	2,699,322	2,823,638	4.61
	호주	2,287,351	2,436,845	524,187	485,187	-7.44
	이탈리아	2,069,597	2,339,909	511,256	570,923	11.67
	계	43,146,491	47,361,787	12,055,984	12,617,827	4.66
－ 스낵류 (초콜렛포함)	캐나다	2,224,143	2,337,629	543,608	581,192	6.91
	멕시코	812,024	840,778	205,562	192,061	-6.57
	독일	170,599	199,839	28,262	31,069	9.93
	중국	148,106	176,846	34,778	34,899	0.35
	계	4,739,230	4,985,212	1,086,307	1,124,926	3.56
－ 낙농제품 (치즈제외)	뉴질랜드	581,286	629,511	152,648	197,024	29.07
	캐나다	144,535	154,717	37,137	28,944	-22.06
	호주	93,334	90,233	16,713	27,112	62.22
	인도	42,535	85,835	14,248	26,784	87.98
	계	1,305,681	1,403,793	321,294	399,195	24.25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멕시코	1,131,857	1,627,522	356,349	405,241	13.72
	칠레	1,143,146	1,158,729	743,828	741,787	-0.27
	코스타리카	447,544	423,262	116,231	120,308	3.51
	캐나다	137,599	137,276	10,353	10,830	4.61
	계	3,607,461	4,255,595	1,507,078	1,511,990	0.33
(－ 배)	아르헨티나	46,953	54,041	30,142	19,851	-34.14
	한국	21,463	23,862	3,690	4,678	26.78
	칠레	19,670	19,929	7,313	7,512	2.72
	중국	8,251	18,200	7,271	4,109	-43.49
	계	102,208	125,364	51,465	36,173	-29.71

(단위:천불)

품목	국가	'06	'07	1~3월		
				'07	'08	%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감귤(만다린))	스페인	111,653	100,524	41,059	17,605	-57.12
	모로코	8,371	14,324	9,665	9,309	-3.68
	칠레	14,732	13,535	0	126	--
	페루	2,186	11,766	0	0	--
	계	161,478	159,730	52,568	29,432	-44.01
(－ 포도(신선))	칠레	719,278	641,286	508,762	468,723	-7.87
	멕시코	152,717	262,049	0	0	--
	브라질	28,718	33,922	0	0	--
	페루	15,731	18,248	9,299	16,741	80.03
	계	922,204	960,666	519,275	486,874	-6.24
(－ 딸기(신선))	멕시코	129,144	130,509	71,376	63,373	-11.21
	캐나다	522	802	6	0	--
	중국	283	290	28	0	--
	뉴질랜드	213	146	0	4	--
	계	130,385	131,870	71,436	63,437	-11.20
(－ 밤)	이탈리아	6,368	4,378	0	50	--
	중국	2,723	3,742	658	875	32.98
	한국	1,748	1,467	34	42	23.53
	포르투갈	283	205	0	0	--
	계	11,491	10,023	741	991	33.74
－ 신선채소	멕시코	2,573,341	2,800,023	1,204,376	1,279,523	6.24
	캐나다	848,054	830,447	120,558	111,115	-7.83
	페루	157,241	193,113	24,881	27,667	11.20
	중국	91,818	120,928	30,386	28,833	-5.11
	계	3,989,161	4,282,268	1,480,526	1,554,620	5.00
－ 과일채소가공품	캐나다	976,500	1,092,987	259,146	284,248	9.69
	중국	554,924	718,178	185,415	198,989	7.32
	멕시코	600,855	661,625	170,352	221,448	29.99
	태국	306,967	332,042	80,208	95,855	19.51
	계	4,217,567	4,817,092	1,161,484	1,309,239	12.72
－ 주스류	중국	206,173	438,296	109,282	219,042	100.44
	브라질	230,741	419,464	86,637	96,485	11.37
	멕시코	125,081	190,463	76,911	81,449	5.90
	아르헨티나	146,782	179,214	29,550	30,128	1.96
	계	1,150,218	1,742,625	448,869	562,417	25.30
－ 견과류	베트남	168,466	222,589	36,000	48,326	34.24
	인도	219,905	204,729	47,925	50,372	5.11
	브라질	146,108	166,988	41,744	34,441	-17.49
	멕시코	166,339	153,870	41,514	41,583	0.17
	계	1,054,906	1,122,192	238,574	260,084	9.02
－ 주류 (와인과 맥주)	멕시코	1,602,106	1,594,643	393,756	332,349	-15.60
	프랑스	1,292,716	1,438,123	273,308	281,740	3.09
	이탈리아	1,187,478	1,304,872	284,788	299,403	5.13
	네덜란드	1,075,382	1,045,485	252,743	289,965	2.86
	계	7,742,155	8,260,669	1,835,294	1,832,760	-0.14
－ 원예작물/절화	콜롬비아	455,371	519,259	146,989	164,267	11.75
	캐나다	298,529	303,408	60,573	58,989	-2.62
	네덜란드	257,848	258,269	74,282	72,591	-2.28
	에콰도르	141,659	145,551	49,014	43,817	-10.60
	계	1,455,118	1,547,583	422,489	433,923	2.71

(단위: 천불)

품목	국가	'06	'07	1~3월		
				'07	'08	%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커피(구운것/ 인스턴트)	캐나다	121,477	116,041	27,064	29,591	9.34
	멕시코	63,642	87,754	22,837	23,781	4.13
	브라질	68,729	83,026	16,530	22,852	38.25
	이탈리아	36,811	42,134	8,307	9,022	8.61
	계	483,686	531,764	123,005	140,140	13.93
－ 향신료	인도	85,426	143,138	29,586	45,919	55.21
	인도네시아	58,774	91,535	12,494	34,415	175.45
	중국	49,961	64,512	16,914	21,264	25.72
	캐나다	40,597	54,122	11,867	19,254	62.25
	계	640,531	787,841	169,896	226,555	33.35

자료원) USDA BICO Report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2008. 3월말 기준) >

(단위: 천불)

품목	'06 금액(천불)	'07 금액(천불)	1~3월		
			'07 금액(천불)	'08 금액(천불)	%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223,638	239,078	54,402	62,810	15.45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5,996	5,754	1,147	1,375	19.88
○벌크농산물전체	4,225	6,602	1,362	1,770	29.96
- 사료용 곡물	18	17	2	2	0.00
- 쌀	62	876	21	121	476.19
- 담배	234	360	0	0	--
- 차(허브차포함)	3,363	4,009	861	1,212	40.77
○중간재농축산물 전체	16,123	15,800	4,177	6,823	63.35
- 식물성기름(열대성유지제외)	1,133	1,272	233	376	61.37
- 종자류	2,351	1,810	604	568	-5.96
- 당류	403	759	167	333	99.40
○소비재농축산물 전체	197,295	210,921	47,715	52,843	10.75
- 스낵류 (초콜렛포함)	18,483	19,951	4,931	5,930	20.26
- 낙농제품 (치즈제외)	8,197	7,993	2,356	1,966	-16.55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22,381	24,944	3,872	5,236	35.23
- 배	21,463	23,862	3,690	4,678	26.78
- 포도	496	634	0	0	--
- 딸기(신선)	0	0	0	33	--
- 신선채소	5,092	6,267	1,532	2,285	49.15
- 인삼(뿌리)	1,399	569	179	178	-0.56
- 과일채소 가공품	16,258	18,136	4,534	4,436	-2.16
- 주스류	1,115	2,039	503	381	-24.25
- 견과류	1,800	1,517	51	70	37.25
- 밤	1,748	1,467	34	42	23.53
- 주류(와인과맥주)	6,769	5,267	1,075	1,175	9.30
- 원예작물/절화	1,338	2,087	118	269	127.97
- 커피(구운 것/인스턴트)	2,074	2,537	446	1,034	131.84
- 향신료	1,854	2,516	598	773	29.26

자료원) USDA BICO Report

2. 현장정보

○ ‘숨겨진 보물’ 감자가 뜬다

쌀과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값싸고 세계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감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페루 정부는 제빵업자들에게 밀가루 대신 감자 가루를 사용해 빵을 만들 것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어린이들과 재소자, 군인들에게 감자빵을 나눠주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감자 소비가 다른 곡물 소비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발트해 부근 라트비아에서는 밀 값이 폭등하면서 지난 1월과 2월 감자빵 소비량이 20% 가량 늘어났다.

감자의 원산지 페루의 리마국제감자 센터 파멜라 앤더슨 소장은 “곡물 값이 폭등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식량안보와 수익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감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감자가 대체 식량으로 떠오르는 또 다른 이유는 밀과 달리 세계적 상품이 아니어서 투기자본이 노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 각국 농민들은 매해 6억t의 밀을 생산하지만 이 가운데 17%가 외국으로 팔려간다.

반면 감자는 총생산량의 5% 미만이 외국으로 팔리기 때문에 국제 수요에 의해 값이 요동칠 이유가 없다는 것.

올해는 특히 유엔이 정한 ‘국제 감자의 해’다.

유엔은 감자를 가리켜 ‘숨겨진 보물’이라고 칭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50일이면 다 자라며 쌀이나 밀에 비해 수확량이 ha당 2~4배나 많기 때문이다.

인도는 앞으로 5~10년간 감자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독일의 BASF그룹은 유전자를 조작해 ‘감자역병(레이트 블라이트)’에 저항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 수확량을 늘리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감자 농사의 길을 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장보러 가기 겁나요”

옥수수과 쌀, 콩 등 원자재 값 인상과 고유가, 달러화 약세 등 경기 악재가 겹치면서 식료품비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밀가루와 설탕, 우유 등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과 용기 제조비와 운반비가 덩달아 오르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제과업체도 최근 빵 가격을 10~25% 까지 일제히 인상했다.

4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 인상됐다. 이같은 가격 인상은 지난 15년간 매년 평균 2.5%씩 인상돼 온 꼴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계란 값은 1년 전에 비해 25% 인상, 유제품 13%, 고기류 7% 각각 인상됐다. 지난 1991년 파운드 당 49센트 하던 바나나가 현재 99센트에 팔리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식품비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목	2008	1991
우유(1/2갤런)	\$2.19	\$1.39
오렌지주스(1/2갤런)	\$3.99	\$1.99
바나나(1파운드)	\$0.99	\$0.44
설탕(1파운드)	\$1.19	\$0.44
빵(1파운드)	\$2.99	\$0.73
감자(1파운드)	\$1.29	\$0.86
버터(1파운드)	\$3.78	\$1.94
계란(1더즌)	\$2.99	\$1.14
닭(1파운드)	\$0.99	\$0.90
간 쇠고기(1파운드)	\$2.99	\$1.63
사과(1파운드)	\$1.69	\$0.59

<출처: 농무부>

○ 국제 쌀값 연일 최고...100파운드에 21불 고공행진

국제 쌀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식량위기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유엔도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7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쌀 가격은 2.4% 오른 100파운드당 21달러에 달해 지난 3일 이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쌀값은 1년전에 비해 배로 올랐고 2001년 이후로는 5배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쌀값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곡물투자를 하고 있는 파피콘의 최고경영자인 롤랜드 잰슨은 쌀 가격이 향후 2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인구 중 30억명의 주식인 쌀은 전 세계 식량 수요가 3%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자국 내 공급을 위해 쌀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공급 부족 예상에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왔고 이로 인한 식량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2일 올해 세계 쌀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1.8%(1200만t)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주요 쌀 생산국들이 자국 식량 수급을 감안해 수출을 전례 없이 강하게 통제하는 상황에서 올해 쌀 수출은 3.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 쌀값 큰 폭 인상

쌀값이 최대 30%까지 오를 예정이다.

4월말부터 일부 브랜드의 쌀가격이 20~30%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인 마트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관계자는 “주초에 다녀간 세일즈맨들이 쌀 자체가 품질이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며 “일주일 뒤부터 오른 가격을 적용하게 될 것이며 산수갑산, 경기미 등이 인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H마트 유니온 지점에서 판매되는 경기미는 20파운드에 12.99달러 산수갑산은 14.99달러에 판매중이다.

이외 브랜드도 조만간 가격이 오를 예정이지만 인상폭은 크지 않다. 50파운드짜리 한미쌀과 국보쌀을 각각 32달러에 팔고 있는 한양마트 관계자는 “인상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아씨프라자의 관계자는 “쌀가격이 큰폭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 때문에 오른만큼 다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조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씨 프라자의 이천쌀 40파운드는 이미 1달러가 오른 17.99달러에 판매중이며, 나머지 품목들은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다. 아씨프라자는 이천쌀 20파운드를 11.99달러, 한국미 20파운드를 13.99달러에 판매중이다.

한편 쌀의 국제가격 인상으로 이미 홍콩과 필리핀에서는 30%씩 쌀가격이 올랐으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곡물가 폭등 ‘쌀 판매량 제한’

세계적인 곡물가 폭등 바람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미권 대형 유통업체들이 쌀 사재기에 대비, 1인당 쌀 구매량에 상한선을 두며 수급 조절에 나섰다.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미국 월마트 계열 유통업체인 샘스클럽은 이날 “최근 수급경향을 감안해 재스민 쌀, 바스타미쌀, 장백미 등 수입쌀을 20파운드(9kg)짜리 이상 구매할 경우 1인당 4포대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일부 매장에서 쌀과 밀가루의 대량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샘스클럽은 전 세계에서 593개, 코스트코는 534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로 아시아인 거주 지역의 소매상들이 소비자 1인당 쌀 구매량을 2포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쌀 판매 제한에 나선 것은 곡물가 급등으로 식당과 소매업체들이 쌀을 대량으로 사재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쌀연합협회 데이비드 코이아 대변인은 “현재까진 미국에서 쌀 부족 현상은 없다”면서도 “식당과 잡화점들이 곡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쌀을 대량 구매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아시아계가 밀집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식당들 사이에 쌀 사재기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쌀 가격 상승은 쌀이 주식인 아시아계와 멕시코계가 밀집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 쌀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7월 인도분 쌀 가격은 100파운드당 24.82달러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26%나 상승한 것이다. 쌀 외에 밀, 옥수수, 콩 등 곡물과 식료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미국 식료품 가격은 올 들어 5% 이상 상승해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식료품 가격 상승이 부동산 거품 붕괴, 실업률 증가 등 다른 악재와 맞물리면서 미국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 판매량 제한 조치와 관련해 H마트 김동준 과장, 한양마트 오청룡 플래싱지점장, 아씨플라자 박희연 이사는 모두 “사재기 방지를 위한 1인당 쌀 판매량 제한조치는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H마트는 지난 22일 매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쌀 포대 당 2~3달러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한양마트와 아씨플라자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한인 마켓들은 한인들의 주식인 쌀 가격 인상이 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격 인상을 피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곡물가격 고공행진으로 조만간 한인 마켓들의 쌀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S&P GSCI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농산물 가격은 1년새 약 두배가 뛰었고 국제 쌀 값은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농 제품값 “높이 더 높이”

유기농 제품과 일반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유기농 업자들은 더욱 높은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곡물류와 유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보다 크지 않았던 유가공제품이 가격이 최근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기농 식빵이 4달러 50센트, 우유는 1갤런에 7달러까지 받고 있다. 유기농이 아닌 같은 품목의 가격이 각각 최저 1달러 20센트, 2달러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유기농 제품의 가격은 일반 제품보다 20~10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유가 인상과 사료비 증가가 가격 인상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치솟는 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전통적인 목축 방법으로 돌아섰고 마진이 줄어든 업자들은 소매가격을 더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가닉 밸리사의 에릭 뉴만 부사장은 “1갤런 우유를 만드는 경비가 6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7달러 이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격 상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기농 제품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인들은 유기농 제품 구입에 167억 달러를 사용해 5년동안 120% 이상 증가했다. 대표적인 유기농 판매체인인 홀푸드사의 페리 애버난테 코디네이터는 “매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부른 예측을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 소비가 줄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 '먹고 살기 힘드네' '가벼워진 장바구니'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한인 가정과 음식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날씨를 비롯한 여러 요인에 의한 공급 불안과 수요 급증으로 곡물가와 국제 유가

가 기록적인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값은 17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큰 상승을 보인 품목은 계란으로 34.8% 올랐다. 빵 16.3% 우유 13.3% 바나나 17% 등 주요 식료품의 가격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으로 가게부의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가 20~30%는 오른 것 같다"며 "식료품값을 아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인 식당들도 치솟는 재료비로 힘든 것은 마찬가지.

특히 쌀 소비량이 많은 김밥집은 쌀값 상승에 따라 고민이 늘고 있다. 3~6달러이던 김밥 가격을 50센트씩 올린 업소들도 있다.

USA 투데이와 갤럽의 공동 설문 조사 결과 식료품값 상승이 휘발유 가격 다음으로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지난 18~20일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식료품값 상승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0%는 이미 식료품값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우려를 표명한 품목으로는 우유가 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과물(7%) 육류(5%) 빵, 계란(4%) 순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개월의 평균 식료품값 상승률은 5.3%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의 4% 지난 15년간 연 평균 상승률 2.5%보다 높은 수치다.

○ 체인점 칼로리 표기 의무화 21일로 연기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점들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방안을 놓고 뉴욕시 보건국과 뉴욕주식당협회간 이견차가 팽팽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1월 미 전역에 15개 이상의 체인을 둔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통과하여 업계의 거센 반발로 마감일을 연기하게 됐다. 당시 보건국은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 200~2,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뉴욕주식당협회는 지난 1월 뉴욕시 보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업소 내 메뉴와 메뉴판에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 보건국은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점들이 오는 21일까지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도록 재요청했다. 그러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벌금 문제는 오는 6월 초까지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퀴즈노스와 치포틀 같은 뉴욕시 일부 업소들은 메뉴판에 칼로리 표기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뉴욕주식당협회가 올해 초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올라토 완제품 시판 “전국 시장 간다”

미국 아이스크림 시장에 한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라토(사장 박재형)는 최근 뉴욕시 대형 마트에 아이스크림 완제품인 '올라토 바(Yolato Bar. 사진)'를 출시했다. 뉴욕을 발판으로 미 전국 시장으로 나갈 예정이다.

젤라토, 프로즌 요거트 전문업체인 올라토는 이탈리아산 아이스크림인 젤라토를 바 형태로 만든 올라토 바를 뉴욕시 1000여개 매장에 공급하고 있다. 올라토 바는 출시 2주만에 9만6000여개가 판매되는 등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높다는 평가다.

올라토 바의 가격은 3.99~5.99달러. 프로즌 요거트의 맛을 그대로 살린 플레인과 석류맛이 가미된 제품 등 2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올라토 사장은 1일 "연말까지 올라토 바를 미 전국에 공급하겠다"며 "향후 40억달러 규모인 미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올라토 바는 완제품인 만큼 기존 배급망을 이용하면 전국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뉴욕시 공급 물량은 남부뉴저지 공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타지역 배급망이 확정되면 지역 생산공장을 별도로 갖출 계획이다.

2006년 뉴저지 에지워터에서 출발한 올라토는 창립 첫 해 50만달러 매출 올렸고 지난해 150만달러를 돌파했다. 올해는 완제품 양산으로 500만달러 매출을 올릴 예정이다.

박 사장은 "단시간 안에 급성장을 한 만큼 주목도 많이 받고 부담도 크지만 경영 전략 대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자신 있다"고 밝혔다.

올라토는 직영 체인점 슝인슝 프로젝트인 익스프레스 등을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직영점은 뉴욕시와 뉴저지 9곳이 들어섰으며 맨해튼 엠파이어스테이트 1층 직영매장도 공사가 한창이다.

프로즌 요거트만 집중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올라토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현재 50여개로 연말까지 100여개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 핑크베리 알고보니 인공첨가제

프로즌 요거트 열풍을 일으킨 핑크베리가 '100% 자연의 맛'이 아니라 인공첨가제를 넣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 핑크베리는 자신들이 파는 요거트가 건강식품이며 무지방 자연 식품이라고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 핑크베리의 마케팅이 고객들을 속인 것이라는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핑크베리가 자사 웹사이트에 23가지 첨가 물질을 올리면서 인공첨가제가 요거트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핑크베리의 요거트에는 무지방 요거트와 우유 외에도 3종류의 당분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성분들이 포함돼 있다.

총 23종류의 성분 중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규정한 5종류의 중독성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식품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공첨가제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핑크베리측은 "처음 업소를 시작할 때 '자연식품'(all natural)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창립자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2주전 핑크베리는 집단소송에 대해 소송비용과 함께 75만달러의 기부금을 식량.아동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끝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일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핑크베리의 경쟁업체인 레드망고는 처음부터 웹사이트에 당분을 비롯한 14개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며 핑크베리는 인공 색소와 맛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국산 농식품 동향

○ 동양 마켓의 한국 농산물 가격 동향

5월 뉴욕에서 유통되는 테이스터스 초이스 마일드모카 커피믹스 \$19.99/100개, 동서 둥굴레차 \$7.49/50티백, 청정원 소불고기 양념 \$4.99/500g, 태경농산 순한국산 건고추 100% 고춧가루 \$37.99/1kg, 무농약 지평선쌀 \$19.99/5kg, 씨제이 햇반 오곡밥 \$3.99/210g, 해오름 밥도둑 도시락 맛김 \$2.99/0.15oz x 3팩, 오리온 초코파이 \$3.99/336g, 샘표 잔치국수 \$3.19/199g, 농심 너구리 \$16.99/20개, 초립동 호빵 \$2.99/255g, 농협 정선 아리랑 찰옥수수 \$4.49/340g, 농협 치악산 취나물 \$9.49/100g, 동원 양반 맛김치 \$2.99/160g캔, 청정원 순창 태양초 매운고추장 \$5.49/500g 판매되고 있음.

○ 교촌치킨 본사 뉴욕 직접 진출

한국의 교촌치킨이 뉴욕에 재진출했다.

한국서 10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교촌치킨은 10일 플래싱 노던블러바드 156스트릿에 동부지역 직영 1호점을 오픈했다.

지난해 가맹점 형태로 뉴욕에 진출했던 교촌치킨은 최근 한국 본사 직접 투자를 통한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올해 10개의 직영점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당분간 가맹점은 개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권원강 한국 교촌 에프앤비 회장은 "현지 사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미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직영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1개월간 뉴욕에 체류하면서 동부지역 직영 1호점 준비 과정을 직접 챙겼다. 앞으로 미국에 문을 여는 매장은 권 회장이 직접 관여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사업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유에 대해 권 회장은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지만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에서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 진출은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촌치킨은 단기간내에 매장을 늘려가기 보다는 실패없이 점포를 운영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미국 매장에 적용할 인테리어와 메뉴 등을 새로 개발했다.

치킨은 한국 맛을 고집하지만 메뉴와 판매 시스템은 현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메뉴도 조각별로 주문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고객의 50% 이상이 타민족계인 것을 감안해 치즈스틱과 감자튀김 등 메뉴를 추가했다. 치킨은 4조각에서 100조각까지 주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 주문 가격이 10달러에서 5달러로 떨어졌다. 그만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이다. 교촌치킨은 맨해튼과 뉴저지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에 직영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식 치킨업계 2라운드 돌입

한국식 치킨이 미국 시장 점령을 위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006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식 치킨 브랜드들은 시장 적응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영업망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 등이 한국식 치킨을 집중 보도하면서 타민족계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한인 밀집지역을 벗어나 빠르게 늘고 있다. 맨해튼 BBQ치킨은 고객의 90%가 타민족계다. 플러싱 교촌치킨의 경우도 타민족계 고객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네일이나 청과 델리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식 치킨 전문점이 타민족을 고객으로 하는 비즈니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치킨 브랜드 러시=한국 치킨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한국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 외식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도 또다른 이유다.

한국에 있는 치킨 전문점 1만8000여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체가 50여개에 달하고 6000여 가맹점 매출이 연간 1조800억원 규모다.

한국 시장에서 더이상 가파른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주요 업체들은 미국에서 '글로벌 경영' '제2의 창업' 등을 선언하고 있다.

◇성공 비결=한국식 치킨이 타민족계 고객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독특한 맛'이다. 켄터키프라이드치킨(KFC) 등에 비해 기름기가 적고 개성있는 소스를 사용해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그릴로 고기를 굽는 '그릴 치킨'이 추가되면서 저지방 메뉴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쉽게 질리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미국 업체들은 고객이 주문하면 보온중인 완제품을 내놓지만 한인 업체는 주문 후에 조리해 들어가 신선하고 바삭바삭한 치킨을 맛볼 수 있다.

현지화된 메뉴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교촌치킨은 크기가 아닌 조각별로 주문할 수 있는 메뉴를 최근 도입했다. BBQ치킨은 콤보와 패밀리 메뉴를 내놓고 있다.

맛은 한국식을 고집하지만 판매와 영업 시스템은 미국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치열한 경쟁=한국 치킨 브랜드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식 치킨 브랜드 '빅3'인 교촌 본촌 BBQ는 플러싱과 맨해튼 북부뉴저지를 중심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매장 확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뉴욕의 선두 주자는 본촌치킨. 본촌은 플러싱과 롱아일랜드 스테튼아일랜드 뉴저지 등으로 매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최근 서부지역에 진출했다.

한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교촌치킨은 최근 한국 본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가맹점 개설은 중지하고 기초부터 다시 준비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미국 신규 매장 오픈은 권원강 교촌 에프앤비 회장이 직접 관여할 계획이다.

한국내 치킨 브랜드 1위인 BBQ치킨은 올해부터 대대적인 매장 확대로 미국 시장을 조기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BBQ는 올해 200개 매장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만개의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차별화 전략=교촌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다'는 신중한 전략을 펴고 있다. 10여개 직영점 운영을 통해 고정 고객 확보와 수익성이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타민족계 고객을 겨냥한 메뉴와 매장 인테리어 홍보 계획 등을 마련했다.

BBQ치킨은 폭발적인 매장 확대를 통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닭의 크기도 KFC와 비슷하게 맞추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본촌치킨은 기존 전략을 유지하면서 매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매장 오픈은 서진덕 본사 사장이 직접 챙기고 있으며 조리부터 운영까지 점주와 직원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 저도수 술 인기

한인 애주가들이 저도수 술로 몰리고 있다. 20도 미만의 소주가 늘어나고 한약재 등이 가미된 과일주와 전통주들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부드러운 술맛에 빠져드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실제 순한 소주는 과실주 전통주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인 소주시장은 20도 미만 순한 소주가 장악했다. 참이슬 처음처럼 참소주에 이어 최근 앞새주도 도수를 20도 아래로 내렸다. 과실주와 전통주들도 시장 장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뉴욕 일원에 출시된 과실, 전통주는 매실, 머루, 복분자, 산수유, 석류, 오디, 국화, 인삼 상황버섯 홍삼 오가피 등 다양한 재료를 넘나들며 20여개의 브랜드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재료가 너무 다양해지고 수많은 브랜드가 출시되면서 선택 폭이 넓어지고 관심이 분산돼 백세주, 산사춘, 복분자주처럼 주목받는 히트 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주류의 브랜드와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가격 경쟁도 치열하다.

과실주와 전통주는 1병에 5달러 이하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세일가격이 2.99달러까지 내려갔다. 순한 소주도 일부 리커스토어에서 앞새주가 병당 2.99달러 참소주는 6개들이 상자를 구입하면 병당 3달러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앞새주와 보해 복분자 등을 공급하는 술유통의 뉴욕지점장은 "저도수 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소주 역시 도수를 낮추고 있는 추세"라며 "소주에 밀리고 있지만 전통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술의 도수가 낮아지면서 여성 고객도 늘어나는 등 소비층도 확산되고 있다.

농산물 해외시장동향(L.A)

1. 한국산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가. 수입 동향

- 4월 말 현재 전체 농림축수산물의 수출 실적은 원화 평가절하 지속과 농산물과 수산물의 고른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134,853천 불이 수입되었음

나. 주요품목 동향

- 채소류 : 무와 채소조제품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감소한 4,239천불
 - 무는 예년보다 원활한 캘리포니아산의 공급과 멕시코산 유기농 무의 출하로 한국산 수입이 62.8% 감소
 - 고춧가루는 풀무원 김치의 현지생산 등으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
 - 채소주스는 자연건강 선호추세 및 알로에 음료의 주류마켓 입점 증가로 전년 대비 47.8% 증가
 - 파프리카는 매주 약 0.5톤 정도 항공편으로 수입되어 교포마켓 및 LA도매시장의 Coosman을 통해 꾸준히 판매되었으나 4월 말로 수입종료
 - 서부지역 교포마켓 판매가격 : \$3.99 / 파운드
 - 서부지역 멕시코산 판매가격 : \$1.99~2.99 / 파운드
 - LA도매시장 위탁판매가격 : \$ 16.00~19.00 / 5Kg
 - ※ 현재 항공운송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채산성은 없으나, 교포마켓의 소비자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고, 도매시장에서도 품질에 대한 평가는 양호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함
 - 채소종자는 파종기를 맞이하여 다소 수입이 늘고 있으나, 재고부담으로 전년 대비 42.2% 감소세 유지
- 김치 : 지난 3월 까지의 수입감소에서 벗어나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한 837천불 수출

- 풀무원 김치의 현지생산 전환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4월 들어 수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인삼류 : 홍삼정, 홍삼엑스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31.1% 증가한 2,608천불 수입
 - 지난해 잔류농약검출 등에 따른 수출 감소세에서 벗어나 홍삼정, 홍삼엑스, 홍삼차 등 홍삼제품의 수출이 회복되며 증가세 유지
- 과실류 : 배, 단감, 과즙음료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43.8% 증가한 5,710천불 수입
 - 주력품목인 배는 작황부진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지난해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86.1% 증가
 - '06년산의 경우에는 물량 부족으로 2월까지 대부분의 수입이 종료되었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4월 중에도 수입 지속
 - 단감은 1월 말 수입 완료되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135.3% 증가한 201천불이 수입되었으나 품위저하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음
 - 교포시장 중심으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으나 흑변 현상등 보관상의 문제로 \$0.99/3개포장에 판매되었음
- 버섯류 : 팽이버섯의 수출신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76.4% 증가한 1,716천불이 수입
 - 중국산, 캐나다산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로 최근 3년 간 한국산으로 대체되며 수출이 대폭 확대
 - 팽이버섯의 증가율은 60.1%로 둔화되는 가운데, 새송이 버섯 등 기타버섯의 활발한 수출 증가와 신선 느타리버섯의 수출 확대로 신장세 지속 유지
 - 주소비 시장은 교포 및 중국계 시장으로 미국의 주류시장 진출은 초기 단계로 소량 시험판매 되는 상황 임
 - ※ 버섯류의 시장우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산 및 현지산과 같이 국제 유기농 인증 및 USDA 유기농 인증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수출업체의 유기농 인증 권장 필요
- 화훼류 : 선인장의 수출 금감과 양란의 감소세 반전으로 전년 동기대비 18.0% 감소한 363천불
 - 선인장은 캐나다산과 한국산의 캐나다 우회수출 제품과의 경쟁력 상실로 수출이 47.5% 대폭 감소

- 양란은 현지의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꾸준히 수입이 증가한 심비디움의 수입이 정
체되며 감소세로 돌아서 전년동기 대비 10.3% 감소
- 면 류 : 라면을 비롯한 전반적인 면류제품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한 18,370 천불 수입
 - 주력 품목인 라면은 현지생산 증가(농심)에도 불구하고 건강면 출시 등 타사제품
의 수출증가로 7.4% 증가
- 소오스류 : 간장과 된장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추장의 수출감소세로 전년 동
기대비 0.6% 증가한 7,368천 불 수입
 - 소스류는 교포시장으로 한정된 시장구조 속에 대두원료의 지속적인 원가 인상 분
위기로 조기 물량확보를 위한 수입 증가로 간장은 36.9%, 된장은 35.5%로 크게
늘어난 반면, 고추장은 23.6%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주 류 :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위축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한
6,829천 불 수입
 - 소주는 식당 등 업소용 소비감소로 수출이 부진하여 6.2%의 감소세를 보인 반
면, 맥주는 10.9%의 증가세를 보임
 - 과실발효주, 청주, 약주 등 전통주는 최근의 저도주화에 따른 소주의 사장잠식으
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과자류 : 새우깡의 위생문제 등으로 수입에 다소 영향을 미쳐 전년 동기대비
28.2% 증가한 13,638천 불 수입
 - 새우깡은 대부분의 한인매장에서 현지산(Calbee 제품) 또는 일본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당분간 과자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차 류 : 가루녹차의 농약검출 영향 등으로 소비가 지속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
년 동기대비 55.5% 감소한 262천불 수입
- 수산물 : 어류, 해조류 등 전반적인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한
38,051천 불 수입
 - 어류는 지난해 영광굴비 파문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상실한 조기(85.1% 감소)
와 고등어, 멸치, 갈치가 감소하였으나 명태와 참치 및 횡감용 넙치류의 활발한
수출으로 전년 동기대비 21.9% 증가

- 갑각류는 게살과 보리새우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7.1% 증가
- 연체동물은 지난해 품어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냉동오징어의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냉동 굴의 수출이 크게 부진을 보여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
- 해조류는 주류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조미김을 비롯한 김, 미역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21.9% 증가

다. 향후 전망

< 경제 및 시장여건 >

○ 긍정적 요인

- 4월 세금보고 시즌 종료 및 정부의 소비 진작을 위한 소득세 환급 등으로 부분적으로 소비심리가 회복 가능
- 원화 약세 지속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에 유리한 여건 조성으로 수출에 호재
- 5월 여름 시즌이 시작되며 여행과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식품소비 증가 기대
- 한미 FTA의 비준 등 분위기 고조로 지자체 및 수출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증가로 신규 품목 발굴 및 수출 증가 가능

○ 부정적 요인

- 지속적인 미국의 경기불황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수입 농식품의 주된 시장인 교포 마켓과 교포식당도 소비 위축을 체감
- 유해 물질이 발견된 새우깡을 비롯한 일부 제품에 대한 마켓 납품 거부로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FDA의 지속적인 검사 강화로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식품의 신규수출 및 수출확대에 장애
- 교포 시장의 경우 대형 신규매장의 경쟁적 신규 오픈으로 마켓간의 소비자 확보를 위한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

< 증감 전망 >

○ 한국산 농수산물식품 수입전망

- 전반적인 농식품의 수입은 원화평가 절하가 지속되는 기간 중 안정된 신장세를 보여 줄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전년 동기 대비 10% 대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 현장정보

○ 한미FTA비준을 앞두고-김학수 aT센터 LA지사장

한·미FTA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내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수잔 슈왓 USTR 대표는 소고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FTA 법안처리를 위한 미 의회 마감일 9월26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FTA 연내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불경기에 고통받고 있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김학수 aT센터 LA지사장

"식품 안전성(Food Safety)이 FTA체결 이후 농수산물 거래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aT센터 LA지사 김학수 지사장은 한·미FTA 발효로 한·미간 무역거래가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겠지만 원거리 유통이라는 점을 명심해 농수산물 거래시 양국간 식품위생검역 기준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한·미FTA가 연내 발효되면 김치, 과자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 농산품의 관세가 대폭 인하되거나 면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다면 통관이 48시간 내에 이뤄져 한·미간 농수산물 교역이 늘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조건없는 개방은 없다. 김 지사장은 "한·미FTA로 시장이 확대되는 반면 식품위생검역이나 물류창고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제약이 많이 발생한다"며 "미국시장과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aT센터 LA지사는 한국의 전략농산물인 배,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을 메인스트림 마켓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제 쌀 가격 폭등을 계기로 한국 쌀이 가지는 가격 안정성을 부각시키고자 틈새시장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또 다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달해 있는 캘리포니아의 특성을 활용해 여러가지 식문화 행사 및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김 지사장은 "한·미FTA가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성급히 생각하지 말고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품목의 관세 인하추이를 살펴보고 무역거래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고품질의 한국 농산품이 메인스트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자 나아가 국제적인 농산품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LA, 금값된 쌀값 '이젠 품귀현상'

LA 한인타운에서 거래되는 쌀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일부 한인타운 대형마켓들에선 쌀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마켓들은 쌀 재고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1인 쌀 구입량을 1포로 제한하며 판매 수량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재고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인타운 쌀값 오름세와 품귀현상은 쌀 공급 부족 때문이다.

현재 한인타운 아씨마켓에서는 5.99달러였던 이천쌀의 경우 한때 12.99달러까지 갔으나 29일 현재 9.99달러로 2주 전에 비해 무려 67% 나 오른 가격에 팔리고 있다. 갤러리아마켓의 시라기꾸 쌀은 2개월전 6.99였던 것이 3달러나 오른 9.99달러로 팔려 무려 43%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해태 대풍쌀은 한달전까지 11.99달러이던 것이 14.99달러로 25% 올랐다. 홀세일러인 CJ,한성,해태,한미 등은 거의 재고가 바닥난 상태이며 마켓측에 쌀값 인상을 통보한 상태다.

식품공급업체의 한 관계자는 "조생종에게 영향을 미치던 가격인상이 만생종까지 이어졌다"라며 "쌀값 인상은 햅쌀이 나오는 9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업체에서는 매점매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도정회사들의 공급중단을 의심하기도 했다. 갤러리아마켓의 윤윤아 매니저는 "갤러리아마켓은 재고량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쌀값 인상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식품 수입업체들은 한국산 쌀의 수입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한국산 쌀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 쌀은 25~39.99달러에 이를 정도로 비싼 가격이었으나 미국산 쌀값과 격차가 좁혀지자 다시 수입 추진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 미국, '쇠고기 값 금 값되나'

이번에는 쇠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달 18일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부위 제한이 없어지면서 갈비살 도매가격이 2배로 급등하는 등 갈비를 중심으로 한 쇠고기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2주만에 2배로 폭등

한인타운에서도 값싼 갈비를 즐기는 건 이제 옛말이 될 듯 싶다. 특히 오는 15일 도축분부터 연령과 뼈포함 여부 등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않는 새로운 수출위생조건에 따른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후의 쇠고기가격 인상폭

이 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한다. 이화정육의 조영섭 사장은 "갈비 도매 가격이 1~2주 사이에 파운드당 1.50달러 안팎으로 올랐다"면서 "과거에는 파운드당 1달러 미만의 갈비도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마켓에서도 2달러대 갈비 세일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편 한국에서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저항이 극심해 단기 수출 물량이 어느 수준이 될지는 미지수여서 설부른 가격 전망을 더 어렵게 한다.

▶ 가격 상승요인은 풍부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는 갈비살의 도매 시세가 파운드당 6달러선, 갈비는 3달러 안팎에 달하고 있다. 한국이나 한인 마켓에서 상대적으로 소비가 적은 부위들도 2주전 대비 20~30%는 올랐다. 삼창정육 김남수 사장은 "사료비와 개스비 등 제반 비용 급등이 동반되고 있어 소매가격으로 파운드당 5.99달러 이상을 기록했던 2003년 이상의 가격 인상 요인이 풍부하다"며 "마켓들이 기존 부킹 물량을 소진하고, 한국으로 내장까지 수출이 시작되면 소매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쇠고기 유통사업도 주목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뼈포함과 연령에 제한을 두었을 때와 새로운 위생조건이 발표된 지금의 시장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쇠고기 수출입 사업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 팩커와 도매업체로의 문의가 쉬임이 없다. 조영섭 사장은 "과거 쇠고기 수출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한국으로 수출사업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제한조건으로 수출 엄두를 못내고 있었다"면서 "이제 자체수출 재개를 위해 새로운 수출 조건에 대한 미국 농무부의 공식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한인 사업자 타진만 분주

한국을 상대로 쇠고기 수출 최고 기록을 올렸던 2003년의 경우 한 해동안 8억 4700만달러 규모의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출됐다. 이처럼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미주 한인 도매업체들이나 쇠고기 수입을 원하는 한국 사업자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는다. 조영섭 사장은 "지난 달 새 협의안 타결 후 한국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한국측으로부터의 주문 물량 단위도 너무 커 선불리 시도할 문제는 아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이미 미국 대형 팩커를 중심으로 유통망이 형성돼 있는데다 컨테이너당 40만달러 가량이나 드는 비용을 선불로 준비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김남수 사장도 "일각에서는 쇠고기 수출 거래에 대해 신용장(LC) 거래까지 운운되고 있지만, 웬만한 친분과 신용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힘들

다"며 "한인들의 경우 대형업체들의 지역 대리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거래 기록이 없이 새롭게 라인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번 쇠고기 한국 수출이 정작 한인 사업자들에게는 큰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LA aT 센터, 히스패닉 축제에 한식 홍보부스

오는 4일 LA 인근 위티어 내로우 리저널 파크(Whitter Narrows Regional Park)에서 열리는 멕시코 커뮤니티 최대의 축제인 싱코데마요(Cinco De Mayo)에 한국 음식 홍보 부스가 마련된다.

LA aT센터(지사장 김학수)는 지난 2월 중국계 커뮤니티 축제 '음력설 축제(Lunar New Year Festival)'에 이어 남가주 최대 규모의 히스패닉계 축제인 이번 행사에 김치를 중심으로 한 한국요리 시연 시식과 함께 인삼, 알로에 음료, 배 등 최근 히스패닉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식품들을 홍보한다.

김 지사장은 "처음으로 참가하는 히스패닉 축제를 통해 매운 맛에 거부감이 없고,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높은 현지 히스패닉계를 공략함으로써 한국 식문화의 소비 대상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 참가는 LA지역 유명축제와 연계한 한국 식문화 홍보행사를 위해 추진되며, 히스패닉 시장 진출확대를 통한 한국 식품의 대미 수출 확대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행사에는 주류마켓에 입점 중인 전략 수출상품을 시식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행사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6시.

○ 국제 곡물값 하락세 반전...파종 증가·보유분 방출로

쌀과 밀 및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29일 파종 확대와 정부 보유분 방출 등에 힘입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제 곡물시세 약세는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 유력시됨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도 변수가 됐다. 월가는 FRB가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서 이날 쌀은 5월 인도분이 100파운드당 22.59달러로 전날보다 71센트 빠졌다. 쌀값은 앞서 기록적인 25.07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 쌀값이 이처럼 빠진 것은 3위 쌀 수출국인 미국의 파종이 지난 27일 현재 44%로 한주 전의 26%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옥수수도 29일 CBOT에서 5월 인도분이 부셸당 8.75센트 떨어져 5.9100-5.9125

달러에 거래됐다.

밀값도 지난 5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5월 인도분이 전날보다 32센트 빠진 부셀당 7.94달러에 거래됐다. 콩 5월 인도분 역시 4센트 하락해 부셀당 12.790-12.795달러에 거래됐다.

○ 미국, 한국산 쌀...국제쌀값 폭등으로 경쟁력 갖추나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한국산 쌀이 최근 국제쌀값 폭등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다시 미국 쌀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이던 국제쌀값이 최근 주요 쌀수출국 미얀마 재해 이후 한층 가속도가 붙었다. 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T)에서 거래된 7월 선물 쌀가격은 전일대비 2.4% 오른 100파운드 당 21.6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쌀값 상승으로 당초 15~20달러선(20파운드)이었던 로컬쌀(만생종 기준) 소비자 가격은 30% 가량 인상돼 20~25달러선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때 미국산 조생종 쌀과 비교했을때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났던 30~35달러선의 한국산 쌀이 최근에는 로컬쌀 값과 1.2~1.5배로 가격차가 좁혀져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지난해 12개 브랜드, 370톤, 총 80만달러 가량의 한국산 쌀이 준비없이 미 시장을 노크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올해는 가격경쟁력에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초기 시장확보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브랜드나 지자체의 개별적인 진출이 아닌 한국산 쌀이라는 프리미엄 네임으로 공동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aT센터 LA지사는 지난해 실패했던 사례분석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3개 브랜드를 선정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또 쌀 시장 상위 5~10%에 해당되는 VIP 소비자를 타겟으로 친환경 유기농 고급쌀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5파운드, 10파운드 등 소포장 상품 시판, 선물용 쌀 세트 개발 등 한국산 쌀 시장의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aT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0만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산 쌀 수출은 시장형성을 위한 테스트 마켓 형태로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쌀값 상승 영향으로 조만간 연간 1,000톤, 300만달러 안팎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센터 김학수 LA지사장은 "12만톤에 이르는 한인 연간 쌀 소비량 중 5%를 고급 쌀 수요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국산 쌀의 프리미엄 이미지로 이 시장을 공

락하는 것은 물론 웰빙 식문화를 지향하면서 다문화에 개방적인 밀레니엄 세대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LA, 조생종 쌀 '품귀'...한인들 값 인상 우려해 서너포씩 구매

조생종 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한인 시장에서도 금값된 쌀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인 대형마켓들에서 판매되는 조생종은 코리안팜 이천쌀 퍼시픽푸드 청정쌀 한미한가위 골드 한성기업/퍼시픽 자이언트 싱싱미 해태 그린쌀 CJ천하일미와 일본 브랜드로 니시모토 시라기꾸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종류가 그린쌀과 시라기꾸쌀에 그친다. 마켓마다 한가위나 천하일미 등 일부 브랜드를 소량 취급하는 정도다. 1~2개를 제외하고는 재고가 바닥나 나머지 브랜드는 쏙 들어갔다.

이는 공급 부족으로 부킹이 되지 않아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쌀 부족 현상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샘스클럽 코스코 등 주류 유통업체들의 쌀 구매량 제한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거나 일부 소비자들만 평소보다 여유있게 구입하는 정도였으나 지난 주말에는 3~5포씩 사가는 경우가 늘었다.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많게는 10포까지 사가기도 한다"며 "하지만 몇개월 사이에 10포씩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두면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재기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자 갤러리아마켓 아씨수퍼 플라자마켓 등 일부 마켓들이 1인당 1포로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다. 한남체인은 식당 등 도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량을 조절하고 있다.

쌀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물량이 없어 당장이 문제라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8 9월 햅쌀이 출하되면 재고 물량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정회사 등 판매자 쪽에서 쌀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가지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공급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버티는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격도 지난 주말을 기해 크게 올랐다. 조생종의 경우 1포 8.99~9.99달러에

서 현재 11.99~12.99달러까지 인상됐다. 아씨수퍼는 쌀값 폭등 이전 1포 5.99달러하던 코리안팜 이천쌀을 한때 14.99달러까지 올리기도 했다.

만생종은 조생종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재고 및 부킹 물량이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 1포 12.99~16.99달러 선에서 현재 16.99~19.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 미국, 식품인플레이션 갈수록 심화

식품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고유가와 곡물가 강세가 지속되면서 그 파장이 식품 쪽으로도 본격 전이되기 시작했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 서민의 식품구입 부담도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식품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의 식품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4%를 기록했다면서 이것이 그 전해의 2.4%에서 증가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또 현재 식품 인플레이션이 지난 9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갈수록 장바구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에서 식품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 기준으로 5.8%로 영국의 8.7%는 물론 선진국 평균치 10% 가량에 비해서는 낮지만 올해도 식품값이 4~5% 추가 상승할 것으로 미 농무부가 전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식품구입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이들은 지적했다.

식품산업 전문 컨설팅 회사인 월러드 비숍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석유 및 곡물 등 원자재 수요가 급증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올해 실질적인 식품값 인상이 7~10%로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 LA, ‘한국닭 전쟁’

한국 치킨 전문점들의 LA 한인타운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닭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타운에서 영업하고 있는 치킨 전문점은 2007년 5월 6가와 세라노 한 샵핑몰에 개업한 교촌치킨을 비롯해 본촌치킨, TBBC 바비큐, 제네시스 BBQ 치킨, 치킨 데이 등이며 계동 치킨은 오는 6월 코리아타운 플라자 내 문을 연다.

이들 전문점들은 ▲미국에서 키운 닭을 사용하고 ▲치킨 데이를 제외하고 원조가 한국에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조리법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한국 치킨 전문점들의 타운 진출에 대해 교촌치킨 USA의 스티브 박 사장

은 “한국에서 치킨 전문점들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며 “전문점들이 사업확장 측면에서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동치킨 미 서부지역 총판권을 획득한 한성덕 사장은 “운영 체제에 안정케도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은 자신감을 갖고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인분이 먹을 수 있는 한 마리의 가격이 17~18달러인 것도 비슷한 점이다. 이들의 운영형태는 다소 다르다.

한국 본사에서 직영하거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데 교촌치킨과 한국의 바비큐 치킨 전문점 인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TBBC 바비큐)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숯으로 직접 굽는 TBBC 바비큐 치킨은 지난 2일 한인타운 매장(206 N. Western Ave. LA)을 개업했다.

한편 교촌치킨은 토렌스, LA, 로렌하이츠에 매장을 갖고 있으며 5월 가든그로브, 8월 어바인에 새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2년 전 뉴욕에서 시작한 본촌치킨은 지난 3월 6가와 카탈리나 인근에 전국에서 11번째 업소를 개업했다. LA 매장의 케니 김 사장은 “전문점마다 양념이 다르고 조리법도 다르다”며 “매상은 꾸준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치킨 데이는 한국과 관계가 없는 ‘우리의 업체’다. 2006년 12월 개업한 1호점은 라크레센타에 있으며 2호점은 3가와 웨스턴 한 샤피몰에 위치해 있다. 2호점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배운 맛을 내는 비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네시스 BBQ 치킨은 지난 3월 7가와 버몬트 타운 매장과 부에나팍 풀러튼 매장을 동시에 개업, 미국시장 개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 FAO, “쌀 풍년 불구 가격 안 떨어져”

올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쌀 생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으로 국제 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식량농업기구(FAO)가 12일 전망했다.

또 유례없는 곡물가 상승과 양호한 기상조건에 힘입어 올해 세계적으로 밀도 최대 규모의 풍작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연방 농무부가 최근 밝혔다. 농무부는 올해 세계 밀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8% 증가한 6억5,600만톤, 쌀은 지난해보다 500만톤이 늘어난 4억3,2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무부는 올해 미국 내 밀 생

산량도 10년 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7%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FAO의 쌀 전문가 콘셉시온 칼페는 “초기 예측치에 따르면 올해 세계 쌀 생산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6억6,600만톤이라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수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초기 집계에 따르면 아시아 쌀 생산은 올해 사상 최고치인 6억500만톤에 이르고 아프리카의 경우도 향후 몇 달간 정상적인 강우량을 가정할 경우 3.6% 늘어난 2,32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우도 올해 쌀 생산량은 7.4% 증가한 2,62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FAO는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쌀 생산 증가가 기대된다”며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사상 최대 증가가 예상되고 최근 홍수로 피해를 겪은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작황도 괜찮다”고 내다봤다.

한편 FAO의 쌀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에 국제 쌀 가격은 약 76%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LA, 한국산 쌀...재진출 청신호

지난해 품질별로 7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서 판매되었던 현지 생산쌀에 비해 15~28달러 더 비쌌던 한국산 쌀은 최근 현지 쌀 가격의 폭등으로 가격차가 최고 8달러선까지 좁혀져 시장 재진출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을 강조한다면 지난해 겪은 한국산 쌀 파동을 되풀이할수 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조심스러운 지적이다.

▲ 무분별한 수출 자제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로 지역 쌀 수출에 열을 올리던 한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사례를 분석한 농수산물 유통공사(이하 aT센터) 자료와 과당 수출 자제 요청에 따라 어느정도 정리되어가는 모습이다. aT센터 김학수 지사장은 "지난해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 고품질유지

무분별한 수출은 비단 과당경쟁에 따른 신규시장 붕괴뿐 아니라 일부 기대 이하의 품질을 가진 쌀까지 수입돼 소수의 고급미 시장 공략이라는 당초 목표에서도 크게

벗어났다. aT센터 김학수 지사장은 "현재 이에 대해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품질이 검증된 2~3종의 고급미로 다시 한번 승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소비하는 쌀시장은 연간 12만톤 규모로 aT센터는 이중 5% 내외인 6,000~1만톤 분량을 고급미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풍 골드, 백세미 등의 브랜드로 대표돼 현재 20~28달러 선에 판매되고 있는 고급미 시장 공략을 위해선 안정적인 품질관리가 우선돼야 가격차를 극복 할 수 있다. 해태아메리카 정정우 대표는 "한국의 고급미의 경우 수확 직후 도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관시설 역시 크게 개선돼 현지 쌀에 비해 품질은 우수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양질의 한국산 쌀 브랜드 선별 수출과 품질 경쟁력 유지라는 과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 절실

지난해 한국산 쌀의 실패에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마케팅의 부재다. 업체마다 서로 다른 품질의 한국쌀을 갖고 제각각 진행한 마케팅은 결국 재고와 수입업자의 적자로 이어졌다. aT센터는 이를 위해 우선 5~10파운드 사이의 다양한 소포장 상품과 선물세트 등을 출시, 부담없이 소비자들에게 소비경험을 주고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마케팅을 일원화해 새로운 시장형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올해 9~10월 사이 미국 시장 재도전이 예상되는 한국산 쌀은 연말까지 좁혀진 가격 경쟁력과 양질의 품질이라는 장점을 적극 살려 지난해 78만 달러와 비슷한 규모로 수입될 전망이다. aT센터측은 연말까지 시장 재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궁극적으로 연간 300~350만 달러 수준의 고급미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LA 한인마켓, 제철과일'주렁주렁'

사시사철 과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다. 언제든지 과일을 즐길 수 있지만 그래도 계절에 맞춰 나오는 과일은 맛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철과일을 많이 찾는다. 요즘 타운 내 마켓에는 봄과 여름 과일이 속속 출하되면서 소비자들은 제철과일을 즐기는 재미가 가득하다. 4월부터 출시된 딸기를 는 5월초 현재 당도가 최고로 인기가 높으며 시작으로 이번주 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체리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수확량은 많지 않지만 웰빙 바람을 타고 마켓에 한자리를 차지한 매실까지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제철과일을 만나본다

▶ 딸기=봄과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달콤한 딸기가 지금 마켓에서 판매가 한

창이다. 가격 또한 많이 내려 2~3주전 1박스에 12.99달러이던 것이 이번 주에 7.99달러로 많이 내렸다. 날씨의 변화에 많이 영향을 받는 딸기는 옥스나드에서 시작해 벤추라를 거쳐 산타마리아등 북쪽으로 차츰 산지로 이동한다. 특히 5월은 딸기를 즐기기에 최고의 계절이어서 매년 옥스나드에서 딸기 축제가 열린다.

현재 출하되는 딸기는 굵고 단단하며 당도도 최고로 높다. 올해는 또한 예년보다 더욱 맛이 뛰어나다는 것이 마켓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제 시즌이다 싶으면 1~2달내 사라져 버리기에 딸기는 지금 맘껏 즐기는 것이 좋다.가주마켓 이미희매니저는 "사실 딸기는 1년내내 즐기 수 있지만 신선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며 5월초가 사실 끝물이지만 이번에는 중순까지도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체리=입안에서 툭툭 터지는 상큼한 체리가 출시됐다. 변덕스런 날씨영향으로 수확량이 예년보다 적고 늦게 출하됐지만 이번주 부터는 새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현재 나와있는 체리는 칠레산과 캘리포니아산으로 새콤한 맛과 함께 당분이 많아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동이 날 정도로 인기다. 체리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 함유로 당뇨병 예방 및 각종 염증해소와 관절염 치료에 매우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체리는 1000여 종이 넘는데 이중 가장 유명한 것은 빙으로 단맛이 강한 체리의 일종으로 대부분 캘리포니아 산이 바로 이것이다. 현재 판매가격도 파운드에 1.99달러에서 2.49달러로 저렴해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가볍게 해주고 있다.

한남체인 박종태 매니저는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리고 일조량도 길어 예년보다 당도가 높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산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좀더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실= 매실이 스트레스와 피로 회복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 가정에서 직접 매실 원액이나 매실주를 담가 먹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3000년전 부터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을 받아 온 매실이 여러가지 면에서 몸에 좋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매실주나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3년정도 전부터 미국 한인사이에서도 주부들을 중심으로 매실열풍이 일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매실의 효과는 여러가지다. 우선 스트레스

와 피로 회복에 좋으며 몸 속의 독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 체질개선에 효과가 있다. 매실 재배는 기후가 중요한데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매실이 다 떨어져 더욱 키우기 힘든 열매이다.

수확량이 많지 않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요 증가로 현재 갤러리아 마켓에만 유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갤러리아 마켓 야채·과일부 이승열 매니저는 "다른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매실의 효능 때문에 찾는 고객들이 많다. 또한 매실은 햇살구와 매우 비슷해 간혹 잘못 사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씨를 보면 구별할 수 있다" 며 "웰빙 바람을 타고 매실 수요가 점차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 LA, 한국 '웰빙치킨' 'V·CHICKEN'... 6월 중순 1호점 오픈

갤러리아마켓(대표 김영준)이 치킨사업에 진출한다. 갤러리아마켓은 오는 6월 중순 LA지역의 한인마켓 가운데서는 최초로 마켓내에 한국의 웰빙치킨 프랜차이즈 'VNS 치킨(본스치킨)'전문점을 오픈, 최근 급속도로 미국 진출 열풍이 불고 있는 한국식 치킨 외식사업에 뛰어든다

갤러리아마켓의 'VNS 치킨'은 섭씨 250도의 오븐에서 구워 트랜스 지방이 완전히 제거된 신개념 웰빙치킨으로 한국에서 10개월만에 200여개의 업소가 창업될 정도로 성장세가 빠른 치킨전문점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VNS 치킨'미주 1호점은 갤러리아마켓이 미주 총판 사업권을 획득한 후 한인타운 마켓내에 처음으로 오픈하는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2년전 오렌지카운티의 프레시아마켓내에 교촌치킨이 지점을 오픈하며 미주진출에 첫발을 내디딘적이 있지만 LA 한인타운 마켓내 치킨 전문점이 들어서며 한인사회에 진출 하는것은 이번 갤러리아마켓의 'VNS 치킨점'이 사상 최초다.

VNS 치킨은 오븐에서 구워내는 새로운 조리법으로 공포의 트랜스 지방산을 줄이고 육즙과 기름기를 완전히 분리하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고단백 저칼로리가 특징이다.

독자 개발한 천연 시즈닝(소스침투)을 통해 육질 속까지 맛과 향을 침투시켜 딱딱하지 않고 감칠맛을 내는 조리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갤러리아마켓은 밝히고 있다.또한 10분에서 12분안에 끝내는 빠른 조리시간도 특징이다.

이미 갤러리아마켓측은 한국으로부터 치킨 조리에 사용할 시설및 장비를 공수,치

킨 전문점 셋업에 한창이다. 미국 총판사업권을 획득한 갤러리아 마켓은 한국 본사로부터 공수받은 치킨 소스에 LA 현지의 프레시한 닭을 숙성시켜 진공포장한 후 프랜차이즈점에 공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갤러리아마켓의 윤윤아 매니저는 "LA 한인타운의 갤러리아마켓내의 1호점을 필두로 벨리 갤러리아마켓에 2호점 그리고 할리우드의 개인 사업자에게 3호점이 오픈된다"라며 "마켓이 갖고 있는 많은 유동인구와 안정적인 닭공급으로 치킨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LA, 한국 전통약주 송이주, 국제와인대회 '금상'

한국 전통약주 송이주가 국제 와인대회에서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이주와 능이주 등 한국 내국양조의 미주 총판인 주마(Jumar.대표 크리스티나 김)는 "지난 4일 막을 내린 리버사이드 국제와인대회에서 본사의 송이주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리버사이드 국제와인대회에는 2600여개 와인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으며 송이주는 라이스 와인 사케 부문에서 와인 전문가 및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주마USA의 장범진 매니저는 "올해는 송이주가 금상 지난해에는 능이주가 동상을 차지하는 등 미주에 출시하자마자 2년 연속으로 상을 타게 됐다"며 "대회 테이스터들 사이에서도 빼어난 맛과 향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 등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송이주와 능이주는 한국과 백두산 인근 중국 북부 지역에서 자생한 100% 자연산 송이 능이버섯만을 채취해 쌀과 함께 빚은 전통술이다.

주마측에 따르면 송이주와 능이주는 순하고 부드러운 맛과 은은한 향을 자랑한다. 송이주의 첫맛은 술향이 나고 끝맛은 단백하다고.

주마는 송이주 능이주 외에도 빠르면 오는 6월 100% 한국 토종 보리(사조맥)로 만든 19.5도의 착한 소주와 쌀로 빚은 50도의 강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전라남도 특산품 LA 온다

전라남도의 김치 한과 전통 장류 공예품 등 특산품들이 LA에 온다.

이 지역 20여명의 여성기업인들로 구성된 '농수특산물 판촉단'은 이번주 토요일(17일)부터 이틀간 삼경마트 가디나점에서 판촉전을 갖는다.

이들 여성기업인들은 농림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행정자치부로부터 신지식인 인증을 수여받았으며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도 특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참가 업체는 고흥유자한과(송인숙) 보성녹차(김영애) 여수전통한과(차성업) 추월산약다식(이순자) 담양한과(박순애) 인동주마을(우정단) 행복한고구마(이정옥) 죽향화(양정자) 등이다.

판촉단은 이번 행사로 한인들에게 우선 인정을 받은 뒤 주류시장으로 판매망을 넓혀 갈 계획이다.

○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메뉴판 ‘칼로리 표기’ 시행논의

올여름부터 뉴욕시내 체인점 레스토랑 메뉴판에 칼로리 함유량 표기가 의무화된 가운데 가주에서도 비슷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까지 가주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타운내 한인 식당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응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주 의회에는 SB1420과 AB2572 등 비만 인구를 줄이자는 취지로 칼로리 표기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중 SB1420은 시행 대상들을 15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레스토랑들로 국한하고 있어 시행된다 해도 타운 업소들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B2572 법안은 칼로리 표기 품목수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대신 시행대상을 전 레스토랑으로 확대한 일종의 '절충안'이어서 타운 업소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법안에 대해 가주레스토랑협회는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칼로리 표기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상황에서 메뉴중 일부만 칼로리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한인 업소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남가주 한인요식협회 이기영 회장은 "다이어트에 민감한 타인종들을 타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LA-한국 교역량, 작년 246억달러

남가주 경기의 근간이 되고 있는 LA와 롱비치항을 통한 교역량이 올해는 컨테이너 규모 1,583만 TEU로 1%의 소폭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발표된 LA 경제개발공사(LAEDC) 연례보고서 ‘국제 무역 트렌드 및 영향’에 따르면 2007년 LA와 롱비치항을 통해 수출입된 물품 총규모는 6.1% 증가한 3,494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컨테이너 규모 면에서는 0.6% 감소했다.

항만별 선적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LA항이 0.1% 감소한 574만 TEU였으며 여전히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2위항만인 롱비치는 4.1% 증가한 499만 TEU를 기록했다.

LA지역 세관을 통한 국가별 교역량 순위에서 중국이 1,833억달러로 단연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일본은 2위(605억달러), 한국은 3위(246억달러)였다.

LA지역 세관을 통해 교역되는 최대 제품군은 전자장비, TV, 전기부품으로 수입액이 583억2,000만달러, 수출액이 174억달러였다. 다음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기계류 및 부품으로 172억달러가 LA와 롱비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다.

한편 LA카운티 내에 해외 자본의 직접투자로 운영되는 법인 수는 총 4,384개로 국가별로는 일본(1,436), 영국(809), 프랑스(365) 등의 순위였으며, 업종별로는 소매무역(967), 도매무역(859), 제조(615), 금융 및 보험(493), 운송 및 창고(297개)의 순이었다.

◇한국과의 교역=2007년 LA지역 세관을 통한 한국과의 교역량은 전년보다 4.7% 증가한 246억달러였다. 한국산 수입액은 1% 증가한 150억달러(국가별 분류 4위),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11.1%증가한 96억달러(국가별 분류 3위)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 53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LA지역 세관으로 들어오는 한국제품의 업종별 분류에서는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기계류와 부품(21.6%), 전기장비 및 부품(21%), 석유정제 제품(14%) 등의 순이었다. 석유정제 제품은 전년 대비 52.9%, 광학 및 사진, 의료기기류는 77%나 증가했으나, 의류는 35.7%, 금속류는 27.5% 감소했다. LA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기계류와 부품(19%), 전기장비 및 부품(16.5%), 광학 및 사진, 의료기기(11.8%)의 순이었으며, 미국산 육류의 한국 수출은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한 1억4,370만달러로 251.9%의 증가를 보였다.

○ LA, 한국산 치킨브랜드 대거 진출...문제점은?

올들어 한국산 치킨 브랜드의 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6월말까지 진출예정인 2개를 포함해 총 7개 올해 상반기에만 6개의 신규 한국산 브랜드가 LA지역에 진출해 각축전이 예상

된다. 나름대로 독특한 맛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한인을 넘어 주류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이들 업체는 가격, 맛의 균일화, 서비스, 가격, 조리시간 등 기존의 조건과 함께 체계화된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스나 양질의 닭 등 재료의 차별화와 함께 현지 시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가맹점 모집을 무게를 두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사업 전이나 초기 사업 적응과 병행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프랜차이즈 업체로 등록해야 가맹점주와의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히스패닉이나 흑인 커뮤니티가 치킨을 좋아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타 커뮤니티로 무작정 시장확대 한다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점이다. 지역별 인종 분포와 주변 요식업 메뉴 현황과 소득 수준 등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시장조사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균일한 맛을 각 가맹점이 유지돼야하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업체는 양질의 균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재료를 일정한 공급처로부터 제공받아 가맹점들에게 공급해야 하며 세부적인 조리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매뉴얼 역시 갖춰야 하며 지속적인 메뉴 개발 및 관리로 본사와 가맹점의 확고한 공생 관계를 이뤄가야 한다.

최근 4~5년 사이 과당경쟁으로 사라져간 보바, 프로즌 요거트, 월남국수, 곰창 등 특정 메뉴 전문점과 일부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온 한국산 요식업 브랜드들 무분별한 난립과 쓸쓸한 퇴장은 이들 한국산 치킨브랜드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 미국, 식료품 가격 올해 5.5% 인상 전망

미국의 식료품 가격이 올해 식용유와 계란, 제빵 제과류 가격의 급등의 영향으로 5.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무부는 19일 올해 식료품가격 상승률이 식용유와 계란, 제빵 제과류 가격이 최소 8.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개월 전에 나온 상승률 전망치인 5.0%보다 더 오른 5.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무부는 올해 식용유는 11.8%, 계란은 11%, 제빵 제과류와 시리얼제품은 8.5%가 각각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무부는 그러나 바이오연료인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소비 증가가 최근 식료품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에드 샤퍼 농무부 장관은 바이오에너지인 에탄올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옥수수 소비증가로 최근 식료품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에너지 비용과 수출금지 조치 등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쌀값 또 오른다

쌀값이 이번 주부터 또 대폭 오를 전망이다.

미국내 쌀 도정회사는 지난 주 홀세일러에게 공문을 보내 이번 주부터 판매될 쌀의 가격을 25~30% 까지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LA코리아타운내 각 마켓들도 이미 재고가 거의 바닥나 이번주 부터는 기존 가격에서 최고 3~4달러까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24일 국제 쌀값이 톤당 1000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연일 급등 보이는 쌀값은 이상기온으로 최대 쌀 수출국인 호주가 최근 6년간 가뭄이 이어지며 쌀 생산량이 90% 이상 감소해 전세계 쌀값 급등세를 심화시키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집트, 베트남, 인도 등 세계 최대 쌀 수출국들이 앞다퉈 쌀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서면서 국제 쌀 시장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고 쌀 수출이 많지 않던 미국 쌀이 수출되면서 미국 내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수요 부족 사태까지 이어졌다. 홀세일러인 해태 제인 박 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도정회사로부터 가격 인상 공문을 받았다. 들어오는 수량이 많지 않아 지난 2주전부터 마켓마다 50포 제한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도 가격인상과 함께 공급 제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번 쌀값 인상으로 이미 한차례 사재기 파동을 겪은 한인들은 이번 인상으로 또 사재기 파동이 일어나 쌀값 인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 목소리가 높다. 플라자 마켓 케빈 박 매니저는 "홀세일러에게 가격 인상 통보는 받았지만 마켓 마진을 줄여서라도 당분간 쌀값 인상은 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남체인 김병준 이사는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바닥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지만 소비자에게 최대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식료품값 아끼는 길있다' 절약 정보 제공 웹사이트 인기몰이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식료품비 절약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쌀 밀가루 우유같은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값이 올해들어 연율로 5%나 상승 18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저렴하고 요리가 쉬운 식재료를 소개하는 올리시피닷컴(Allrecipes.com)의 경우 최근 3개월동안 방문자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다양한 생활정보와 절약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스리프티펀닷컴(thriftyfun.com)도 3월 한달에만 페이지뷰가 400만 건이 넘어서는 등 지난해 비해 방문자가 4배나 급증했다.

이들 웹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긴요한 생활정보나 절약 아이디어를 찾는 주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스리프티펀닷컴의 제시카 스튜어트메이즈 편집장은 "97년 사이트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알뜰살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소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서로의 절약 비법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토르띠야 팬케익 믹서 젤리 메이플 시럽 등 식재료와 심지어 세탁비누까지 스스로 만들어 해결하려는 주부들도 늘고 있다.

이런 주부들은 제조 방법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더패밀리홈스테드닷컴(www.thefamilyhomestead.com)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실제로 만든 뒤에는 호프풀하우스와이프닷컴(www.hopefulhousewife.com) 통해 다른 주부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 LA 아씨마켓, 바닷물 담아 한국서 직송 최상급 홍해삼 선보

싱싱한 해산물로 유명한 아씨마켓이 한국에서 바로 직송한 신선한 해삼, 멍게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해삼은 제주도에서 직접 잡은 홍해삼과 백령도 참해삼을 바닷물에 그대로 담아 직송한 것으로 바다의 향내를 맡을 수 있는 최상급 해삼이다. 바다의 인삼, 해삼중의 해삼이라고 불리는 홍해삼은 제주 연안을 비롯해 울릉도, 강원도 일부 연안에 주로 잡히며 적색 또는 황갈색을 띠고 있고 크기도 일반 해삼보다 크다.

특히 바닷물을 담아 바로 직송해서 향도 좋고 꼬들꼬들 씹히는 맛이 일품으로 지난 주말부터 판매 해 1차분이 다 팔릴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최영훈씨는 "쌈싸름 하고 향긋해 참 맛있다. 이렇게 싱싱한 해삼을 미국에서 만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해삼은 칼슘과 철분이 많아 성장기 어린이나 임신부에게 권장할 만한 식품으로 항암효과가 있고 스테미너에도 도움이 된다.

해삼과 함께 판매되는 멍게 또한 제주도에서 직송된 돌멍게와 속초 비단멍게 그리

고 총무 꽃멍게가 선보인다. 해삼과 같이 바닷물을 함께 담아 직송 돼 싱싱한 바닷내음이 물씬 풍기는 것이 일품이다.

돌멍게는 맛과 향이 좋으며 특히 소주를 마실 때 멍게껍질을 반으로 잘라 소주를 부어 마시면 소주에 멍게의 은은한 향이 배어 더욱 멋진 맛을 낸다.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속초 비단멍게도 선보이는데 홍시 빛깔로 쫄깃하고 새콤함이 어우러져 또 하나의 별미를 즐길 수 있다.

아씨마켓 김민기 매니저는 "지난주에 홍해삼과 돌멍게를 처음 들어와 판매를 했는데 이틀 동안 다 팔리고 이제 2차분이 도착했다. 이번 해삼과 멍게는 최대한 마진을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늘 신선한 해산물을 선보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이번 홍해삼은 파운드당 24.99달러이며 봉지해삼은 한봉지에 9.99달러에 판매하며 비단멍게와 돌멍게는 파운드당 12.99달러에 맛 볼 수 있다. 한편 백령도 자연산 해파리도 한국서 바로 직송돼 올해 첫 선을 보인다.

○ 파이낸셜 타임즈, “곡물가 급등세 10년은 지속”

식량가격 강세는 쉽게 수그러들던 과거와는 달리 최소한 향후 10년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가 지적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내주 공개될 예정인 OECD-FAO의 ‘농업 전망: 2008~2017’ 보고서 요약본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보고서는 “바이오연료 확대와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들의 수요 급증 때문에 식량이 싼 시대는 지났다”며 “식량 값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최소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 1970년대의 전반적인 식량 위기와 지난 1996년 옥수수 대란을 상기시키며 당시는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됐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985~2007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기록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던 쌀과 옥수수 및 콩 등 주요 곡물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밀은 지난 2월의 기록적인 수준에서 40% 가량 떨어졌으며 콩과 옥수수 및 쌀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밀은 지난 2005~2007년 수준에 비해 오는 2017년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2%(이하 잠정치) 상승하며 쌀은 1%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수수의 경우 상승 폭이 커 15%에 달하며 식용유용 작물의 경우 33% 뛴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또 많은 농산물 공급이 여전히 충분치 않기 때문에 크게 낮아진 재고가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량 값이 앞으로 몇 시즌에 걸쳐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 한국 닭가공 전문기업 '하림' 미국시장 진출

한국의 대형 닭가공 전문기업 하림이 미국 삼계탕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사전 마케팅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측은 이달 초 시장조사팀을 LA로 파견, 현지 조사를 마쳤으며 내부적으로 LA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림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한·미 양국 통상협약에서 한국의 삼계탕 수출과 관련, 한국측의 조속한 현지 실사 요구를 미국측이 수용해 앞으로 30일 이내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을 비롯한 신속한 진행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발 빠른 시장 선점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림은 우선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닭 보다 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가열및 가공식품 형식의 완제품을 수출할 계획이다.

하림의 관계자는 "미국은 다인종으로 구성된 이민자들의 나라인 만큼 외국식품에 대한 친화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어 승산이 있다"라며 "한국 전통음식인 삼계탕은 우선 한인동포들을 타깃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 아시아계를 넘어 다양한 타인종들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은 이달 초 실시한 현지 조사에서 한국 음식을 취급하는 유통회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한국 음식 뿐 아니라 아시안 음식을 취급하는 대형 식품매장이 많아 사업 확대 여력의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한다.

○ LA, 떡볶이·김치볶음밥 '줄선다'...'한국 맛' 열풍

"웨스트우드에서도 떡볶이와 김치볶음밥을 즐길 수 있어요."

UCLA 인근 웨스트우드 빌리지에서 '한국의 맛'이 인기다.

떡볶이 김치볶음밥 육계장 등 매운맛 외에 잡채 불고기 덮밥 등도 인기 메뉴.

처음엔 한인 친구들을 따라와 맛을 보지만 나중엔 따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 업주들의 전언이다.

이소 퓨전카페의 유석희 사장은 "매운 맛을 좋아하는 타인종 고객들이 늘면서 떡볶이가 인기 메뉴로 자리잡고 있다"며 "치즈를 첨가해 고소한 맛을 더한 것도 비결"이라고 말했다.

김치볶음밥을 판매하는 꾸시데리아끼앤볼의 톰 신 사장은 "김치가 유명해지면서 김치볶음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김치볶음밥을 주문하는 고객은 한인과 타인종 고객이 반반"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불고기덮밥과 잡채는 타인종 고객이 더 많은 정도.

현재 웨스트우드 빌리지에 입점한 한인업소 수는 20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식당 숫자가 가장 많아 캘리포니아 롤앤 스시 떡볶이를 판매하는 이소 퓨전 카페 아미스시 도모다찌 스시 재패니스 그릴 포 튜나와 잇 주시 김치볶음밥과 불고기 덮밥을 판매하는 꾸시데리아끼앤볼 등 8개가 성업중이다.

이어 핑크베리 레드망고를 비롯해 스노우베리 폴라몽키 피코몰로 젤라또와 팔라조 델프레도 등 프로즌 요거트와 아이스크림 샵이 6개 정도다.

이외에 선물가게인 굿초이스기프트 사탕가게인 캔디캐슬 의류판매점인 크리살리드와 아이위시와 채식주의자를 위한 패스트 푸드점인 내이쳐스웨이 카페 등이 영업중이다.

이 지역 업주들은 안전함과 많은 유동인구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내이쳐스웨이 카페의 마이클 김 사장은 "UCLA 학생들 뿐아니라 인근의 사무실빌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대부분이 금융 보험 변호사 의사와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매력이 큰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조건이 좋다보니 높은 임대료와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한 업주는 "웨스트우드 빌리지 내에만 100여개의 식당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며 "거기에다 렌트비가 비싸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라고 토로했다.

웨스트우드 빌리지는 LA타임즈가 작은 맨해튼이라 지칭할 만큼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하다. 인근에 UCLA와 UCLA메디컬 센터를 비롯해 한국계 이동통신사인 힐리오와 크고 작은 오피스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 LA, 무서운 쌀값...두달도 안돼 2배 정도 치솟아

쌀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한 쌀값은 두달도 되지 않아 2배 정도 뛰었다.

한인 대형마켓들은 지난 22일부터 다시 한번 쌀값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생종 20파운드짜리 1포의 경우, 평소 판매가격이 최고 16.99달러까지 올랐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8.99~9.99달러대였다. 5.99달러하던 세일가격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인상됐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일주일 단위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1포당 2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소비자는 “개스값도, 쌀값도 무섭게 오르는데 개스값 4달러는 쌀값 20달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듯 느껴질 정도로 겁이 난다”고 말했다.

한남체인 박종태 매니저는 “기한을 두지 않고 앞으로 매주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조생종 뿐만 아니라 만생종과 찰쌀, 현미, 흑미 등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태 정정우 사장도 “도정회사들도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는다”며 “너무 단기간에 급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혼란스러워하지만 과수, 견과, 다른 곡물 등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른 상황에 비교하면 쌀 가격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이어 “그동안 쌀은 무리한 세일과 사은품 증정 등으로 인해 도매업체와 마켓 모두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정 수준의 이익을 본 경우가 드물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주 가뭄과 주요 쌀 수출국들의 금수조치가 세계 쌀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 파급효과로 미국내 쌀 물량이 수출로 빠져나가면서 일반 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세계 쌀 시장 상황이 미국 내에서도 요동치기 시작해 쌀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6월 초까지 마켓마다 조생종 1포당 3~4달러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다시 17.99~18.99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햅쌀 출하 시기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라며 “농부들이 일부러 낮은 가격에 재고를 소진할 이유가 없는 등 인상 요인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편 쌀 품귀현상을 우려한 마켓들은 1인당 1포로 쌀 구매량을 한정시켜 소비자들의 쌀 사재기를 막고 있다. 또한 도정회사가 도매업체에, 도매업체가 다시 마켓에 공급하는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 시카고, 한인 애용식품 가격 ‘들썩’

한인들의 식탁을 구성하는 주요식품들의 가격이 연일 상승 중이다.

가장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한인의 주식 쌀. 한인 대형마켓들의 쌀값은 꾸준히 인상돼 12~15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40파운드 쌀은 현재 22~25달러선까지 가격이 치솟은 상태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이 계속 이어져 가격이 3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부 최명진(47)씨는 “(쌀은) 사지 않을 수 없는 품목이다 보니 정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마트 관계자들은 이 같은 쌀값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져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관 슈퍼H마트 나일스점 지점장은 “당분간 계속 인상될 예정이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쌀 직접 구매를 위해 동남아로 떠난 상태다”라고 말했다.

최명수 아씨 플라자 시카고 지점장도 “쌀값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우리의 경우 최근 개장한 것이 아니었으면 가격이 훨씬 비쌌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쇠고기 역시 대부분의 마트들에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중이다.

조용관 점장은 “본사에서 일괄구매하면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중이지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쌀 뿐만 아니라 기타 한인소비 주요식품들도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다.

밀가루의 경우 밀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급격히 가격이 올라 한인들이 즐기는 라면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옥수수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깨의 경우에도 지난해 연말에 비해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상태며 식용유와 간장 등의 제품들도 소비자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다.

동 남 아

농산물 해외시장동향(타이베이)

1. 대만 농산물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동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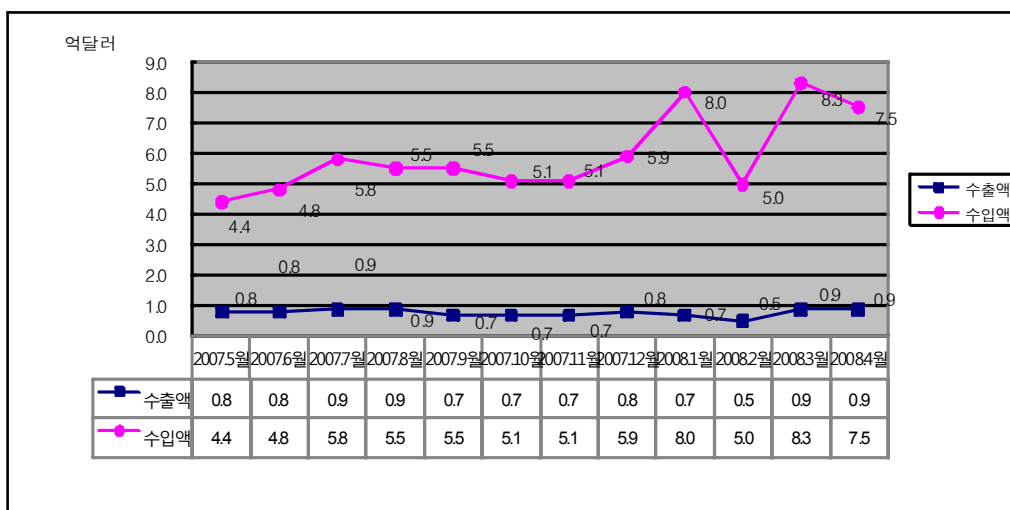
- 대만 무역통계에 의하면 2008년 4월 대만 농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115.7% 증가한 108,986.6톤으로 58,458.4톤이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0.9억으로 0.4억이 증가하였다.
- 2008년 4월 대만의 농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한 1,385,729.9톤으로 199,105.7톤이 증가하였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53.7% 증가한 8.3억 달러로 2.9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2008년 3월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6,096.0천불로 대만 농식품 전체수입액의 약 0.07% 점유하였다.

<2008년 4월 대만 농산물 수출입현황>

구분	수입액(억 달러)	수입량(톤)	수출액(억 달러)	수출량(톤)
2007년4월	4.8	960,643.2	0.8	85,574.6
2008년4월	7.5	1,286,678.4	0.9	69,853.5
증감(%)	56.3	33.9	12.5	-18.4

자료원) 행정원 농업 위원회통계

< 대만의 농산물 수출입 추이 >



나. 농산물 부류별 수입현황

(단위 : 천 달러)

품목부류	4월			품목부류	4월		
	2007년	2008년	증감		2007년	2008년	증감
곡 물	110,471.9	249,461.0	125.8	코코아, 그제품	4,030.6	4,606.5	14.3
유지종자 및 가루	84,862.4	155,364.5	83.1	재배용 종자	656.4	1,459.9	122.4
야채 및 그제품	14,279.4	19,852.5	39.0	식물유	17,119.3	27,958.6	63.3
과일 및 그제품	33,222.9	36,111.8	8.7	사료용 제품	13,334.8	18,356.7	37.7
감자류, 고구마류	11,987.0	21,276.6	77.5	기타 농경 제품	46,945.1	56,723.2	20.8
식물성 중약재	4,122.8	6,413.5	55.6	육류제품	44,041.4	56,504.2	28.3
꽃 및 종묘	1,678.0	1,465.6	-12.7	축산제품	3,619.0	3,848.9	6.4
설탕, 설탕제품	42,651.9	30,281.5	-29	유제품	41,091.4	39,226.1	-4.5
차 잎	2,991.0	3,530.8	18.1	새털	10,752.5	8,206.0	-23.7
연초 및 그제품	51,089.2	64,502.7	26.3	양털, 기타동물털	9,683.9	10,032.5	3.6
목 화	34,852.7	35,445.2	1.7	가죽 및 그제품	51,080.1	52,568.8	2.9
술	40,433.2	51,651.1	27.7	목재 및 그제품	101,762.4	110,030.1	3.1
커피	7,327.4	9,970.3	36.1	기타 임산물	22,141.5	28,175.0	7.1

자료원) 행정원 농업 위원회통계

다. 농산물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천 달러)

순위	국가별	2007년 4월	2008년 4월	증감 (%)	순위	국가별	2007년 4월	2008년 4월	증감 (%)
1	미국	277,019.70	427,964.90	54.5	10	베트남	21,919.40	28,358.50	29.4
2	호주	43,135.10	86,238.50	99.9	11	캐나다	21,873.70	22,534.10	3.0
3	말레이시아	48,860.80	71,121.90	45.6	12	프랑스	17,610.10	19,847.10	12.7
4	태국	42,488.20	65,269.10	53.6	13	독일	14,134.10	17,383.00	23.0
5	중국	63,359.50	64,692.80	2.1	14	영국	12,812.60	16,078.00	25.5
6	일본	56,765.50	60,844.40	7.2	15	네덜란드	14,196.70	14,883.90	4.8
7	인디아	12,681.10	50,574.80	298.8	16	한국	8,503.80	9,741.40	14.6
8	뉴질랜드	38,575.00	37,531.50	-2.7	17	칠레	11,868.80	8,544.10	28.0
9	인도네시아	27,491.80	29,585.50	7.6	18	이탈리아	6,793.30	7,659.10	12.7

자료원) 행정원 농업 위원회통계

라. 주요 농산물의 국가별 수출입현황

□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7년 4월	2008년 4월	증 감(%)
□ 소가축	52,261.5	52,607.3	0.7
- 베트남	13,037.4	16,657.3	27.8
- 홍콩	19,275.5	15,753.3	-18.3
- 중국	15,583.9	13,068.3	-16.2
□ 새 털	14,259.2	16,481.1	15.6
- 일본	3,126.7	7,003.7	124.0
- 중국	2,090.8	2,980.5	42.5
- 베트남	2,114.6	1,385.5	-34.5
□ 돼지가축	8,567.0	8,564.6	-0.03
- 베트남	3,175.6	2,041.8	-35.7
- 이탈리아	741.4	1,804.5	143.4
- 홍콩	1,511.9	1,464.3	-3.1
□ 양 털	6,683.8	7,665.8	14.7
- 일본	3,132.3	3,050.3	-2.6
- 중국	1,028.3	1,582.3	53.9
- 한국	1,256.3	844.0	32.8

□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7년 4월	2008년 4월	증 감(%)
□ 황두, 유지종자	52,552.7	154,653.7	194.2
- 미 국	52,126.3	153,653.0	194.8
- 아르헨티나	-	444.9	-
- 캐나다	352.2	382.1	8.5
□ 옥수수, 곡류	81,756.7	146,336.3	80.0
- 미 국	81,571.5	122,287.0	49.6
- 인 도	-	18,135.6	-
- 중 국	-	5,473.1	-
□ 연초 및 그제품	46,234.6	47,014.3	1.7
- 입 본	31,994.9	30,764.4	3.9
- 독 일	6,837.2	7,615.5	11.4
- 말레이시아	922.4	2,908.5	-
□ 목화	28,320.1	42,963.8	51.7
- 미 국	16,957.8	17,386.6	2.5
- 인디아	5,525.4	12,915.3	133.7
- 巴基斯坦	1,204.7	5,272.0	337.9
□ 술	33,851.4	42,842.5	26.6
- 영 국	10,581.0	14,581.0	37.8
- 프랑스	6,453.2	9,273.4	43.7
- 네덜란드	4,408.7	5,312.1	20.5

마. 한국산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품 목	대만 총수입액		한국산 수입액		기타 국별 수입액 (2008년 4월)		
	2007년 4월	2008년 4월	2007년 4월	2008년 4월			
인삼	2,048.8	2,435.2	2,036.4	2,435.2	-	-	-
새털	11,088.7	6,959.4	1,293.3	1,343.9	중 국 (3,080.8)	프랑스 (770.8)	태국 (294.7)
신선 배	445.8	1,326.9	367.1	1,205.9	미 국 (69.4)	칠레 (51.6)	-
과자	5,745.7	5,517.2	462.2	544.2	일 본 (2,129.0)	말레이시아 (609.6)	미 국 (566.2)
삼계탕	346.8	380.3	140.1	211.6	프랑스 (46.2)	중 국 (34.6)	스페인 (27.6)
연초 및 그제품	46,234.6	47,014.3	262.0	180.7	일 본 (30,764.4)	독 일 (7,615.5)	말레이시아 (2,908.5)
라면	565.9	650.4	110.4	131.8	일 본 (204.4)	인도네시아 (131.3)	태 국 (71.8)
술	33,851.4	42,842.5	313.8	101.3	영 국 (14,581.0)	프랑스 (9,273.4)	네덜란드 (5,312.1)
신선 사과	7,238.5	7,300.3	112.6	76.7	일 본 (2,862.3)	뉴질랜드 (2,266.0)	미 국 (1,873.2)
김치	341.2	373.6	55.8	47.9	베트남 (201.1)	중 국 (97.8)	태 국 (19.7)

자료원) 대만 세관통계

2. 시장동향

가. 시장단신

○ 커피 시장 규모 10년간 2.6배 확대

대만 커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커피 연간 수입량이 10년간 약 2.6배 증가한 2만여 톤을 기록하였다.

대만 재정부 관세총국 자료에 의하면 1997년 대만 커피 수입량이 약 7,991톤 수입액이 4,460만불 이었는데, 1998년 STARBUCKS, IS COFFEE등 커피 전문 체인

점이 생기면서 수입량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2002년 수입량은 15,758톤 1997년에 비해 약 2배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 2003년 비교적 저가의 대만 커피 체인점 85℃가 생긴 이후, 작년 말 커피 소비량은 21,195톤 최고점에 달했다.

그 중 생원두 커피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로스팅 처리한 커피가 507톤, 그 가공제품이 323톤을 차지하였다. 커피업계 분석에 따르면, 생 원두커피의 수입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신선한 것을 원하고 커피를 즐길 줄 아는 커피 애호가들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베트남, 과테말라 순으로 나타났다.

커피 한 잔에 7g 커피를 사용한다고 본다면 대만 연간 소비량은 30억 잔(캔형 포함) 즉 2300만 대만인 각각이 연간 130잔을 마셨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수치는 10년 전 50잔에서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료원) 자유시보 2008/4/6

○ 「옥수수 건조 술찌게미」 닭 사료용 첨가, 계란 품질 향상

최근 옥수수, 대두 수요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료 대체품을 찾는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위원회 축산시험소가 최근 「옥수수(대두) 건조 술찌게미」를 이용한 연구 실험을 발표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옥수수 술 찌게미를 건조시킨 후 사료에 첨가함으로써 사료 원가 절감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엽황소(xanthophylls)、비타민 B군이 다량 함축되어 계란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축산시험소는 닭 사료에 옥수수 혹은 대두의 건조 술찌게미를 12%부합한 뒤, 산란계(産卵鷄)사료용으로 사용하였더니, 술찌게미의 엽황소로 인해 계란 색깔이 선명해지고 광택이 나며 계란 생산률이 87-90%로 증가하였고 사료 원가를 매kg당 NT\$0.5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술찌게미가 미생물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계란 껍질이 두꺼워 지고 단단해진다고한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산란계 사료 중 건조 옥수수 술찌게미를 첨가하면 계란 생산률 상승될 뿐 아니라 계란 색깔이 선명해지고 껍질 단단해지는 등 계란 품질도 향상된다고 한다. 향후 술찌게미와 같은 폐품류 재활용 혹은 사료 대체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중광신문사 2008/4/10)

○ 대중국 농산물 수출 보조금 8개 지역 5억원씩 지원키로...

대만 농업위원회의 정책전환이 주목을 끌고 있다. 기존에 대만 농산물이 중국으로 대거 수출되는 것에 대해 약간의 제한적 경향을 보이던 농업위원회가 최근 대만과 일 등 농산물의 중국 및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생산지인 台南縣, 雲林縣, 高雄縣, 屏東縣, 花蓮縣, 台中縣, 雲林縣, 台南縣 8개 각 지역에 최고 NT\$1600만원(한화 약 4억 8000천)씩을 보조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업위원회는 작년 중국 과일 수출량이 US\$196만불 4년 전에 비해 6배 증가되었고, 차(茶)도 작년 US\$116만불로 향후 시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지원 지역인 운린(雲林)현은 이미 북경 올림픽 전에 파인애플 구아바 스타푸르트(오렴자) 돈육 및 기타 채소를 마카오에서 먼저 선보이기로 하였다.

농업위원회는 기존에 대만 농산물의 중국 수출에 대해 약간의 제한적 요소가 있었으나 그것은 대만 재배기술 유출을 우려했기 때문이었고, 금년 각 현에 지급되는 지원보조금 정책과 곧 개방될 직항로를 이용하여 현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대중국 총 수출액 7% 성장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원) 2008/4/17

농산물 해외시장동향(싱가포르)

1. 경제동향

가. 싱가포르 경제 동향

- 싱가포르의 3월 전체무역규모는 지난달 보다 낮은 11%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체 수출 성장률은 전월 18%에 이어 4.4%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수입물량은 지난달 20% 보다 낮은 18% 증가하였다. 비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지난달 5.9% 줄어들었으며, 이는 주로 전자제품 및 비전자제품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8.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원격통신장비 및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전자제품의 수출은 전달 13% 증가한 반면 이달 4.2% 감소하였으며, 이는 의약품 및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수출입 현황 >

(단위: 10억S\$)

구 분	'08.01	'08.02	'08.03	'08.02 대비
1. 총 무역거래	69.4	78.5	82.3	4.8%
2. 수 출	36.3	40.1	42.2	5.2%
3. 수 입	33.1	38.4	40.1	4.4%

자료: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1) 생산 동향

- 싱가포르의 3월 제조업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하였다. 이는 생물의학제조 부문(98.1%) 및 운송공학기술부문(6.7%)의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학제품(3.0%), 일반제조산업(3.8%), 전자제품(4.1%), 정밀공학부문(6.1%)의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2) 물가 동향

- 3월 제조업 생산가격지수와 국내도매가격지수는 주로 원유가격의 인상으로 각각 1.6%, 1.5%로 증가하였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 감소하였다.

구분	가중치	분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07.03	'08.02	'08.03	'08.03/'08.02	'08.03/'07.03
전체	100	101.7	108.6	108.5	-0.1	6.7
식품	23	103.8	111.9	111.7	-0.2	7.6
의류	4	102.8	102.5	104.0	1.4	1.2
주거	21	103.2	111.2	111.6	-0.7	8.1
교통통신	22	94.4	102.2	101.9	-0.2	7.9
교육	8	104.9	108.9	108.8	-0.1	3.7
건강	5	102.7	110.1	110.1	0.1	7.3
기타	17	104.1	108.1	108.9	0.7	4.6

나. 말레이시아 경제동향

- 말레이시아의 2008년 3월 총 무역액은 RM952억불로 전년대비 4.1%성장하였으며, 이 가운데 총 수출액은 RM516억불로 전년동월대비 5.3% 성장하였으며, 수입액은 RM436억불로 2.6%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RM63억불로 지난해 RM81억불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싱가포르(RM75억), 태국(RM25억), 인도네시아(RM17억)로 집계되었다.
- 말레이시아의 3월 제조업 생산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제조산업(3.7%), 광산부문(1.8%)에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7.8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품목으로는 의류와 신발류(-0.7%) 및 커뮤니케이션(-0.7%)을 제외한 제품으로 식품음료(4.4%), 주택, 전기, 가스(1.3%), 운송(0.9%) 등이 있다.
-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07.9로 지난달과 동일하였으며, 이 가운데 증가 품목은

생강(7.3%), 컬리플라워(6.6%) 등이며, 감소 품목은 수박(-10.7%), 오이(-9.5%), 토마토(-7.9%) 등이다

다. 태국 경제동향

- 2008년 3월 전체무역규모는 민간소비 및 투자와 국내 수요의 증대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1%, 31.2% 성장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주로 에너지부문 및 식품원가의 상승으로 5.3% 증가하였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품의 물가인상으로 11.1% 증가하였다.

2. 국가별 시장여건

가. 싱가포르

○ 이탈리아 모짜렐라 치즈 싱가포르에서 판매금지

이탈리아 모짜렐라 치즈의 안전성을 유럽연합측에서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중국은 이태리 치즈의 수입을 금지조치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이미 시장으로부터의 치즈 리콜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이태리농업협회 Coldiretti는 중국이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발생 했을때 수입금지를 시킨 적이 한번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 싱가포르 쌀값 폭등세

현재 싱가포르는 쌀 공급 부족사태에 놓여 있다. 국제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자 아시아 개도국들이 쌀 부족 사태에 대비하려고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쌀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쌀 공급국가인 태국 또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싱가포르는 쌀 수입 계약을 명확화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제 쌀 표준시세인 태국산 쌀 (중간품질) 가격은 지난 달 27일 하루에만 30%급등해 톤당 760달러에 거래되었다. 이는 올 1월초 (톤당 380달러) 보다 두배 비싸진 것이다.

최근 6개월 동안 밀 국제 가격이 124% 오른 것만을 포함해 콩 (75%), 옥수수 (59%),등도 50% 이상 치솟았다. 쌀 가격이 호가로 치솟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 필리핀과 태국 농가에서는 쌀 가격이 더 높이 오를 것을 겨냥해 사재기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정부에서는 사재기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가격을 올리는 등의 불법적

인 거래를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싱가포르 여러 슈퍼마켓은 쌀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어 NTUC Fair Price는 자체브랜드의 쌀 가격을 10-20%까지 상승시켜 50%의 판매율을 기록했지만 재고량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공급될 쌀은 현재 충분하며 쌀 사재기를 하면 할 수록 더욱 쌀 가격은 인상할 것이라고 하며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나. 인도네시아

○ 수마트라 지역에서 파인애플 주스마시고 23명 사망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주민 23명이 파인애플 주스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제조업체로부터 7천병의 제품을 수거했으며, 잠비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그리고 가게 주인들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주에 걸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동안에도 파인애플 주스는 생산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스는 몇 년에 걸쳐 생산이 되어 오던 제품으로 1%미만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것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고자들이 음료에 다른 것을 섞어 마셔 발생했는지의 유무도 조사하고 있다.

다. 베트남

○ 베트남 캐슈넛 생산량 감소

베트남의 캐슈넛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하여 2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좋지 않은 날씨가 주원인으로 2007년도의 350,000 생산량에서 이번 해는 270,000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베트남은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캐슈넛 수입협정을 이미 체결하였다.

○ 독일 유제품사 베트남에 공장 설립

독일의 유제품사 Friesland Foods Dutch Lady 는 베트남 하남에 공장을 오픈하였다. 58000스퀘어미터 사이즈로 우유제품, 요플레 음료 제품과 더불어 분유제품 공장도 함께 갖춰져 있다. 하루 생산 능력은 현재 유제품 200백만 킬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으며 현지 지역에 200개의 일자리수를 창출하였다.

라. 태국

○ 산미구엘 태국에서 주스원액시장 넓히기로

산미구엘사가 태국에서 과일주스 생산라인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회사인 산미구엘사는 태국 원액주스 시장이 매력적이다 라평가하면서, 마켓분석 자료에 따른 2008년도 150백만 바트 가치의 태국 원액 주스 시장분석을 예로 언급하였다. 산 미구엘사는 이미 SunBlest와 Oops!Mocktail 이라는 음료를 시판하고 있으며, 이번에 원액주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기존 제품 홍보와 새 신상품 판매업자를 찾는 등 강력한 마케팅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태국정부 국내쌀값 안정위해 비축미 방출

세계 쌀 생산 및 수출 1위국인 태국이 국제쌀값 상승에 따라 덩달아 오르고 있는 국내 쌀값의 안정을 위해 비축미를 방출하기로 했다. 밍크완 상수완 상무장관은 28일 비축미 방출을 위해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200만t의 비축미 가운데 얼마만큼 방출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비축미 방출 결정은 쌀값이 너무 오르는 것을 막고 쌀 유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쌀값이 안정되면 농가에서 쌀을 수매해 비축 물량을 다시 채우겠다"고 말했다.

밍크완 장관은 특히 태국은 쌀 공급난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 쌀 수출 목표량인 900만t을 채울 계획이라고 재차 공언했다. 그는 "태국은 쌀 수출 문호를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며 "작년과 같은 양을 올해 수출할 방침이지만 남는 양이 있으면 더 수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내 쌀값 상승은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제시세의 영향으로 쌀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사재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현 추수기(4~6월)에 600만t의 햅쌀이 시장에 새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쌀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산(産) 중질미의 수출가는 지난주 t당 1천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4일 태국 내 5개 쌀 무역회사의 수출가를 조사한 결과 국제시세의 기준이 되는 B급 백미의 경우 본선인도(本船引渡) 가격이 t당 1천~1천8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일주일 전 수출가(t당 950달러)에 비해 최고 13%, 연초(383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2.8배가 오른 가격이다.

마. 필리핀

○ 필리핀 정부 캔 제품 시장에 주목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생필품 가격에 주시를 하면서 갑작스런 가격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 변화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캔 제품의 가격 상승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필리핀 캔 제품 제조협회에서는 쇠고기 캔 제품, 정어리 캔제품 등에 사용되는 일반 캔의 가격을 35센트에서 40센트 페소 증가한 3.35 - 3.4 페소로 올렸다. 이러한 캔 용품의 가격 상승은 캔 제품 가격 형성에 20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 기타

○ 뉴질랜드 식료품 가격 1년사이에 28% 올라

뉴질랜드 슈퍼마켓의 식료품 가격이 지난 1년 사이에 2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26일 밝혔다. 신문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전 세계적인 식품 위기로 인해 슈퍼마켓에서 파는 모든 식료품들의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소비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낙농제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장바구니 물가가 1년 전 보다 28.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곡물과 식용유의 국제가격을 보면 옥수수, 밀, 식용유 등이 각각 48%, 76%,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주요 식료품 가격들이 금년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육업계는 일부 지역에서는 닭고기의 경우 25% 올랐고, 돼지고기는 10~15%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한 빵 제조업체는 밀이 가장 비싼 곡물이 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빵 가격도 금년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럴드는 유가 상승으로 생선을 비롯해 과일과 채소 값도 모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특히 낙농제품의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의 상승 요인도 적지 않지만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중산층들의 급증하는 수요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 쌀값 하루새 30% 폭등..아시아 폭동 우려"

국제 쌀값이 27일 하루만에 30%나 폭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폭동 등 사회불안이 우려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국제 쌀값의 기준상품인 태국산 쌀값은 t당 580달러(약 57만원)에서 760달러(약 75만원)로 급등했다.

톤당 380달러(약 37만원) 수준이었던 지난 1월과 비교해봐도 2개월 사이에 두 배나 났 것이다. 이날 쌀값 폭등은 이집트가 26일 국내 쌀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달부터 쌀 수출을 잠정 중단기로 하고,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인 필리핀이 국내 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과 태국 등에 50만t을 긴급 판매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핀은 공급 부족분 180만~210만t의 쌀을 수입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또 소규모 쌀 수출국인 캄보디아도 이날 쌀 수출 중단 조치를 발표해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 게다가 세계 2,3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도 이미 쌀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국제 쌀 시장의 거래량은 30%나 줄어든 상황. 태국 쌀수출 협회의 초키앗 오파스웅세 대표는 앞으로 쌀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자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 80%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쌀밥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비상 조치가 단행됐으며, 곡물가 폭등으로 식량 위기를 맞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감자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문은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미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요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쌀가격은 곡물 수급 위기 속에 최근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제 쌀 재고량은 1976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 전 세계 쌀 가격 계속 오름세

전 세계 쌀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조달청 측이 국내 쌀 자급자족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벼 수확량의 대부분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도 정부 구매 쌀 비축의 경우 약 250만톤에서 300만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달청장 아브바까르씨는

국내 쌀 공급의 안정과 더불어 쌀 가격의 안정을 고정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내의 쌀 값 고공행진을 감안 국내 쌀 사전 안전대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조달청측은 쌀 수출을 적극 자제하고 국내 쌀 자급자족을 위해서라도 국내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벼 수매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국내 쌀 공급 물량에 대한 적지 않은 파장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림부장관과 조달청장은 성명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내의 벼 생산 수확 확대화를 위하여 각 지역내의 기존의 휴무지 그리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관개수로 시설과 각종 인프라 시설의 확장을 통하여 국내 쌀 자급자족 그리고 차후에는 인도네시아가 쌀 수출국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도 농가 벼싯재배 지원 계획

인도 농림부가 날씨, 풍부한 재료와 인력, 다양한 벼싯종류가 각 지역에서 연간 계속적으로 재배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인도는 벼싯 경작에 좋은 재배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인도는 매년 10만톤의 벼싯을 생산하고 있다. 두 정부의 보조 정책(two government-sponsored schemes)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원예작물 생산에 주력을 하는 것으로 북동지역과 히말라야지역을 위한 국립원예전담과 원예기술전담으로 명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수급은 물론 수출을 위하여 벼싯을 포함한 원예작물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 인도 콩과 과일을 믹스한 쥬스 판매시작

RUCHI Soya of India 사는 방부제 첨가가 되지 않은 콩과 과일을 믹스한 쥬스 시판에 들어갔다. N-rich라 명명된 이 음료는 비타민, 미네랄, 노화방지제가 풍부한 단백질 음료라고 밝혔다. 세 가지 맛으로 애플&키위, 사과&복숭아, 그리고 혼합과일 맛이 있다.

○ 호주 아몬드 밀크 판매 시작

호주의 순수 자연, 오가닉 제품을 취급하는 Pureharvest사는 아몬드로 만든 오가닉 우유를 시판하기 시작했다. 이 제품은 콜레스테롤, 락토오스, 글루텐, 설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불포화지방 함유가 높다. 호주의 슈퍼마켓과 건강식품 취급가게에서 1 리터짜리 구입이 가능하며, 이미 뉴질랜드, 중국 남동부 지역과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 스리랑카 캐슈넛 생산 늘리기로

스리랑카의 개발 기관 (Board of Investment)은 Kilam's Impex (Private) Limited사와 협정서에 싸인하였다. Nipayum Sri Lanka 300 Enterprises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공급 및 해외수출을 위하여 캐슈넛 생산을 늘리는데 주목적이 있다. 투자처는 경작지를 늘리기에 앞서 Wayamba 지방에서 생산되는 캐슈넛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용 생산은 이번해 6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며, 하루 350kg의 캐슈넛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질랜드 식탁도 중국산 식품으로 채워지고 있다

뉴질랜드 각 가정의 식탁들도 빠른 속도로 중국산 과일과 채소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지난 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은 1년 전에 비해 1천200만 달러어치가 늘어나 6천300만 달러상당에 이르렀다. 뉴질랜드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마늘(300만 달러 상당)과 배(67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냉동이나 통조림으로 들어온 야채와 과일은 각각 1천500만 달러와 3천만 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과일 주스도 1천300만 달러어치나 된다. 뉴질랜드 과일채소 재배업자 협회는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중국산 농산물의 종류와 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놀라울 따름이라며 뉴질랜드 생산업자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회의 피터 실코크 회장은 "1년에 1천200만 달러가 늘었다는 건 무려 25% 증가의 급성장"이라면서 "이는 점점 더 많은 중국산 농산물들이 싼값으로 뉴질랜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뉴질랜드 농산물 생산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냉동 야채 믹스로 630만 달러 상당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냉동 완두콩, 옥수수, 시금치, 콩, 토마토 등 다양한 종류가 모두 망라돼 있다.

뉴질랜드 식품 가공회사 '왜티'의 폴 험슬리 대변인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가격으로 식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단순히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없어 키우지 않는 것, 계절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작물 등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질랜드 유가, 식료품값 상승 “못살아”

최근 휘발유 가격이 2달러 가까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가격도 꺾충 뛰어올라 뉴질랜드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 일반 가정에서 구매한 9가지의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3월 달 30.82달러에서 올해 3월 38.58달러로 25%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된 식료품은 치즈로 마일드 체다 치즈는 지난해 1kg당 6.46달러에서 올해 3월 10.69달러로 상승했고, 버터와 우유 값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웰링턴 지역의 식료품 인상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파게티 통조림, 참치 통조림 그리고 사과 가격은 지난해 3월에 비해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컬런 재정부 장관도 최근 식료품의 인상은 현재 전 세계의 경제적 문제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 캄보디아 “물가 너무 올라 못살겠다” 줄시위

최근 쌀 등 생필품 값 폭등으로 삶이 어려워진 캄보디아 서민들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보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고 7일 현지 신문 캄보디아 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 섬유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요구시위를 벌인데 이어 6일에는 캄보디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야당인 삼랭시당이 주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날 약 500명의 시위대는 “임금을 인상해라”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켜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행진을 했다. 캄보디아는 최근 3-4년간 10%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는 인플레이 역시 11%를 기록해 실질적인 성장효과가 없어졌다는 야당의 비난을 듣고 있다. 특히 쌀 등 생필품 가격이 올들어 40%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돼 1천 400만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 50센트 이하로 살아가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인플레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쌀 수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인플레이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고민중이다.

○ 호주 아몬드 인도에서 판매량 급상승

호주 아몬드가 인도에서 3년간 230만불의 판매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작년 한 해만 40% 증가하여 80만불 증가액을 보였다. 호주 원예작물 수출협회에 따르면 인도로 수출되는 통아몬드의 가치도 2003년도 460만불에서 2007년도 2800만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였다.

3.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가. 국가별 농산물 수출실적(2008년 3월 전년대비)

(단위 : 톤, U\$천불)

구분	2007년 3월		2008년 3월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47,658	46,422	44,543	56,643	-7	22
인도네시아	14,292	13,546	19,345	18,742	35	38
베트남	4,649	8,219	6,253	12,173	35	48
필리핀	16,720	10,722	9,346	9,485	-44	-12
싱가포르	3,837	5,582	3,728	7,608	-3	36
말레이시아	3,317	3,743	2,727	4,719	-17	26
태국	4,844	4,612	3,142	3,914	-35	-15

나. 싱가포르의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 톤, S\$천불)

품 목	총 수입실적		한국산 수입실적		기타 국별 수입실적 (08.03)			
	'07.03	'08.03	'07.03	'08.03				
건 굴	0 (959)	0 (727)	0 (474)	0 (534)	한국 0	홍콩 0	중국 0	기타 0
인 삼	12 (3,694)	6 (2,547)	1 (649)	2 (363)	한국 2	중국 1	말련 1	기타 0
신선딸기	0 (3,299)	1 (4,532)	0 (1,133)	0 (1,638)	한국 0	미국 0	이집트 0	기타 0
냉동만두	7,236 (13,674)	5,933 (11,120)	50 (176)	33 (88)	말련 5,346	미국 125	중국 102	기타 359
옥수수전분	1 (502)	1 (667)	0 (175)	0 (75)	중국 1	한국 0	말련 0	기타 0
라 면 류	3,279 (8,894)	3,364 (9,629)	141 (581)	199 (831)	말련 1,595	중국 376	홍콩 397	기타 996
비 스 켓	2,660 (10,450)	3,009 (12,175)	7 (77)	11 (84)	말련 1,466	중국 614	미국 204	기타 725
기 타 가공식품	14,622 (52,008)	13,950 (46,202)	1,286 (2,525)	720 (1,632)	인니 6,644	미국 452	중국 2,196	기타 3,657

(자료 : IE SINGAPORE)

《건굴》

- ('07.03) S\$474천불 → ('08.03)S\$534천불
 - S\$60천불 (13%) 증가
- 전년에 이어 한국산 건굴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3월 현재 전체 시장의 90%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홍콩의 수출실적은 2008년 3월 전년대비 약 40%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인삼》

- ('07.03) S\$649천불 → ('08.03)S\$363천불
 - S\$286(44%) 감소
- 싱가포르의 전체 인삼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한국산 인삼 수입 또한 전년동월대비 40% 이상 감소하였음.
 - 전체 인삼 수입 물량 3톤에서 인삼뿌리의 수입량이 2톤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인삼 제품이 1톤을 차지함. 제품 중 인삼 파우더류는 집계에 잡히지 않음.

《신선딸기》

- ('07.03) S\$1,133천불 → ('08.03)S\$1,638천불
 - S\$505천불(45%) 증가
- 한국산 딸기가 전체 시장의 36% 차지하며, 그 다음이 미국, 이집트 순임. 지난해 한국산 딸기 프로모션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품질 및 맛이 뛰어남을 인지시켰으며, 금년 딸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5%로 큰 성과를 보였음. 앞으로도 계속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냉동만두》

- ('07.03) S\$176천불 → ('08.03)S\$88천불
 - S\$88천불(50%) 감소
- '05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산 냉동만두는 수입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금년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하였음.
-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한국산 냉동만두는 야채만두이고 고기가 포함되는 만두는 육류수입 허가가 필요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음.

《옥수수전분》

- ('07.03)S\$175천불 → ('08.03)S\$75천불
 - S\$100천불(57%) 감소

- 싱가포르 옥수수전분 시장규모는 중국산이 전체 시장 규모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한국산, 말레이시아산임. 한국산은 중국산 전분수입이 증가하면서 2006년부터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라 면》

- ('07.03) S\$581천불 → ('08.03) S\$831천불
- S\$250천불(43%) 증가
- 전년 동월대비 한국산 라면은 43% 증가세를 나타냄.
- 싱가포르 인스턴트 면류시장은 말레이시아가 전체 시장을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중국, 홍콩이 뒤 따르고 있다. 한국산 면류는 2005년부터 15%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2005년 이래 매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태국, 홍콩으로부터 면류 수입이 증, 감을 거듭하고 있음.

《기타 가공식품》

- ('07.03) S\$2,525천불 → ('08.03) S\$1,632천불
- S\$893천불(35%)감소
- 한국산 기타가공식품의 수입 규모는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4-5% 대를 유지하고 있음.

4. 현장정보 (싱가포르 소매시장 현황정보)

가. 4월 1일 싱가포르 과일 야채시장 동향

1) 과일 (싱가포르 달러 기준)

- 새로운 제품이 많이 선보였으며 가격 또한 변동이 큰 한주였다. 남아공산 Peckhem 배가 5개 S\$2.35, 뉴질랜드산 설탕배가 1kg에 S\$5.3, 이태리산 오렌지가 5개 S\$1.55로 선보였다. 또한 남아공산 흑, 적포도 및 호주산 Autumn Royal 포도가 각각 500g에 S\$3.2, S\$3.35 및 100g에 S\$0.79로 선보였다. 중국산 Nam Shui배는 지난주 개당 S\$2.05에 판매되었으나 이번주 2개 S\$2.99로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산 후지사과는 5개 S\$2.55에서 S\$2.65로 약 4%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2) 야채

- 말레이시아산 토마토가 100g당 S\$0.17로, 미국산 셀러리와 말레이시아산 셀러리는 한팩에 각각 S\$1.4, S\$0.65로 지난주에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했다. 중국산 시금치가 한팩에 S\$1.3, 중국산 레몬이 5개 S\$1.95로 새로이 선보였으며, 태국산 옥수수가 재고부족으로 판매되지 않았다. 태국산 미니토마토는 500g에 S\$1.7에서 S\$1.95로 상향조정되었다.

나. 4월 8일 싱가포르 과일 야채시장 동향

1) 과일

- 남아공산 Peckhem 배가 5개 S\$2.35에서 1.55로 34% 가격 인하율을 보인 반면 남아공산 로알갈라 사과는 5개 1.65에서 1.95, 중국산 나발오렌지는 5개 1.55에서 1.85로 인상되었다. 말레이시아산 붉은수박이 한통에 2.5로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하였으며, 황색수박이 한통에 2.8로 새로이 선보였다. 미국산 딸기는 454g당 S\$5.9로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했다.

2) 야채

- 중국산 배추가 100g에 S\$0.13에서 S\$0.15, 말레이시아산 토마토가 100g에 S\$0.15에서 S\$0.17로 인상되었다. 말레이시아산 애호박이 100g에 S\$0.2로 새로이 선보였다. 말레이시아산 상추는 지난주 500g에 S\$2.5로 판매되었으나 이번주 재고부족으로 선보이지 않은 반면, 미국산 상추는 지난주 한팩에 S\$1.5에서 S\$1.45로 인하된 가격에 판매되었다.

다. 4월 15일 싱가포르 과일 야채시장 동향

1) 과일

- 중국, 남아공 및 뉴질랜드산의 다양한 종의 배를 맛볼수 있는 한주였다. 중국산 Fragrant, Gong배가 각각 100g에 S\$0.28, S\$0.18, Ya배가 6개당 S\$1.3에, 남아공산 Peckhem배는 5개 S\$1.65로 지난주 S\$1.55에 비해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었으며 뉴질랜드산 설탕배가 100g에 S\$0.55로 새로이 선보였다. 호주산 유기농 및 일반 크림슨 시들리스 포도가 각각 500g에 S\$5.95 및 1kg에 S\$4.9에 선보였다.

2) 야채

- 야채가격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선을 유지한 한주였다. 중국산 배추는

100g에 S\$0.15에서 S\$0.14로 내렸으며, 말레이시아산 파프리카가 그린, 레드, 옐로우 각각 S\$0.43, S\$0.51, S\$0.51로 지난주와 비슷한 가격선을 유지했다. 중국산 양배추 또한 100g에 S\$0.14로 가격변동이 없었다.

라. 4월 22일 싱가포르 과일 야채시장 동향

1) 과일

- 이태리산 유기농 키위는 재고부족으로 판매되지 않았으며 프랑스산 키위는 5개 S\$3.3에서 S\$2.95로 내린 가격에 판매되었다. 뉴질랜드 설탕배가 킬로그램당 S\$5.9, 중국산 남수배가 4개당 S\$3.9로 새로이 선보였다. 남아공산 적자두, 황자두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은 반면, 호주산 설탕자두는 100g에 S\$0.65로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했다.

2) 야채

-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주와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했다. 뉴질랜드 설탕배가 100g당 S\$0.55에서 S\$0.59, 남아공산 로알갈라 사과가 지난주 5개 S\$1.65에서 S\$1.95로 인상되었다. 말레이시아산 그린, 레드, 옐로우 파프리카 각각 S\$0.41, S\$0.53, S\$0.51로 지난주와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으며 남아공산 자두는 재고 부족으로 더 이상 선보이지 않았다.

유 럽

농산물 해외시장동향(모스크바)

1. 러시아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 지표별 동향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증감율 %)

지표(단위)	2008년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GDP (십억루블)	N/A	8.0
산업생산 (십억루블)	N/A	6.2
고정자본투자 (십억루블)	1,295.9	20.2
농업생산 (십억루블)	252.2	4.5
상품소매유통 (십억루블)	2,899.3	16.7
수출 (십억불)	108.1	50.7
수입 (십억불)	60.7	41.8
명목소득 (만루블)	15,508	30.6
실질소득증가율	-	10.0
실업자수 (백만명)	4.8	-5.5
공식등록실업자수 (백만명)	1.5	-10.3
소비자물가상승률	-	4.8

자료원 : 러연방 경제발전통상부, 러연방 통계위원회)

- 1월에 주춤하던 경제발전속도가 2~3월에 상승됨에 따라 '08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8.0%를 기록했다.('07년 1/4분기 7.4%). 이는 소비와 투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공업의 촉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산업생산은 6.2% 상승했고, 고정자산 투자도 20.2% 상승했음. 건설물량은 128.9%, 소매 거래량은 16.7%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물가도 각각 13.3%, 27.4% 상승했다.
- 수출은 국제석유가격의 상승에 따라 작년 1.4분기에 비해 54.2% 상승하였고 수입도 투자와 소비 증가, 달러화 표시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41.8% 증가했다.

나. 2008년도 한국-러시아 교역 동향

<2008년 1-3월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입 추이>

(단위 : 천불)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월	678,835	34.3	943,877	80.5	-265,042
2월	1,457,837	48.7	1,388,388	52.3	69,449
3월	2,341,040	55.3	1,966,847	32.6	374,193

자료원 : KOTIS

다. 러시아 2008년 주요비즈니스 환경변화

- 러시아,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절차법 발효
 - 푸틴 대통령은 5.5(월)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절차법에 서명하였다.
 - 상기 법의 주요 내용은 42개 전략산업(주요광물 개발 포함)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일정규모 이상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발효 이후 체결되는 모든 외국인투자는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외국인투자 승인 위원회는 9월경에나 활동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법 적용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지체가 예상된다.
 -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동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분야에서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되어 있다.
- 메드베제프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
 - 신임 러시아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행정규제의 철폐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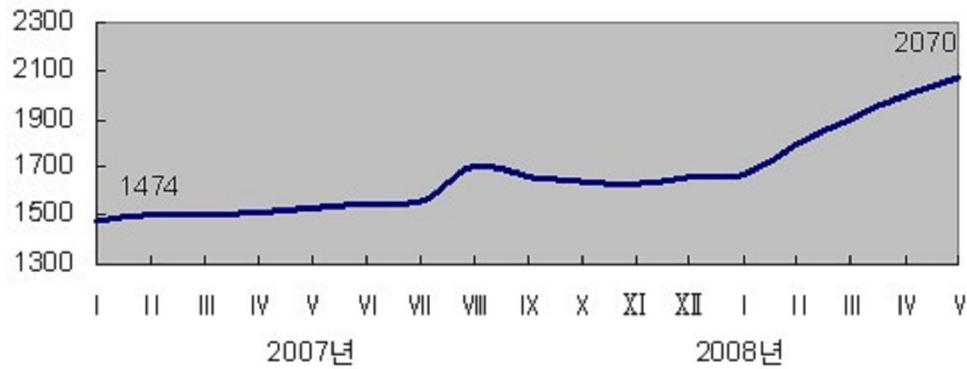
- 중소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행정규제를 철폐하는 데 있어 특히 경찰, 국세청 및 유관 기관들의 자의적인 기업조사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검찰의 승인 없는 비정규적인 조사는 금지되었고, 정기조사는 3년에 1회 미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각종 인허가 문서 종류를 줄이고, 가급적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 공장 및 사무공간의 장기 저가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전력선 설치·공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며, 관련 조치를 오는 9월 1일까지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
- 러시아, 휴대폰 부품 수입관세 철폐 예정
- 5월 5일 개최된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산하 대외무역보호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대폰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면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주방용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항공기 제작에 들어가는 부품품 등의 관세철폐, 가구용 판넬, 페인트와 니스, PC 조립용 부품품, 전등 관세인하 방안도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품목과 HS Code는 공개되지 않았다.
 - 관세 면제 또는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가 남아 있어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부품품 관세인하를 하게 될 경우 러시아 내 휴대폰과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러시아 시장점유 확대유지를 위해서는 현지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기·가스, 철도, 전화, 주택 서비스에 관한 요금인상
- 전기료는 '08년 16.7%, '09년 26%, '10년 22%, '11년 18%씩 상승될 예정이다.
 - 가스비는 '08년과 '09년에 25%씩, '10년 30%, '11년 40% 상승될 예정이다.
 - 러시아철도는 6월 1일부터 8% 상승된 화물 운송 요금 적용(작년 평균 대비 16.3% 인상)된다. '09년 1월 1일부터 철도 화물운송요금은 12.5-14% 인상될 예정이고, '10년에는 9.7-13.7%, '11년에는 10-14%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전화요금은 '09년 7.5%, '10년과 '11년에는 6%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라.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무서운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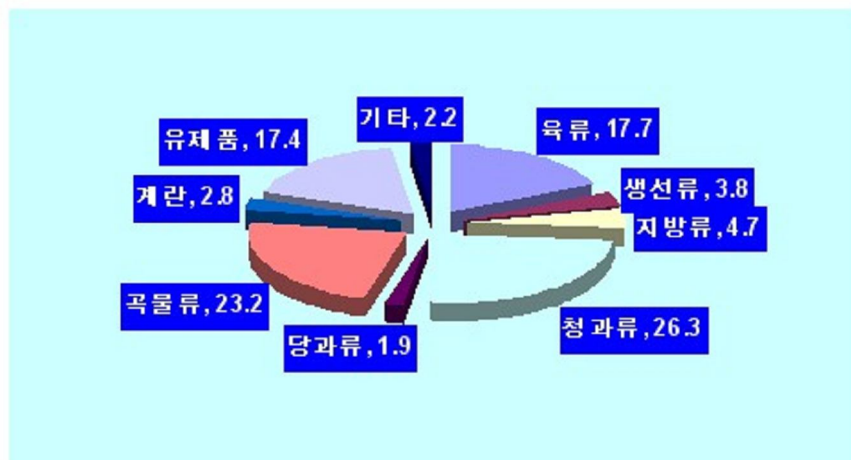
- 러시아 연방 통계청은 '08년 1/4분기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07년 4/4분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식료품은 23.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부의 연초 예상과 달리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Argument and Fact'지가 밝혔다.

- '07년 1/4분기 1인당 기초식료품 지출이 1,474루블이었으나, 2008년 1사분기에는 2,070루블로 크게 상승했다.

<'07-08년 5월까지의 1인당 기초식료품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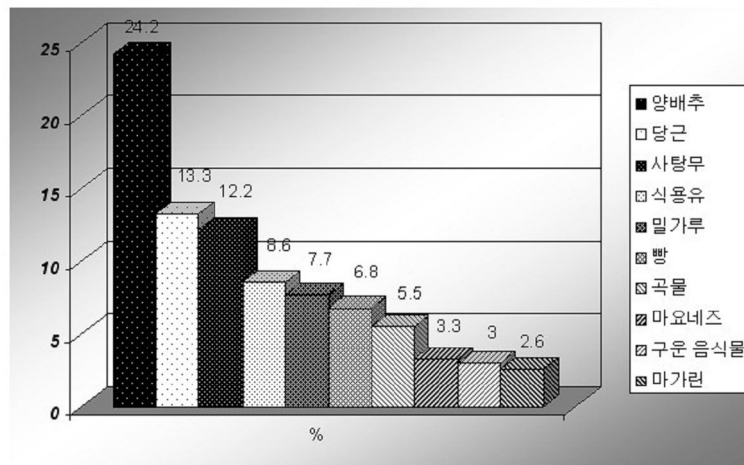


< 러시아 국민의 주요 식료품 소비 비율 >



- 러시아 통계청에 따른 러시아인의 평균 식료품 소비 패턴으로는 청과류가 2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육류·유제품류가 차지했다. 러시아인의 주식인 곡물류는 계속된 세계 밀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가 둔화됐다.

<2008년 5월기준 연초 대비 품목별 식료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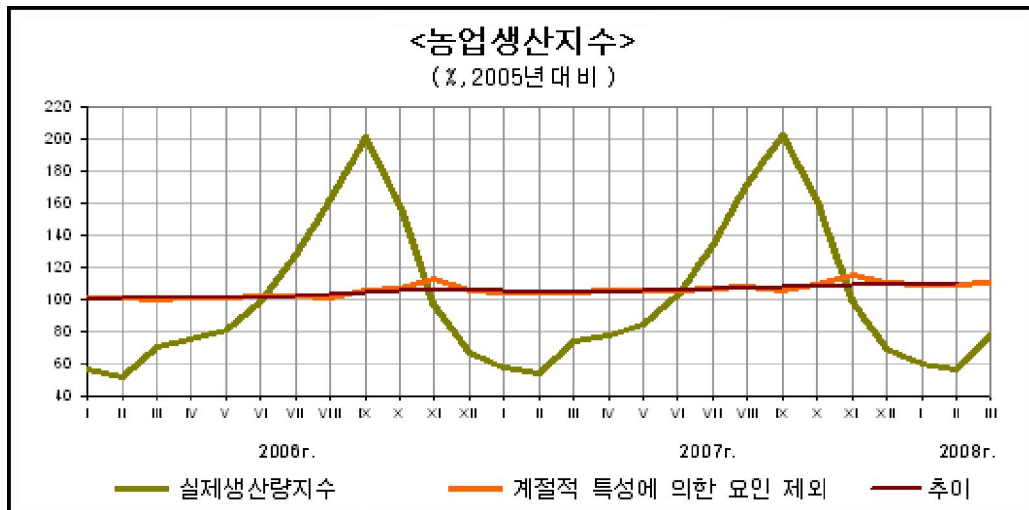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 이러한 물가 상승과 맞물려 전시회·박람회의 성황으로 호텔·차량·식당 등의 가격도 예년의 2배 수준을 맴돌고 있다.
 - 소비생활이 커져 1인당 100달러가 넘는 일식집은 예약하지 않으면 식사하기 힘들 정도이며, 3성 호텔의 숙박료도 1박에 300달러 이상이다.
- 러시아인의 82%가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사실상 연초에 가스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체감 물가상승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이러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대량의 외화 유입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의 소득과 함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또한, 최근 세계적인 곡물가격과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부족현상, 물가를 동결했던 정부 정책이 푸틴 대통령 말기에 정책이 풀리면서 물가가 급상승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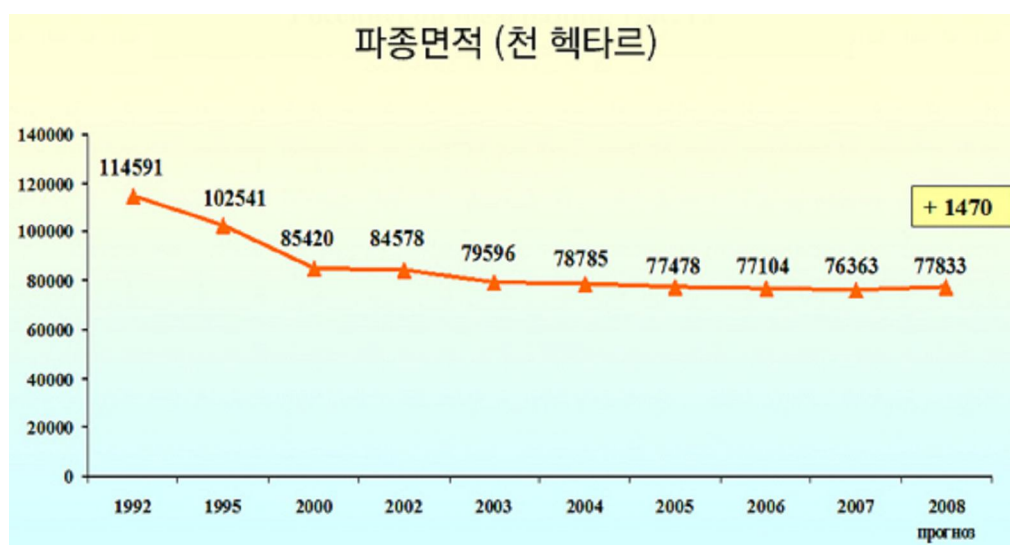
2. 러시아 농식품 생산동향

- 2008년 1/4분기 농업생산 금액은 2,522억 루블로 집계되었다



- 러시아농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금년도의 봄작물 수확을 위한 파종 예상비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더 많은 38%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봄작물의 파종면적은 5월 3일 현재 1,170만 헥타르이다.

<2008년 예상 파종 면적>



<축산물 생산동향>

구 분	2008. 3월 백만 톤	%, 대비		2008년 1/4분기 (2007년 1/4분기 % 대비)
		2007. 3월	2008. 2월	
가축, 가금류	0.7	108.2	105.6	108.9
우유	2.3	101.2	118.3	102.1
계란(백만개)	3.0	96.8	111.3	97.7

자료원 : 러연방 통계위원회

- ‘08년 3월 말, 소의 수는 2,240만 마리(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이 중 암소는 940만 마리(1.0% 감소), 돼지 1,690만 마리(0.5% 증가), 양·염소 2,220만 마리(7.2% 증가)로 집계되었다.
 - 이 중 개인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비중이 소 47.2%, 돼지 41.7%, 양·염소 52.3%로 나타났다.
- ‘08년 1/4분기 가축, 가금류 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거의 9% 가까이 증가하였고 우유는 2% 증가한 반면, 계란은 감소하였다.
- ‘08년 1월부터 노보시비리스크에서 16만 5천톤 우유 생산
 - ‘08년 1월부터 노보시비리스크에서 현재까지 생산된 우유의 양은 16만 5천톤으로 이것은 작년에 비해 11% 증가한 양이다. 노보시비리스크에서 우유 생산량은 매일 100톤씩 늘고 있으며 크라스나제르스키, 바간스키, 쿠파스키, 차노브스키, 바라빈스키 지역에서 대부분의 양이 생산되고 있다.

3. 러시아 식품 수출입동향

가. 러시아 식품 수출입동향

<2008년 1-3월 러시아 주요 식품수입현황>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품 목	2008년 1-3월		2008년 1-3월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식품 전체	-	5,557.3	-	6,870.0
육류(신선, 냉동)	251.5	621.6	301.0	778.9
닭고기류(신선, 냉동)	228.8	171.2	236.9	201.7
생선류(신선, 냉동)	228.6	330.9	237.2	371.9
우유 및 크림	0.5	1.6	8.3	27.5
버터	28.9	51.9	27.8	80.5
감귤류	443.3	294.5	430.8	300.2
커피	14.8	36.5	16.4	47.3
차류	43.9	98.9	46.4	127.2
곡물	-	67.0	-	141.4
밀	127.2	17.5	61.2	16.0
보리	51.6	11.7	40.3	17.7
옥수수	23.0	25.5	53.8	63.0
해바라기씨유	21.2	19.5	35.1	53.5
육가공식품	6.5	18.3	8.0	27.9
설탕원료	1,039.6	338.3	77.3	29.3
백설탕	24.6	11.8	15.5	6.4
카카오 열매	14.8	29.3	12.9	27.9
카카오 함유 제품	30.1	89.8	30.1	111.7
알콜, 무알콜 음료	-	448.7	-	495.5
담배	-	14.0	-	37.5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2008년 1-3월 러시아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6.8% 증가했다.
 - 2008년 1/4분기 러시아 식품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13.2%를 차지하였다.
 - 육류수입량은 21.5%(쇠고기 5.7%, 돼지고기 39.2%), 야채 63.0%, 버터 13.6% 증가하였다. 유제품과 옥수수도 각각 2.2배씩 증가하였다.
 - 감귤류와 설탕원료는 각각 3.2%, 92.5%씩 감소하였다.
- 2008년 1-3월 러시아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52.9% 증가했다.
 - 2008년 1/4분기 식품수출은 0.7% 증가(작년 1-3월 1.3%)했다. 우유 및 유지류는 64% 증가했고 치즈와 뜨보락 70.6% 증가했다.
 - 밀 수출량은 45.1%, 보리 99.2%, 생선 35.9% 씩 감소했다.
- 러시아, 감자 수출물량 증가
 - 2008년도에 작년보다 수출이 많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작년 러시아 감자수입량 31% 하락, 감자수출량 73% 증가).
 - CIS 국가들에서 감자 만생종의 재배가 특히, 중앙아시아, 카프카스지역에서는 어렵고, 날씨와 기온 등으로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 보관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 현재 러시아산 감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젠으로 이들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량은 작년도 러시아 전체 수출물량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 러시아 20% 이상 육류 수입 증가
 - 러시아 1/4분기 육류 수입이 3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하여 21.5%가 증가한 양이다. 이중 쇠고기가 5.7%, 돼지고기가 3.2% 증가하였으며, 가금류는 236.9천톤(금액상으로는 201.7백만달러)이 금년 3월까지 수입되었는데, 가금류의 작년 동기간의 수입실적은 247.9천톤(금액상으로는 151백만달러)이었다.
 -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미국 유럽 지역으로 특히 호주산 수입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1/4분기 수입량이 작년 동기 대비 30배나 증가하였다.

나. 한국식품 수입현황

<한국식품 수입현황>

품명	2007년 1-4월		2008년 1-4월		대비(%)	
	물량(kg)	금액(USD)	물량(kg)	금액(USD)	물량	금액
합 계	27,987,513	56,509,161	35,504,971	80,996,014	27	43
커피조제품	5,332,716	15,299,220	6,148,557	18,080,019	15	18
권련	838,123	9,427,580	1,437,270	17,184,554	72	82
마요네스	5,648,570	8,531,129	6,737,393	11,712,770	19	37
우유조제품	875,908	1,244,128	3,261,542	5,148,617	272	314
로알제리	1,091,868	1,490,038	2,218,405	3,740,014	103	151
물	3,590,375	2,501,873	4,249,858	3,018,696	18	21
육류수우프	732,608	2,544,438	803,809	2,673,235	10	5
곡류조제품	746,148	2,699,254	623,180	2,439,398	-17	-10
단일과실조제품	2,352,686	2,044,463	2,609,924	2,326,796	11	14
라면	187,497	617,087	577,112	1,847,804	208	199
기타소오스제품	371,024	1,855,448	349,954	1,847,507	-6	0
빵	446,924	1,205,401	592,447	1,580,632	33	31
기타조제식료품	294,244	452,707	538,981	1,082,780	83	139
검	0	0	124,870	901,304	0	0
간장	771,290	649,397	795,936	705,990	3	9
감귤	174,390	202,378	1,056,200	673,640	506	233
비스킷	134,227	729,766	112,790	566,560	-16	-22
채소쥬스	137,878	137,302	630,126	554,261	357	304
혼합쥬스	0	0	6,050	365,217	0	0
기타음료	38,768	32,041	423,206	356,263	992	1,012
인스탄트면	10,760	23,339	112,000	245,522	941	952
토마토	82,795	112,967	146,592	193,345	77	71
기타장	0	0	56,093	166,261	0	0
혼합조미료	5,900	36,135	28,700	138,313	386	283
고추장	14,103	28,406	43,286	106,625	207	275
딸기	2,158	48,407	9,002	104,258	317	115
연유	12,000	18,400	51,600	102,337	330	456
과실혼합물	44,340	125,534	30,817	95,399	-31	-24
알로에조제품	0	0	11,615	95,353	0	0
된장	12,408	30,825	46,994	95,131	279	209
캔디	2,635	11,071	15,728	94,032	497	749
맥주	334,264	227,329	150,235	87,984	-55	-61
국수	28,799	44,789	38,361	62,097	33	39
김치	3,572	9,347	22,600	57,814	533	519
장미	1,114	27,060	4,491	54,206	303	100

4. 러시아 시장동향

가. 과일시장동향

◦ 사과

- 5월초 사과의 수요는 충분히 높았다. 폴란드산 Ida Red는 4월부터 꾸준히 가격이 상승되어 5월 초 kg 당 1.74 달러에 거래되었다.
- 중국산 Fuji도 4월 초 kg 당 1.62달러에 거래되었지만 가격이 꾸준히 올라 5월 초 kg 당 1.87 달러를 기록하였다.
- 유럽산 사과 중 날개로 판매되는 Golden 은 kg 당 1.80달러에 거래되었다.
- Granny의 강한 수요량에 못지않게 Red종에 대한 수요도 상당했지만 Granny가 제한되는 공급량 때문에 더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Red종은 kg 당 2.13달러, Granny는 kg 당 2.36달러를 기록했다.

◦ 배

- 배 시장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다.
- Packham은 4월 초 kg 당 1.71달러에 거래되었지만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5월 초 1.41 달러로 떨어졌다. Anjou도 하락세를 보여 kg 당 1.51달러를 기록하였다.
- Conference는 kg 당 2.13달러라는 높은 가격 때문에 시장에 출고되지 않고 있지만 수입자들은 이 배를 시장에 내놓기 위한 구상중이다.
- 중국산 Ya는 4월 초 kg 당 1.08달러에서 4월 말 kg 당 1.32달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인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포도

- 가격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포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 Thomson종은 kg 당 3.20달러(칠레산), 3.30달러(남아프리카산)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높았다.
- Red Globe는 화이트 품종 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5월 초 가격은 kg 당 2.59달러(칠레산), 2.36달러(남아프리카산)를 기록했지만 수요는 많지 않았다.

◦ 감귤(만다린)

- 파키스탄산 Kinnow는 시즌이 끝나가면서 가격과 품질 모두 계속 하락세를 보이

고 있다. 4월 초 kg 당 1.83달러에 거래되었지만 꾸준히 가격이 하락하여 5월 초에는 kg 당 0.64달러까지 떨어졌다.

- 4월 말에 시장에 처음 모습을 나타낸 아르헨티나산 Okitsu는 5월 초 kg 당 1.49달러에 거래되었다.
- 4월 말 모스크바에서는 모로코산 Afourer종의 수요가 높아져 kg 당 3.06달러라는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다.

나. 채소시장동향

- 5월 초 전체적인 채소 시장은 4월 말에 비하여 상황이 좋아졌다. 독일산 양파와 감자는 kg당 각각 0.56달러, 0.51달러를 기록했고, 이집트산 감자는 kg 당 0.70달러에 거래되었다. 양배추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수입으로 공급량이 늘어났지만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kg 당 1.22달러에 거래되었으며 강한 수요를 보였다. 당근은 품질의 문제로 인하여 가격이 그리 상승되지 않았다. 독일산 당근과 이스라엘산 당근은 각각 kg 당 0.85달러에 거래되었다. 토마토는 kg당 3.40달러에 거래되었고, 독일산 고추는 kg 당 11달러에 거래되어 두 품종 모두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 농식품 가격동향

- 기초식료품가격 4월 3.9% 상승
 - 러시아의 금년 1/4분기의 기초식료품가격이 14.9% 상승했다.
 - 러시아의 평균 기초식료품 가격은 2070.3루블로 집계되었다. 가장 가격이 높은 곳은 추코트 자치주(5,383.2루블), 캄차트카주(3,400루블), 마가단주(3,104.8루블)로 나타났다.
 - 가장 가격이 낮은 곳은 따따르스탄공화국(1,755루블), 몰도비아공화국(1,726.2루블), 따므보브주(1,776.9루블)로 나타났다.
 - 모스크바는 4월에만 2.3% 상승하였으며, 1~4월말까지의 상승률은 11.5%를 기록, 금액으로는 2,282.7루블이었다.
 - 페테르부르크는 4월에만 7.4% 상승했으며, 1~4월까지의 상승률은 17%를 기록, 금액으로는 2,255.9루블이었다.
-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곡물·밀 가격 빠르게 인상
 - 밀과 빵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소 2배 이상 인상되었다(2008년 1월부터의 인플레이션율 6.3%).
 - 밀과 빵의 가격이 가장 현저하게 상승한 곳은 페테르부르크(23.7%), 알타이지방

(19.4%)과 레닌그라드 주(19.3%)이다. 밀빵과 흑빵은 페테르부르크에서 각각 27.6%, 25.7%씩, 레닌그라드 주에서 각각 22.7%, 20.1%씩 상승하였다. 알타이 지방에서는 밀빵의 가격이 무려 24%나 상승되었다.

- 과일과 야채의 가격의 상승도 빠른 속도로 지속되고 있다. 양배추 24.2%, 당근 13.3% 무 12.2% 씩 가격이 상승된 반면에 마늘과 포도는 각각 1.4%, 5.8%씩 감소되었다. 이 외에 마가린, 비스킷, 마요네즈, 통조림, 케첩 등은 2.6-3.3% 상승하였다.

◦ 곡물 도매 가격 감소 경향

- 올해의 갑작스런 높은 수확량에 따른 곡물 저장량이 늘어남에 따라 곡물의 도매 가격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08년 총 곡물 생산량은 8700만-9100만 톤 까지 이를 것이라고 한다(2007년 8200톤).
- 6월 1일 예상되는 곡물 저장량은 작년보다 150-170만 톤 증가한 양이며, 수확 초기에 생산자들이 공급한 곡물의 양은 곡물 시장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라. 기타시장동향

◦ 러시아산 맥주 발치카, 이태리에 첫 수출

- 러시아의 발치카 맥주회사는 확장되고 있는 이태리 주류시장에 진입을 모색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 러시아 최대의 맥주회사로 페테르부르크에 본사를 둔 발치카사는 발치카맥주를 이태리에서 네브스꼬예와 야르리보 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시작한다.

◦ 러시아의 발치카사, 아제르바이젠의 맥주회사 인수예정

- 러시아 최대의 맥주회사인 발치카사는 아제르바이젠의 바꾸 카스텔 그룹이 운영하는 바깰스끼맥주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수 예정인 바깰스끼 맥주회사는 아제르바이젠 맥주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 발치카사는 과거부터 CIS지역에 맥주를 수출해 오고 있으나, 현지공장을 인수하여 직접 현지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치카사가 이 맥주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아제르바이젠 맥주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발치카사의 맥주 수출대상국은 47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인수 예정인 바깰스끼 맥주회사의 브랜드로는 카스텔, 실다란, 33엑스포트, 비짐 빼바 등이다.

- 코카콜라, 러시아의 음료 크바스 생산
 - 코카콜라는 러시아의 인기음료인 크바스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코카콜라가 생산하는 크바스는 러시아내 2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이들 공장들은 뱀자지역에 위치한 썸꼬맥주공장과 뜨베리지역에 위치한 브라우 서비스공장이다.
 -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크바스는 금년 여름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 라면류 러시아 패스트푸드 상품 시장 67% 차지
 - 마케팅 회사인 ‘아미코’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패스트푸드 상품 시장에서 라면류의 판매량이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 뒤로 고기국물(불리온)이 11%를 차지했으며 끓여 먹는 스프가 9%를 차지했다.
 - 현재 38%의 소비자들이 일주일에 1-2회 패스트푸드를 구입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를 매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4%이다.
 -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라면류로 베르미첼리(실국수)와 라면이 70%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감자튀레가 22%, 죽이 8%를 차지하였다.
 - 세계 회사들이 러시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서는 패스트푸드의 인기가 높아졌다.
- 러시아 담배회사 매출신장
 - 러시아 최대의 담배생산회사인 British American Tobacco Russia사는 금년도 1/4분기에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고 화요일 밝혔다.
 -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약25%가 늘어났는데, 이는 작년에 담배생산시설에 대한 설비투자에 약1억2천만달러를 투자한 결과라고 밝혔다.
- 러시아 1/4분기 무역흑자 536억달러
 - 무역흑자 규모가 335억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대비 200억달러 가량 증가했다.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52.9% 늘어난 1085억달러를 기록했다(에너지는 러시아 전체 수출량의 72.9%를 차지).
 - 수출 증가는 주요 원자재와 석유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
- 러시아 극동지역 물가폭등
 - 러시아 극동지역의 물가가 최근 급등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임금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연해주에서는 지난 한달 사이에 디젤유가격이 23%, 휘발유가격은 10% 올라 현재 리터당 27루블(약1천150원)과 25루블(약 1천60원)

에 판매되고 있다. 유가는 지난 해 12월 이후 벌써 3번째 인상되었다.

- 유전이 많은 사할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주 한주에만 무려 10% 가량 기름 가격이 인상되었다.
- 러시아의 주식인 빵 가격도 금년 초부터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 달 말 사할린에서는 한꺼번에 평균 17%나 인상되었다.
- 연해주 통계청은 기름가격과 빵, 채소가격의 급등으로 지난 달 7일 이후 물가상승률이 무려 2.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물가폭등으로 삶이 팍팍해지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블라디보스톡시에서 연해주 노동자들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비산유국인 일본보다 연료비가 높다며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러시아 정부도 극동지역의 물가급등이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5천 톤의 비축 곡물을 저가에 사할린에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애쓰고 있다.

◦ 러시아, ‘곡물 수출기구’ 결성 역설

- 세계적 식량위기로 일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본뜬 ‘쌀(곡물)수출기구(OREC)’결성 움직임에 러시아가 가세해 주목된다. 알렉세이 고르데예프 농업장관은 19일 농업정책회의에 참석, “세계 곡물 생산과 거래를 통합, 조정할 ‘곡물 OPEC’같은 국제기구가 하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러시아는 지난해 6월 이미 쌀생산 및 수출국들에 쌀 생산과 교역을 조정하기 위한 쌀 OPEC 창설을 제안한 바 있으며,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도 이 제안에 동의를 표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연간 1천2백만톤, 1천만톤의 쌀을 수출하고 있다.
- 러시아는 곡물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농업을 ‘4대 국가 우선 프로젝트’로 정한 러시아가 쌀 OPEC결성에 적극적인 이유는 5년 안에 세계 3대 곡물수출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러시아 정부는 장기적으로 연간 1억톤의 곡물을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 5년안에 휴경지를 적극 개발하여 최소 3천만톤의 곡물을 증산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 5월 1일부터 밀·보리 수출세 적용
 - 러시아 정부의 결정에 따라 2008년 3월 29일부터 실시 밀·보리 수출세 적용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 보리 수출세는 30%로 톤당 70유로 이상, 밀 수출세는 40%로 톤당 105유로 이상이다.
- 러시아 농업부, 수입 육류 사용 제한
 - 수입 육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커틀렛, 깔바싸, 햄, 냉동 가공 식품의 생산 시 냉동 육류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가공 시에는 도살 된지 3일 이내의 신선한 고기만을 사용 할 수 있다.
 - 수입자들은 가게와 시장에서 1년에 130만 톤의 고기만을 팔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산 육류 소비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 러시아 정부, 주류와 담배세 인상 추진
 - 러시아정부는 2009년과 2010년에 주류에 대한 세금을 당초 6.5%인상 계획보다 더 높은 1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또한 담배에 대한 세금을 당초 21%인상 계획에서 내년에 25%, 2010년에는 22%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 설탕수입관세 6월에 낮춰
 - 러시아의 경제개발무역부는 사탕수수 수입관세는 톤당 220불이 부과되는 계절관세가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톤당 140불로 낮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작년 12월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시행해 온 계절관세는 과도한 수입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 러시아는 수입사탕수수로부터 소비되는 백설탕의 45%를 가공하고, 그 나머지의 대부분은 국내산 사탕수수로 대체하고 있다.
 - 금년 초부터 4월30일까지는 높은 관세로 인하여 수입사탕수수로부터 전년 동기 대비 55%가 하락한 61만8천9백 톤을 제조하였다.

농산물 해외시장동향(네덜란드)

EU지역 수출입동향 및 중기 전망

1. EU 수출입동향

□ 수출

(단위: 백만유로)

품목	EU국가 외로의 수출 (2007)		EU 국가 외로의 수출 (2008/1월,2월)	
	금액	07/06%	금액	08/07 %
전체	1,238,710	6.8	208,157	12.5
음식 및 산동물	42,385	7.5	7,050	9.2
산동물	1,092	4.8	157	-11.0
육류와 육류가공품	4,221	2.8	620	1.2
유제품 및 난류	6,346	23.0	1,049	20.6
생선 및 조개류	2,497	4.2	436	9.2
곡류 및 곡류제품	6,725	15.5	1,226	6.9
채소와 과일	7,362	13.2	1,294	7.6
설탕, 꿀	1,565	-46.2	221	5.8
커피, 차, 코코아, 향료	4,030	10.2	609	3.0
동물 사료	2,142	12.0	344	11.1
음료 및 담배	15,452	5.0	2,879	2.9
음료	17,113	5.6	2,431	-0.3
담배	2,332	0.6	446	24.2

□ 수입

(단위: 백만유로)

품목	EU국가 외로부터의 수입 (2007)		EU 국가 외로부터의 수입(2008/1월,2월)	
	금액	07/06%	금액	08/07 %
전체	1,424,229	5.4	254,646	11.4
음식 및 산동물	68,599	11.1	12,067	13.2
산동물	455	-21.4	45	-40.3
육류와 육류가공품	4,964	5.7	770	7.0
유제품 및 난류	755	3.6	124	17.8
생선 및 조개류	16,090	1.7	2,430	-3.3
곡류 및 곡류제품	5,191	99.9	1,257	144.1
채소와 과일	20,143	8.4	3,230	-3.4
설탕, 꿀	2,179	-3.1	360	6.9
커피, 차, 코코아, 향료	9,693	10.9	1,813	5.9
동물 사료	6,973	16.2	1,602	55.8
음료 및 담배	6,626	7.6	919	-2.2
음료	4,524	9.8	614	7.6
담배	2,054	1.7	299	-17.4

(www.ec.europa.eu)

2. EU농업 중기전망

다음은 EU27개국의 중장기 농업전망으로서 2007년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료임

- 곡류시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추세로 볼 때 가격 면에서 예외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는 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음식 수요와 생화학 연료시장의 갑작스런 등장과 EU내에서의 곡류 생산 증가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 등과 관련된 결과이며, 그리고 기상 예측의 어려움이나 주요 세계시장 공급자들의 제한적인 수출정책 등 단기적인 요소들도 관련이 있다. EU내에서 2006/7 두 해 연속으로 평균 수확량 보다 낮았으며 2007/8년에는 곡류 재고품이 빠르게 소비시장에 나가게 됨에 따라 전체 곡류 재고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상태를 해결하려면 곡류 가격을 EU 시장 내에 재고가 다시 보충될 때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하반기에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EU전반적으로 곡류 가격이 지난 10년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게다가 곡류 가격은 최근 몇 년간 보다 가격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옥수수 수요를 고려할 때, 곡류를 위한 적절한 가격수준의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유럽의 보리와 옥수수 수출 면에서 특히 요구된다.
- 중기 전망은 세계 시장에서의 더욱더 호의적인 조건들과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의 단일시장 통합, 그리고 진입중인 바이오 시장, 생산량 증가의 전망,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혁의 영향력 덕분에 EU 곡류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 중기 육류 생산 전망은 돼지고기, 유제품, 가금류 시장에서 꽤 긍정적인 반면, 쇠고기 생산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예상된다. 1인당 전체 육류 소비는 Avian 인플루엔자로 인한 2006년 시장 붕괴 이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중기 이후 2014년까지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쇠고기는 2007년에 438천톤의 생산감소에 이어, 2014년에는 7.6백만톤 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소비추세가 감소추세를 보일 것에 대비해서 수입은 2014년까지 그 차이를 채우기 위해 743천톤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 비록 지난 십년간에 비해서는 느린 속도이나, 가금류와의 경쟁과 높은 사료비로 인해 돼지고기류의 생산과 소비는 중기적으로 볼 때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EU 역외 수출국들은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나라들과 경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EU 역내 무역은 계속해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금류의 시장전망은 다른 육류와 비교해 볼 때, 경쟁적인 가격과 함께 긍정적이며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는 가금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브라질 및 태국과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은 중기적으로 볼 때 적당한 수입 증가세를 이어나갈 전망임에 따라, EU 27개국은 곧 가금류의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 전반적인 육류 소비는 2006년 1인당 84.5kg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까지 1인당 약 87.2kg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는 EU국가 내에 가장 인기 있는 육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며, 이미 육류 시장 내에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금류가 약 28%정도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 EU27개국의 유제품 생산은 EU 15개국의 11개국에게 할당되는 쿼타의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는 적절한 비율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볼 때 유제품이 점차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2014년에는 EU 12개국 내의 급격한 생산량 감소로 인해 147.3 백만톤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 반면 우유.버터 제조업체로 조달되는 우유의 비율은 중기 이후로 2014년까지 2.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U 27개국의 가축들은 2006년 24.2백만 마리에서 2014까지 21.9 백만 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2007년의 일시적인 경제 둔화에 따라 EU 27개국의 치즈 생산품은 중반기내에 10%까지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단기간 내에 증가할 것이나, 국내 소비의 성장은 모든 치즈 상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중기 내에 수출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U-27개국 버터 생산은 2014년까지 2백만톤 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소비와 버터의 수출은 낮은 비율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 중기 농업부문 소득 전망을 통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18.1%까지 EU27개국의 농업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호의적인 전망들을 알 수 있다. EU 15개

국의 농업소득은 2006-2014년 사이에 7.1%의 성장률과 함께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EU 10개국, 그리고 EU 2개국은 2014년까지 31.2%와 87.6%로 더욱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향후 7년간 EU농업시장과 소득에 관한 전반적인 전망이 전 세계적으로 호의적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분명히 몇몇 중요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이 불확실성은 미래경제, 시장 및 정책개발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농업에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의 변화, 무역정책, 그리고 Doha 라운드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유가나 달러 환율 등 거시경제 환경,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정책, 기술변화의 추이, 미래의 기후여건, GMO의 우발적인 위험들과 같은 요소 또한 EU 농업시장의 미래 패턴으로 함축될 수 있다.

www.minlnv.nl

해외 aT센터 소재국의 농수산물 해외시장동향

발 행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08년 6월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문 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팀

02-6300-1391~1397

www.kati.net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